Buddhanews.com

현대불교

辛卯年

오늘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됐고, 현재의 생각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간다.〈법구경〉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제818호 | 2011년 1월 12일 수요일 (음력 12월 9일 · 불기 2555년 · 주간)

정재가 기름값으로 콸콸콸 샌다

〈淨財〉

태양광 등 친환경 고효율 설비 확산 시급

연초부터 시작된 유가 급등으로 전국 사찰들이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2010년 배럴당 평균 70달러 후반이었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겨울철 난방에 많이 쓰이는 실내등유와 보일러 등유 모두 새해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2월 31일 1179.82원이던 실내등유는 1월 5일 현재 1185.92원까지 올랐다. 1165.30원이던 보일러 등유는 1월 5일 기준으로 1173.08원을 나타내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사찰에너지연구팀이 2010년 1월 발간한 '사찰에너지 사용 개선방안과 신 · 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찰은 1월에 가장 많은 등유를 사용했다. 이 조사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연구 기간 동안 연간 에너지 비용을 조사했다. 이 조사는 난방과 취사 등 주용도별 에너지원인 일반전력, 심야전력, 도시가스, 등유, LPG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난방으로 사용되는 심야전력과 등유의 연간 비용은 심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조계사가 등유 사용액만 1700만원 가량을 지출했다. 같은 시기 직지사는 심야전력과 등유 사용액이 1억 700여 만원, 통도사는 2억 4000여 만원, 범어사는 9900여 만원, 심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심사찰 봉은사는 9100여 만원으로 조사됐다.

2009년 1월의 보일러 등유 가격은 올해보다 낮은 리터당 912.10원, 2010년 1월에는 평균 1025.68원 수준이었다. 현재 유가가 당시보다 1.2~ 1.3배 상승하면서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각 사찰들은 난방비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수 년 전부터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나 태양열, 지열 등 연료를 다양화하고 있지만, 난방에 취약한 한옥 구조상 겨울철 난방비용은 사찰마다 공통된 고민거리다.

부산 범어사는 현재 심야전기를 사용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유가 상승에 상대적인 부담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등유를 이용한 난방 기구도 사용하고 있어 대비책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김천 직지사는 전체 난방의 70%를 화목보일러로 소화한다. 보일러 운영 축소와 외부 기관 지원책 마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소규모 사찰인 대구 장암사도 심야 보일러를 주력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등유를 이용한 난방 기구도 함께 사용해 고민이 크다. 금산사와 직지사는 화목보일러를 사용 중이며 내원사는 태양열 급탕 설비, 통도사와 천곡사는 지열과 태양광 등 친환경적인 신 · 재생 에너지를 사용 중이다. 그러나 사찰들 대부분은 초기투자 비용이 높아 친환경 고효율 설비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직지사 관계자는 "좋은 설비도 효율성 검증 전에는 도입이 어렵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나 종단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신 · 재생 에너지 도입 타당성을 연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사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정부 지원책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음 주 계속)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또 한 번의 부처님오신날 음력 12월 8일은 또 한 번의 '부처님오신날'이다. 2500여 년 전 그 날, 부처님이 6년의 고행 끝에 홀로 깨달으며 중생 곁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불기 2555년 성도재일을 맞아 전국의 사찰은 철야정진과 특별법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로 성도재일의 의미를 새겼다. 서울 조계사는 특별히 보리수 모양의 등으로 도량을 장엄했다. 1월 11일 조계사를 찾은 불자가 등을 달고 간절한 서원을 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한국불교중흥 아젠다는?

조계종, 1월 27일부터 매월 대토론회 개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대토론회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개최된다. 발제자로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중앙종회의원 주경 스님, 고려대 조성택 교수, 한겨레신문 곽병찬 논설위원이 참석한다.

이어 2월 23일에는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를 주제로 두 번째 대토론회가 열린다. 행사에는 백련문화재단 원택 스님이 발제하며, 도법 · 법안 스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3월 30일 '현대사회에서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 4월 27일 '생명과 생태 문제에 대한 불교적 응답', 5월 25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불교적 응답', 6월 29일 '사회 정의를 위한 불교의 자비실천'을 주제로 상반기 행사가 진행된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한국 불교의 사명 등에 대한 진지하고 엄중한 성찰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회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자 대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개신교인들을 도와 달라"

세계적인 신학자 폴 니터 교수, 대구 동화사서

"땅밟기 등 불교 폄훼를 하는 개신교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다.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불자들이 도와 달라."

불교와 개신교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기2555년(2011) 밀레니엄 평화토크' 참석차 방한한 세계적인 신학자 폴 니터 교수(美 뉴욕 유니온신학대)가 한국의 불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폴 니터 교수는 구랍 31일 대구 동화사에서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과 대담했다. 스님과의 대담 후 "불교는 왜 개신교와 대화가 어려운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니터 교수는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공인 후 로마제국과 함께 발전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로마제국의 메시지와 동일시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로마제국이 유일한 권력으로 이해되듯 기독교도 진리를 가진 유일한 종교로 이해됐다. 로마가 세계정복을 할수록 기독교도 다른 종교를 정복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폴 니터 교수는 "오늘날 신학자들은 예수의 본래 메시지를 통해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노력은 그리스도가 유일이라는 편협된 주장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니터 교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종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 속에서 유일성을 잃게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교 폄훼 등을 저지르며) 다른 종교에 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폴 니터 교수는 "보수 ·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들이 불자를 미워할지라도 불자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 5, 7, 8, 9면) 조동섭 기자



"자생력 길러라"

조계종과 정부가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등을 계기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이 "운력과 작무를 통해 자생력을 기르라"는 불기2555년(2011년) 신년교시를 내렸다

법전 스님은 신년교시에서 "백장 선사의 운력(運力)과 작무(作務)는 수행과 노동의 일체화로 중원(中原)의 법난 속에서 선종이 우뚝 솟은 힘이었다"며 "작금의 방편에 의탁한 '질러가는 길'만 선호하는 것은 아상(我相)의 허물만 수미산보다 높아져 본래자리에서 멀리 일탈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세간법은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한다"고 강조했다.

법전 스님은 "신묘년 새해에는 이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커다란 자비심을 내어 심기일전하는 원년으로 만들자"고 거듭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CONTENTS

3 선사와 신학자 만나다



9 폴 니터 · 캐서린 코넬 부부



11 선원총림을 가다



14 법정 스님과 만난 사람들
15 前 방송인 이계진



18 특별기획
19 미얀마 난민수용소를 가다(상)





謹賀新年

대한불교 조계종 제 11교구 본사

불 국 사

주지 성타

관장 종상 학장 덕민 선원장 종우 총무 종천
기획 정문 교무 정수 재무 종천 사회 종민
포교 성요 호법 각천 신도회장 변영우

대중일동

부설기관 •분당 포교당 석가사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불국사 문화회관 •불국 유치원 •성림 어린이집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변화 않으면 미래에 대가 치른다”

조계종 신년 쇄신 다짐, 태고종 등도 종단발전 발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 왼쪽)을 비롯한 불교종단 대표들과 300여 사부대중이 종단협 신년하례 법회에서 쇄신과 변화를 통한 불교 중흥을 발원하고 있다.

조계종 등 불교계는 신묘년 시무식과 신년하례를 잇따라 열고 불기 2555년 종무행정을 일제히 시작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과 부설기관 종무원 200여 명은 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변화와 쇄신의 종무를 다짐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시무식에서 자립을 위한 의지와 변화를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 사태를 비롯해 그동안 불교계의 정부예산 의존에 대해 “우리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겠지만 10년 · 20년 후 보람을 느낄 것”이라며 불자들의 십시일반 보시와 노력으로 불사를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종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작심삼일로 끝나서는 절대 안된다”며 “33대 총무원 집행부가 서원한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불교라는 대발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조계종은 사찰 법회 및 각종 행사에 정부관계자 및 정치인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종무지침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어 불교계 27개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도 정부 및 정치 인사를 배제한 채 신년을 시작하는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은 5일 서울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시무식을 봉행하고 12일 오전 11시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에서 종정 혜초 스님 친견 신년하례를 봉행한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지혜와 자비의 밝은 마음을 바탕으로 나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利他)의 큰마음을 내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각종도 4일 서울 월곡동 총인원에서 시무식과 총인 도흔 정사 친견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이에 앞서 진각종과 총지종은 3일부터 1주일 간 새해 불공에 들어갔다. 총지종은 13일 오후 2시 강남 총지사에서 신년하례를 봉행한다. 천태종은 별도의 시무식이 없이 음력 설날을 전후해 신년하례를 봉행하고 있다.

글=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사진=박재완 기자 waihollo@hanmail.net

봉정사 극락전 누더기 보수됐다

황평우 소장 문제제기에 문화재청 “이상 없다”



국내 최고(最古)의 목조건축물인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보수가 날림으로 이뤄져 목재가 이탈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1월 4일 “봉정사 극락전 곳곳에서 목재가 부분 이탈되는 심각한 현상이 진행 중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현재 전면 재재작에 들어간 광화문 현판의 균열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이다.

황평우 소장이 봉정사 극락전 부재의 이탈을 발견한 곳은 전면 도리 부분과 측면 보, 측면 창방 부위로 극락전 전후좌후에서 5곳이나 된다.

황 소장은 “부재 이탈은 도리와 보 등 건물 하중을 받는 부위에 집중돼 있다.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대들보가 부러져 법당의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황 소장은 7년 전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한 수리기술자의 말을 인용해 “수지는 굳으면 딱딱한 돌덩이처럼 견고해지는 성질이 있어 계절에 따른 온도(습도) 변화에 의해 수축 · 이완을 거듭하는 나무와 분리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부재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5일, 문화재청은 “긴급 확인조사 결과 봉정사 극락전의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황평우 소장은 재반박문을 통해 “한국 고건축물에서 중요한 것은 구조와 의장”이라며 “부재와 부재의 결구(짜맞춤)의 미적 관점(의장)에서 보면 봉정사 극락전은 잘못된 보수 공사로 누더기 국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불국사 석가탑(국보 제21호) 기단부 균열에 이은 봉정사 극락전의 부재 이탈로 정부의 문화재 관리 체계에 큰 헛점이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조동섭 기자

“적당히 예산 받고 끝내려 말라”

◆명진 스님, 쓴소리

“조계종이 정부로부터 적당히 예산을 배정 받고 끝낸다면 불교 내부에서 엄청난 지탄이 있을 것이다. 신도들 또한 심각한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명진 스님이 봉은사 산문을 나선지 50여 일 만인 1월 3일 봉은사 신도들과 만난 자리에서 MB정권을 질타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님은 “한나라당 고흥길, 안상수 의원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만나 좌파주지 척결 문제가 나왔을 때 템플스테이 예산문제도 논의됐었다. 좌파주지는 내보냈는데 예산을 못 받게 됐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느냐”고 말해 정권 뿐만 아니라 조계종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동섭 기자

◆“90%가 타종교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문화재 위원 90%가 타종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보문화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든 중앙승가대든 종립학교에서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학과 설립 비용은 종단이 적극 나서서 돕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발언은 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 등 중앙승가대 보직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나왔다. 조동섭 기자

◆“총무원장 당선 무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당선 무효 소송을 내 1심에서 기각 당했던 진안 금당사 성호 스님이 1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성호 스님은 소장에서 “자승 스님의 승적 보유에 하자가 있고, 조계종 관장 하에 있지 않은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어 종무직인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구제역 종식 발원 천도재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월 4일~2월 3일 교구 말사와 함께 ‘구제역 확산방지와 희생가축을 위한 천도기도와 법회’를 봉행한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는 6일, 가평 백련사(주지 승원)는 구랍 30일 구제역 살처분 가축 위령재를 봉행했다. 노덕현 기자

죽비와 목탁

니터의 불교문화체험 되지 않으려면

폴 니터(Paul. F. Knitter) 교수 부부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 됐다. 일정 내내 취재진들은 밀착취재를 했다.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소감을 물었다. 종교간 갈등이 사회문제가 된 한국에서 신학자인 그의 방한은 이슈화되기 좋았다. 니터 교수는 불교 수행을 적극 수용해 그리스도영성을 깨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 대화는 여러 면에서 아쉬움의 화두를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은 한국 개신교가 했는데 가톨릭 신학자가 와서 사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중히 사과했다. 폴 니터 교수 부부의 정중한 사과는 이내 불자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찜찜하다.

진정 원하던 종교간 대화는 아니었다. 니터 교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성급한 성과를 바라는 것일 수 있다. 한국 보수근본주의 개신교도들의 배타성과 조직적 폄훼 행위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나 할 것일까?

폴 니터 교수는 기독교에서는 꾸준한 대화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개신교에서는 WCC(세계교회협의회)가 있다고 했다. WCC가 추구하는 종교간 대화에 대한 진정성을 차치하고 국내 보수 기독교단체부터 이 WCC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를 비롯한 정통보수신학 교단들이 2010년 1월 조직한 ‘WCC 대책위원회’가 그 예다. 갈등을 일으키는 개신교 내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음은 물론인 상황에서, 대화와 협력의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행사에서 가톨릭 · 개신교 평신도의 참여는 전무했다. 20세기 들어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한 자리는 수차례 있었지만 일부 관심있는 학자나 성직자들의 사적인 관심에 불과했다. 삶의 현장에서는 종교 갈등이 담론화 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대화 협력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만남은 저명한 학자의 흥미로운 불교문화체험에 그칠 지 모른다. 아래로부터의 화합과 대화가 절실하다. 이상언 · 이나은 기자

민족문화수호지킴이 지역마다 만든다

조계종 민족문화수호위원회(공동위원장 영담 · 정우 · 원행)은 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총무부장 영담 스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민족문화수호위원회는 사업으로 10일 청계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1080배 정진을 시작으로 11일 성도재일 맞이 전국사찰 동시법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와 지역별 민족문화수호위원회를 만들고 지킴이 등을 조직을 구성키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불기 2555(2011)년 연수교육 시행 공고

불기 2555(2011)년 조계종 연수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께서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관련종법 : 승려법 제26조 및 교육법 제109조)

○ 지난해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실시한 연수교육은 여러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다양한 의견 제시 속에 원만하게 회향되었습니다. 2011년 연수교육은 작년에 개설한 강좌 중 스님들께서 많이 호응해주신 강좌로 그 틀을 유지하였습니다. 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강좌는 전체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새롭게 의견을 주신 내용에 따라 추가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변화된 세부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스님들께서 3급, 2급,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말사 주지스님들께서는 개설된 강좌 중 매년 반드시 1개 강좌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사찰운영, 전법향상, 불교교학 등의 교육과정을 년 중 개설하였으니, 스님들께서는 원하는 강좌와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교육대상 _ 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② 2011년 현재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③ 승납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및시간 _ **① 일반연수과정 2박 3일 12시간 이상 ② 사찰경영지도자과정 4박 5일**

■ 교육장소 _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마곡사 인근)

■ 접 수 _ ① 말사 주지스님께서는 1월28일(금)까지 소속 교구본사로 교육신청 및 연수비 납부를 하면 됩니다. 1월28일(금) 이후에는 교육원으로 직접 신청 및 납부하면 됩니다.
② 직할교구 말사 주지스님 및 그 외 스님들께서는 교육원으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대한불교조계종 연수교육신청 홈페이지 (monkedu.buddhism.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교 육 비 _ ① 강좌별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② 승납 10년 미만으로 주지소임을 맡고 있지 않은 스님들께 모든 연수교육과정 교육비중 5만원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③ 교육과정을 2개 이상 신청하시는 스님들께는 2회차부터 교육비를 5만원 감액하여 드립니다.
④ 승납 10년 미만이면서 2개이상의 교육과정을 신청하신 스님들은 10만원 감액하여 드립니다.

■ 교육비납부방법 _ **계좌이체 농협 053-17-006226** 재)대한불교조계종 온라인입금 시 본인 속명(법명) 사용 / 예) 홍길동(광명)

■ 문 의 처 _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주소) 우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02-2011-1807~9 팩스) 02-732-4926

불기2555(2011)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71세인 내게도 깨달을 시간이 있습니까?”

대구 동화사서 선사와 신학자 만나다



구랍 31일 대구 동화사 설법전에서 진제 스님(왼쪽)과 폴 니터 교수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진제 스님이 신학자 폴 니터 교수를 만났다.

스님이 말했다. “동화사 염화실에는 태산이 가려가지고 모든 부처님과 역대 도인도 산승을 친견하지 못하니, 폴 니터 교수님은 태산 철벽이 가려져 있는데 어느 곳에서 산승을 보렵니까?”

(선문답이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폴 니터 교수는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함께 배우고 조화롭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상부상조하자”고 말해 자신의 소견만을 밝혔다.

진제 스님은 “선은 신앙의 대상이 아닌 종교를 떠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법”이라며 폴 니터 교수에게 법명을 지어줬다.

‘진아(眞我)’ 참 나를 찾으라는 뜻에서 내린 불명이었다.

선사와 신학자의 사제의 연은 이렇게 시작됐다.

불교와 개신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신교의 ‘땅밟기’가 있었던 대구 동화사에서 선사와 신학자가 만나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구랍 31일~1월 5일 대구 동화사, 부산 해운정사 등에서 ‘가슴을 열어 빛을 보다’를 주제로 2011년 초조대장경 천년, 밀레니엄 평화토크를 개최했다.

행사 첫날인 31일 대구 동화사 설법전에서는 한국 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인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과 세계적인 신학자인 폴 니터 교수(美 유니온 신학대)의 대담이 진행됐다. 폴 니터 교수는 비교종교학자이다. 종교학계에서는 다원주의 신학의 일인자로 평가 받는다.

니터 교수는 “한국은 현재 남북간 긴장과 불교 · 기독교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시점으로 알고 있다. 최근 범어사 · 동화사에서 무례한 사건(땅밟기)을 저지른 그리스도인을 대신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사죄한다”며 말을 꺼냈다.

니터 교수는 “종교간 평화 없이 나라간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종교간 대화 없이 종교간 평화는 없다. 불자와 그리스도인이 만나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이 자리가 불교-개신교간 이해와 화합을 넘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불자와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모아 인류 평화 · 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며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길은 모든 종교가 머리를 맞대고 모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있다. 이것이 종교인의 책임이자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평화·정의 실천에 불교적 수행이 도움

폴 니터 교수는 “그리스도인들은 평화 · 정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터 교수는 “1980년대부터 부인 캐서린 코넬 여사와 엘살바도르에서 평화와 정의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스스로 평화로워져야 함을 깨달았다. 이 평화는 주변의 불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평화로움에 불교의 명상이 큰 도움이 됐다. 기독교의 평화 · 정의 실천을 위해서는 불교의 명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궁극적 실재’ = ‘참 나’

폴 니터 교수는 1962~1966 로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던 때, 로마에서 신학을 배웠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이 계시며,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획기적인 교리가 소개됐다. 그는 그 후 다른 종교와의 대화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믿게 됐다.

폴 니터 교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궁극적 실재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기존의 입장과 다르게 나는 그 궁극적 실재가 여러 모습으로 여러 종교에서 나타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제 스님은 “모든 종교는 인간을 진리의 언덕에 이르게 하는데 요점이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는 ‘참 나(眞我)’ 가운데 우주의 진리가 모두 있다고 말한다. 개개인이 ‘참 나’를 갖추고는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사람 사람마다 갖춰진 ‘참 나’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이다. 우주의 모든 생명이 ‘참 나’의 근원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당부했다. “모든 인류는 일상생활 속에서 ‘참 나’를 발견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스님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내 모습을 살피는 화두,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을 그 방법으로 소개했다.

폴 니터 교수는 “불교에서 우리 안에 ‘참 나’가 있다고 말하듯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폴 니터 교수는 30년 전부터 매일 명상을 해왔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고민을 불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저서 〈부처님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는 그 이유에서 집필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리·교화=구원·해방

폴 니터 교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참 나’[성령]을 찾고, 어떻게 평화를 얻을 것인가를 불자들로부터 명상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고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을 바로는 구조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자아완성을 중요시 여긴다. 이는 간화선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폴 니터 교수는 “내가 들어 앉아 수행하고 있을 때 밖에서는 아이들이 죽고,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스님은 “불교에는 하화중생하는 보현행과 상구보리로 통하는 문수행이 있다. 이는 수레를 이루는 두 바퀴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내 눈이 어두우면서 중생을 밝은 곳으로 인도할 수 없으니 ‘자기를 바로 봄’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깨달음은 간절함에 달렸다”

폴 니터 교수는 대담에 앞서 진제 스님으로부터 ‘진아(眞我)’라는 법명을 받았다. 니터 교수는 “진제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년간 용맹정진을 했다. 하지만 나는 71세이다. 내게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스님은 “깨달음은 시간에 구애 받지 않는다.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다. 오직 간절함에 달렸다”고 말했다.

#“눈사람도 성불을?”

대담 이튿날, 진제 스님과 폴 니터 교수가 동화사 도량을 거닐었다.

법당 앞 누각 밑에 눈사람 3개가 만들어져 있었다.

니터 교수가 물었다. “저 눈사람도 성불했습니까?”

진제 스님이 답했다. “진묵겁전(塵墨劫前; 아주 오래전)에 성불했느니라.”

후에 진제 스님이 이를 평하기를, “(폴 니터 교수는) 물음을 물을 줄 안다. 참선에는 이런 맛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강좌 안내]

과정	강좌번호	강좌명	강사	일정	신청마감	교육비
사찰운영	01	사찰경영지도자과정	이점수(법무사), 김이곤(음악감독) 외	상반기 2.21~25 하반기 7.25~29	상반기 2.16 하반기 7.20	35만원
	02	스피치능력향상과정	김이곤(음악감독)	상반기 3.7~9 하반기 9.7~9	상반기 3.2 하반기 9.2	20만원
	03	종교 및 비영리법인의 경영과 모금	김재춘(아름다운 가게 정책국장) 이명희(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 이희관(사회공헌정보센터 자문위원)	4.24~26	4.19	20만원
	04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강태완 외(경희대교수)	7.6~8	7.1	20만원
	05	사찰농지임야활용	김진혁 외(전 초록넷 부대표)	9.22~24	9.16	20만원
	06	사찰부동산의 보존과 활용	재무부, 이점수(법무사)	10.5~7	9.30	20만원
	07	사찰건축이론과 실습	지용한옥학교	4.13~15	4.8	40만원
	08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시설 설(유)치	사회복지재단	6.22~24	6.17	20만원
전법향상	09	모바일 혁명과 미래지도	김중태(IT문화원 원장)	3.21~23	3.16	20만원
	10	템플스테이(수련법회) 운영과 실제	법인스님, 금강스님, 백거스님	6.8~10	6.3	20만원
	11	종교평화와 불교의 역할	이찬수(가톨대 교수), 윤남진(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	3.14~16	3.9	20만원
	12	신도상담지도과정	김준형(대구사이버대 교수) 담교스님(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상반기 4.7~9 하반기 10.17~19	상반기 4.1 하반기 10.12	20만원
	13	불교문화유산 · 콘텐츠활용	이재수(동국대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11.5~7	10.31	20만원
	14	불교 심리치료	서광스님(동국대 겸임교수)	상반기 3.28~30 하반기 9.28~30	상반기 3.23 하반기 9.23	20만원
	15	불교지화	김태연(궁중상화연구소 소장)	7.4~6	6.29	30만원
	16	청소년명상지도과정	김남선(강현중 교사)	4.22~24	4.18	20만원
	17	디지털카메라 사진교육	이창수 (순천대 겸임교수)	3.30~4.1	3.25	20만원
불교교학	18	전심법요	지환스님(기본선원장)	4.27~29	4.22	20만원
	19	선요	지안스님(조계종 고시 위원장)	9.1~3	8.25	20만원
	20	서장	지오스님(전 법어사승가대학장)	4.10~12	4.5	20만원
	21	임제록	무비스님(전 교육원장)	10.10~12	10.5	20만원
	22	경덕전등록	통광스님(쌍계사 승가대학장)	10.16~18	10.11	20만원
	23	육조단경	월암스님(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10.24~26	10.19	20만원
	24	티벳불교의 힘	최로덴(동국대 교수)	4.4~6	3.30	20만원
	25	초기불교 특강	각묵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상반기 4.11~13 하반기 7.11~13	상반기 4.6 하반기 7.6	20만원
	26	불교의 눈으로 본 생명과 삶	우희종(서울대 교수)	10.21~23	10.17	20만원
	27	불교와 자연과학	김성구(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시우(서울대 명예교수) 박문호(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8.21~23	8.16	20만원
	28	중론	김성철(동국대 교수)	8.17~19	8.12	20만원

[유의사항]

○ 전체 연수교육 강좌의 내용 및 강사진, 일정, 교육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연수교육 강좌는 적정 인원이상 신청할 경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지에 처음으로 취임하고자 하는 스님들은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9조에 따라 **‘사찰경영지도자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연수교육과정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안내]

아래의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셔도 연수교육 이수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활동시간** : 총18시간(사전교육3시간, 자원봉사활동12시간이상, 활동평가3시간)

■**활동내용** : 생활지원(식사, 목욕, 세탁, 간병, 이 · 미용 등), 교육지원(학습지도 등), 정서지원(말벗, 안부전화, 상담 등), 사회활동지원(사회적응훈련, 차량지원, 외출동행 등), 여가선용(각종 취미활동 등), 각종행사보조(캠페인, 바자회 등), 재해복구현장지원 등

■**사회봉사 활동신청**

– 아래에 게시된 각 지역 사회복지봉사활동 기관으로 신청하시고, 해당 기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봉사활동 기관**

▮사회복지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경남 거제시	055-636-8991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전북 고창군	063-561-1185
과천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과천시	02-507-6319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구로구	02-852-0522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구로구	02-2613-9367
금오종합사회복지관	경북 구미시	054-458-0230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경북 상주시	054-532-5687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경북 문경시	054-555-0108
문수종합사회복지관	전남 여수시	061-652-4242
백천사회복지관	경북 경산시	053-811-1347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동작구	02-817-8052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광산구	062-941-8248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영등포구	02-831-2755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양평군	031-775-7741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수원시	031-201-8300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성동구	02-2282-1100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광주시 북구	062-266-3853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광진구	02-458-1664

▮청소년 독서실

월곡청소년센터	서울 성북구	02-918-3543

▮노숙자시설

영등포보현의집	서울 영등포구	02-2069-1601

▮아동·청소년 시설

남양주시청소년쉼터	경기도 남양주시	031-591-1319

▮어린이집

광이어린이집	경기 광명시	02-2619-9452
다사랑어린이집	충남 태안군	041-673-4875
단원어린이집	경기도 안산시	031-401-9585
미지어린이집	경기도 양평군	031-775-7746
산청어린이집	경남 산청군	055-974-0350
신일어린이집	서울 영등포구	02-846-8674
아나율어린이집	서울 구로구	02-852-1628
우석장애아어린이집	전남 순천시	061-751-0877
풀기어린이집	경북 영주시	054-636-8016
행신그린어린이집	경기도 고양시	031-978-5333

▮노인요양시설(유지재단)

고운실비노인요양원	경북 의성군	054-833-1254
동화사노인요양원	대구시 동구	053-985-2115
백양실버타운	전남 나주시	061-333-5621
불국성림원	경북 경주시	054-746-9900
영은사노인요양원	충남 논산시	041-734-9331
월정사노인요양원	강원도 평창군	033-334-9595
은혜사포근한집	경북 영천시	054-335-3314
직지사노인요양원	경북 김천시	054-431-9801

▮장애인복지 시설

강릉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 강릉시	033-643-1801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북구	02-989-4214
거창군삶의쉼터	경남 거창군	055-945-2014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 경주시	054-776-7522
광산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시 광산구	062-943-0420
군포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도 군포시	031-396-3108
여주군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여주군	031-883-2100
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 영등포구	02-3667-0870
영주보현마을	경북 영주시	054-635-3555
영주장애인종합복지관	경북 영주시	054-633-6415
자광원	제주도 서귀포시	064-738-5040
제천장애인복지관	충북 제천시	043-652-0900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02-764-3525

▮건강가정지원센터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전남 해남군	061-536-6311
홍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 홍천군	033-435-7031

▮노인복지시설

거창군삶의쉼터	경남 거창군	055-945-2014
고창군노인복지관	전북 고창군	063-561-1185
고창군노인복지센터	전북 고창군	063-561-1185
광진노인보호센터	서울시 광진구	02-458-0350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광진구	02-466-6242
금오노인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054-472-0408
남양주시노인복지관	남양주시	031-573-6598
대전서구노인복지관	대전시 서구	042-488-6297
동여수노인복지관	전남 여수시	061-643-1966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 종로구	02-739-9501
서호노인복지관	경기도 수원시	031-291-0911
송산노인복지관	경기도의정부시	031-852-2595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시 송파구	02-415-0056
신륵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여주군	031-885-5275
신안노인전문요양원	전남 신안군	061-271-6100
쌍문동노인복지센터	서울시 도봉구	02-900-4641
여주군노인복지관	경기도 여주군	031-881-0050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충남 예산군	041-334-2901
의성군노인복지관	경북 의성군	054-833-6006
자인원(공동생활가정)	전남 강진군	061-433-5664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02-742-9500
합천댐효나눔복지센터	경남 합천군	055-933-0595

[교육원 인증 교육과정 안내]

아래 강좌를 수료해도 종단의 연수교육 이수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강좌명	시행기관	문의처
웰다잉 운동본부	불교여성개발원	02-722-2101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과정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	02-929-5004
동국대 사찰경영전문최고위과정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02-2260-8887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불교교양과정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8
동국대(경주) 불교문화대학원 지도자과정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054-770-2392
대한불교교사대학	사단법인 동련	051-864-4569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감소 프로그램	나무여성인권상담소	02-732-1367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 과정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02-738-7860
기초불교영어강좌	국제포교사회	02-722-2206
불교미래사회포럼	불교미래사회연구소	02-725-4277
불교호스피스 과정	마하보디교육원	052-264-1007
사성제와 자비명상 지도자과정	(사)자비명상	070-4159-2456
각성스님 특강	고운사	054-833-2324
불교문화강좌	불교중앙박물관	02-2011-1960
동사섭일반/중고급/지도자과정	재단법인 행복마을	055-962-1070
불교적 가족상담 교육 지도과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화엄광장-불교의 미래를 기획한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02-576-1886

불기2555(2011)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일 주 문



금강선원 유식30송 개강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1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금강선원에서 유식 30송 강좌를 개최한다. (02)445-8484



월정사 인허 선사 추모다례재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월 14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인허 선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033)339-6600



불광사 중창불사 발원 1080배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1월 25일 불광사 중창불사 발원 1080배 정진에 입재한다.



능인선원 제6기 참선원 모집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6기 참선원을 개원한다. (02)577-5800



사찰음식 정기 강좌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소장 적문 스님은 평택 수도사에서 1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74회에 걸쳐 사찰음식 강좌를 연다. (031)682-3349



정토회 서울대 열린법회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1월 13일, 27일, 2월 10일 3차례에 걸쳐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2011 서울대 겨울방학법회를 개최한다.



비로자나 국제선원 영어 담마스쿨
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자우 스님은 1월 10일까지 제5기 어린이 영어 담마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 (02)6012~1731



김희옥 동국대 총장 취임식
김희옥 신임 동국대학교 총장은 2월 22일 서울 동국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포교사단 전국대의원 총회
임희웅 포교사단장은 1월 16일 김천 직지사에서 2011 포교사단 전국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대불청 2011 행복찾기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1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8시 총 10회에 걸쳐 행복찾기 불교교리 수행강좌를 개최한다.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 불교계 선정 특집 인터뷰

"해야할 일에 노력했을 뿐"

연꽃마을 이사장 각 현 스님



"이번 선정은 불교계가 사회복지에 눈을 뜨고,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계 사회복지의 급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에 선정된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사진)은 이처럼 말하며 이번 기회에 총무원 차원에서 사회복지 지원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볼 때 총무원이 정부와의 대립에 모든 힘을 쏟고 있어 사회복지 현안이 소외된다는 것이다.

각현 스님은 "총무원 차원에서 직접 정부에 대응하는 것은 비극이다. 총무원에 복지원을 신설하는 등 복지 종책 강화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연꽃 마을은 1989년 8월 19일 설립돼 각현 스님이 1990년 8월부터 이사장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70여개 산하기관에 750여 명의 근로자들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9월 이후 복지관 2개소와 데이케어센터 2개소, 요양원 1개소, 장애인 직업 훈련원 등 산하 시설이 증가하면서 최근 1년 간 130여 명의 신규 채용이 발생했다.

연꽃 마을은 고용 증가와 더불어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불교계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기 해외파견근무를 실시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능력이 뛰어난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에 주력하고 있다. 예불이나 불교적 색채를 거부하지 않고 구성원들과 융화할 수 있으면 타 종교인도 채용하고 있다. 복지는 만인에게 평등하다."

각현 스님은 복지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業力)'과 '하고 싶은 일(願力)'의 구분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면벽 수행만 정진하면 좋은 수행자가 되겠지만 시대적 아픔을 아우르지 못 하는 종교인이 된다. 나는 사회복지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불교와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스님은 불교계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래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한국적·불교적 사회복지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복지정책을 수용해도 우리나라 특성에 맞지 않으면 정착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복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고용은 모든 복지의 최우선"

인덕원 이사장 성 운 스님



"사회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창출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총체적인 복지다. 그만큼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사진)은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에 사회복지법인 중 유일하게 불교계가 선정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불교 사회복지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웃 종교인과 무종교인에게 불교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종교편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덕원은 지난해 3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 현재 35개 산하 시설에 50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치매관리교육, 웃음치료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채용된 인력 중 50여 명은 은퇴자 재고용이다. 성운 스님은 인력 채용에 있어서 특히 재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령 은퇴라고 해도 55~60세다. 아직 한참 일할 나이고, 그들이 가진 노하우가 소중하다. 인덕원에서 타인을 위해 친절과 봉사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면 나이 종교 성별 직종 어느 것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에는 '예수마을'과 '마리아의 집'으로 불리는 병실이 있다. 입소자 중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환자들을 위한 배려다.

1978년 삼천사로 온 스님은 진관동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쌀을 나누고, 옷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복지에 눈을 떴다.

"평생 동안 부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온 불자들이 나이 들고, 병들면 다른 종교 요양시설에 입소한다. 개신교 학교에서 교육받은 자녀들의 영향과 불교계 요양 시설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불자들이 나를 보며 눈물 흘릴 때 정말 가슴이 아팠다."

스님은 지금처럼 불교 복지에 불이 붙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때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운 스님에게 불교 사회복지는 한국 불교의 미래이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이다. 세상도 점점 불교의 실천을 원하고 있고, 실천이 뒤따라야 살아 숨 쉬는 종교가 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부처님은 중생제도를 말했다. 이것은 중생복지를 말하는 것이며 결국 사회복지인 것이다. 수행과 실천의 병행이 중요하다. 사회복지는 불교가 발전하는 길이고 나의 원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복지법인 중 연꽃마을·인덕원만 선정
각각 130·300명 일자리 창출

"익산 불교 활성화에 총력"

익산 사암연합회장 지 광 스님



"사찰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계층포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비중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임기 2년의 익산사암연합회장에 추대된 지광 스님(숭림사 주지 · 사진)의 목소리에서 다부진 의지가 엿보인다.

"익산지역에는 미륵사지 같은 많은 불교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80%이상이 우리 불교문화유산인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우리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지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광 스님은 최근 정부여당의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보다 역동적인 전통문화유산 계승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기동안 지역 스님들간의 화합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는 지광 스님은 40여 개에 이르는 각 사찰의 숙원사업을 개별사찰이 아닌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스님은 "어려운 점을 함께 나누고 자비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면 지역의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다양한 종교들이 기반을 잡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종교 간 화합에도 중점을 두어 불교, 원불교, 카톨릭, 개신교의 4대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종교협의회도 창설할 계획"이라며 "종교음악제를 공동개최하는 등 상대방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종교 간 거리를 좁혀나가려는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재가불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스님은 "지역신도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청년회와 대불련의 지원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포교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스님은 특히 청년층이 많은 인근 지역의 부사관 학교나 7공수여단 등 군부대 정기 법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군포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끝으로 스님은 "신도회 등 지역 신행단체들과 협의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 차근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기 2555(서기 2011)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선운사 佛學(初期佛典) 승가대학원 학인 모집

온전한 敎學과 그 實踐의 바탕은 敎祖 석가모니 부처님의 世界觀과 삶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기 불전(Pali Tipitaka) 공부는 수행의 필수적인 과정이자 지름길입니다. 초기불전의 바른 이해 없이는 대승불교의 숭고한 이상도 뿌리 없는 나무거나 모래위에 쌓은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은 오랫동안 우리 교학과 수행 체계 가운데 잃었던 고리를 찾아 채움으로써 바른 수행자상을 정립하고 새 시대의 승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문을 열고,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러한 뜻에 공감하고 함께 새 공부 도량을 채워 완성할 스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학원 2년 과정

□ **교 과 목 :** 인도사상사, 인도불교사, 초기 경전성립과 구성,
빠알리 語 經(Sutta), 律(Vinaya), 論(Abhidhamma)외 필요한 특강

□ **교 수 사 :** 재연, 각묵, 미산, 환성

□ **응시자격 :** 기본교육기관(강원.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학부. 기본선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사미.

□ **제출서류 :**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1부
기본교육기관졸업(예정)증서 1부
사진(반명함판) 2매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 각 1부

□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 2011년 1월 20일 ~ 2011년 2월 28일**

□ **원서교부 :**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 선운사 종무소, 선운사 홈페이지

□ **원서접수 :**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 선운사 종무소(우편 및 방문 접수)

□ **전형일시 :** 2011년 3월 3일 목요일(음 1월 29일) 오후 1시 선운사 강당

□ **전형방법 :** 필기 및 면접

□ **입 학 일 : 2011년 3월 19일 토요일**(음. 2월 15일)

□ **문 의 :** 전화 **063)561-1422**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 .
(학감 도정스님 **010-3764-1016** / Fax **063)561-1127**) 선운사 종무소
메일 : **haengwoon@hanmail.net** (도정스님)
(우)585-93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번지
도솔산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 상세 안내 : 선운사 홈페이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 원장 재 연

“간화선, 자꾸 접하다 보면 다 알게 된다”

한국 불교 대표 선지식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

“폴 니터 교수님께서 수만 리 먼 길을 오셔서, 한국 간화선을 잘 배워 세계 속에 동양 정신문화를 널리 홍보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불명 진아(眞我)를 선사합니다. 동양 정신문화의 골수인 선법을 온 세계에 굴려서 세계가 태평하고, 만민이 태평의 노래를 부르고, 초목이 수려함이로다.”

구랍 31일 대구 동화사 염화실에서 진제 스님은 경허(鏡虛)-혜월(慧月)-운봉(雲峰)-향곡(香谷)으로 이어져 온 법을 미국인 기독교 신학자 폴 니터에게 전했다.

1월 2일 폴 니터 교수는 “진제 스님은 이제 나의 스승이다. 저에게 ‘진아’라는 불명을 주었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라는 화두도 주셨다.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화두에 대해 대답해 보고 싶다”며 진제 스님에게 점검을 자청했다.

진제 스님은 니터 교수의 대답에 방(棒)과 할(喝) 대신 박장대소했다.

“생각을 놓고 간절히 간절히 일념이 지속돼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일념 상태에서 모든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삼매에 들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요”라 일렀다.

진제 스님은 참선은 종교가 아님을 강조한다. 참선은 지혜를 계발하고 안락국토에 이르는 대자유를 얻는 수행법일 뿐이다.

“한국의 간화선은 정신문화의 축입니다. 전쟁, 시기, 질투, 시비에서 전쟁과 갈등, 싸움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생활 속에 참나를 밝히는 선 수행을 꾸준히 연마하면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나만 위대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없어집니다. 동양 정신의 근본인 참선이 마음을 밝혀 지혜와 자비로움이 가득하면 모든 세상과 인류가 한 집이고 한 몸이 됩니다.”

스님은 선의 생활화 · 세계화를 서원해왔다. 세계불전전산화협의회 후원자로 한국 선불교의 보급을 위해 꾸준히 활동했다. 그럼에도 스님은 해외에서의 활동이 거의 없었다. 특히 외국인을 직접 지도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진제 스님은 폴 니터 교수에게 한국의 간화선을 전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주 좋은 학자를 만났습니다. 저 분은 기독교 신학자이지만 마음은 불교인입니다.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선(禪)을 궁구하고 있습니다. 첫 날 가르쳐준 간화선을 철저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점검을 받으려고 하더군요.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진제 스님은 니터 교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만남을 기뻐했다. 진제 스님의 말을 듣던 폴 니터 교수는 “스님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말하는 목소리 톤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진제 스님과 폴 니터 교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진제 스님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간화선의 세계화에 한발 더 성큼 다가가게 됐다. 특히 진제 스님은 퓨전식 간화선이 아니라 한국식 간화선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터 교수가 다리를 틀고 앉아서하는 좌선을 어려워하고, 화두공안을 드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밝혔지만 스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국 참구법이 제일입니다. 견성을 하고 바른 눈을 갖추려면 한국식으로 세계에 유포해야 합니다. 선문답이나 화두를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 접하다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선지식의 법문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야 됩니다. 업장 소멸은 물론이고 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사실 화두참구를 어려워하고, 좌선을 하는 동안 무릎이 아픈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행자 모두가 겪어왔다. 스님은 한국 선수행의 참맛을 전하는 것이 목표다.

“산승의 목표는 선이 세계화 되고, 바른 참선으로 진리의 눈을 갖춘 이들이 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처님 법이 천추만대에 흘러가지요.”

이번에 이뤄진 종교간 대화는 공식적인 일정 외에도 언론사들의 인터뷰가 끝없이 진행됐다. 모든 대담과 법문을 영어로 번역해 책을 편찬할 계획이다.

“폴 니터 교수가 몇 번을 미국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 동양의 정신세계를 온 세계에 알린다면 투쟁도 다툼도 없는 세계가 될 것이라며 초대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제가 몇 번이고 갈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해운정사에 초대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좋은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니터 교수는 스님을 뉴욕 유니언 신학대에 초대했다. 또 신학생들과 함께 해운정사에서 하안거에 동참하는 등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진제 스님은 남북의 팽팽한 긴장과 종교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폴 니터 교수를 초청했다. 스님은 “세상의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종교지도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은 대단합니다”라며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평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편협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남의 종교를 말살시키고, 지배하라는 가르침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쳤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종교인들은 자주 만나 어리석은 마음을 송두리째 녹이는 교화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행을 서로 연마하고 닦아 행하면 개신교나 불교나 동심일체(同心一體)가 됩니다. 세계는 자연히 안락국토가 되고 투쟁이 없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스님은 그동안 개신교의 봉은사 · 동화사 땅 밟기,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불교 폄훼 동영상 배포,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 등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스님은 “기독교 신자들 스스로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종교를 매몰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스님은 종교의 바른 자세도 강조했다. 스님은 “종교인들이 세(勢)를 확장한다는 것은 우스운 중생심”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수행자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모든 이를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종교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 계발을 통해 모든 인류를 안락국토로 인도해 동거동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허세는 아무 소용도 없거든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고 불교인이 된다고 해도 내실이 없으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은 내면 세계의 수양을 위주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사바세계가 극락세계가 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하지 힘만 과시하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이지요.”

새해 벽두. 진제 스님은 이웃종교인과의 만남을 통해 종교화합의 열쇠를 제시했다.

신묘년 새해 스님은 “2011년에는 종교 · 정치인 등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니 종교간 화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상언, 이나은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진제 스님 수행담

193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난 진제 스님은 20살에 출가했다. 농사를 지으며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했다. 1954년 오촌 당숙을 따라 해인사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만난 조계종 초대 종정 석우 스님은 진제 스님에게 “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셈치고 도를 한번 닦아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했다.

“도를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부가 위대한 부처가 되네.”

진제 스님은 이 말에 감화돼 “위대한 부처가 되는 법이 있다는데 중놀이를 해도 되겠습니까?”라며 부모와 상의한 뒤 행장을 꾸렸다.

스님은 ‘참선을 해서 도를 깨쳐야겠다.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출가생활을 했다. 26살 스님은 성철 스님이 있는 팔공산 파계사를 찾았다. 점검을 받기 위해서였다. 성철 스님은 “나는 몰라, 나는 몰라”하며 응대를 하지 않았다. 스님은 향곡 스님을 찾아갔다.

“일러도 삼십 방이요, 이르지 못해도 삼십 방이다.”

진리의 바른 답을 해도 삼십 방을 맞고 못해도 삼십 방을 맞는다는 것이다. 바로 답을 못하자 “그것도 척 못 나오면서 뭘 알았다고 하느냐?”라며 쫓아냈다.

진제 스님은 오대산으로 들어가 공부를 하다 ‘일생을 이렇게 허송세월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향곡 스님을 다시 찾아가 화두를 내려달라고 했다.

“중국 향엄 선사가 법문하기를 높은 나무에 입으로 가지를 물고 매달려 있을 때 밑에 지나가는 이가 ‘달마 스님이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신 까닭이 무엇인고?’하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려는가?”

진제 스님은 이 화두를 해결하는데 2년 5개월이 걸렸다. 향곡 스님은 다른 화두를 내렸다.

“모든 부처님과 성인이 알지 못하는 심오한 일구를 일러주십시오.”

“99는 81이니라.”

“그것은 모든 부처님과 성인이 다 아신 진리입니다.”

“66은 36이니라.”

진제 스님은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고 큰 절을 하고 법당을 나섰다. 향곡 스님은 그제서 “오늘 법문은 이걸로 끝이다”고 했다.

스님은 1967년 향곡 스님에게 법을 인가받았다. 당시 향곡 스님의 선문답이다.

“부처의 눈과 지혜의 눈(慧眼)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납승(衲僧)의 눈은 어떤 것입니까?”

“사고원래여인주(師姑元來女人做: 나이 많은 비구니는 원래 여자가 한다)”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봤느냐?”

“관(關: 빗장)!”

“옳고, 옳다!”

스님은 향곡 스님에게 인가를 받은 후 1971년 부산 해운대 근처에 해운정사를 창건해 참선 대중화의 길을 열었다. 1994년에는 동화사 금당선원의 조실을 맡아 참선도량의 선풍을 다시 일으켰다.

현대불교신문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한국불교기자협회 공동캠페인
올해는 불기 2555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법을 펴시고 입멸하신지 2555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서기(서력기원)는 기독교 성인의 탄생을 기준으로 년도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불자들이 아무생각 없이 불교행사와 서식에 서기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불기 2555년을 맞은 올해 온 불자가 불기를 사용해 불자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고히 세웁시다.
– 사찰 내부 문서나 서식 포스터 홍보물 현수막에는
예) 2011포교전진대회= 2555년 포교전진대회
– 사찰 밖에서나 해외에서는
예) 2555(2011) 불교행사 협조요청
2555(2011) korea buddhism week (한국불교주간) – 서기를 병기나 부기

※ 좌선, 기도하시는 스님들께서 직접 착용해보고 인정하신 제품입니다.
스님, 현장근무, 군인, 시장상인, 경비, 낚시,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골프 야외활동에 좋음!
기업납품 및 단체주문 환영!!
관절염 예방, 무릎보호 기능성 기모 털내복
좌선·기도 전용 관절보호 털내의 SET
2겹 봉제의 강력한 관절보호 발열 털 기모 내의 세트
관절부분이 2중으로 제작되어 관절에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줍니다.
털원단 2겹 봉재로 원단과 원단사이 공기층이 형성되어 보온층이 뛰어납니다.
입은 듯 안입은 듯 가볍고 따뜻하게
섬유사이의 공기층이 단열효과를 발휘하여 외부 찬공기 유입을 막고 내부에서 발생한 열의 방출을 최소화 시켜드리며 우수한 원단의 탄력과 밀착성으로 겉옷 착용시 활동하기 편리합니다.
최고의 좌선 내의로 효율적
신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밀착이 되어도 착용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탁월한 소재의 원단으로 강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에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무릎관절 부분 2겹 봉제
무릎관절 부분이 2겹으로 봉제되어 좌선시 가장 취약한 무릎 관절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추운 겨울 보다 효율적으로 신체보호 기능을 보여드리는 최고의 좌선 관절 보호 털내의 자신있게 선보여 드립니다.
• 색 상 : 회색
• 구 분 : 남성용, 여성용
• 사이즈 : 상의 – XXL / 하의 – FREE, XXL
• 가 격 : 상 · 하의 각 ₩20,000원
※ SET 구매 시 ₩38,000원
2중 재봉된 무릎부분
모든 부분 안감 융털
구입 및 제품문의 02)2264-7947 / 011-9947-794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7502-04-027453 예금주:김은정

‘맨 땅의 헤딩’으로 국제 포교 기적 일군다

첫 돌 맞은 국제포교사회 부산 울산지부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부산울산경남지부(지회장 박종안, 이하 부울경 지부)가 창립 첫 돌을 맞았다.

부울경 지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홍법사(주지 심산) 대웅보전에서 1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제15기 국제포교사고시 합격생 8명이 부울경 지부에 입회함으로써, 부산, 울산, 경남 불교계는 총 36명의 국제포교사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 10여 년간 국제포교사가 단 6명에 불과했던 것과비교하면 괄목할 성장을 이뤄낸 것.

2009년부터 부산 홍법사에서 조계종 국제포교사고시 대비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수업을 개설하고 강의해온 이두석 씨는 지난 2년의 과도기를 ‘맨 땅의 헤딩’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처음에는 강사 섭외부터 커리큘럼, 교재 등 어느 하나 선례가 없어, 14기 고시 응시생은 시험 종료 즉시 한자리에 모여 출제된 문제를 빠짐없이 기록해 15기 후배들을 위한 기출문제집을 만들 정도로 열정이 뜨거웠다”고 말했다.

한해 전국에서 탄생하는 국제포교사는 30명 내외. 이들 부울경 지부의 국제포교사를 향한 열정이 14기 22명, 15기 8명 합격이라는 기염을 토해냈다. 2번의 시험을 거쳐 체계적인 〈부처님의 일생〉 〈우리나라 불교문화〉 등에 관한 영문 교재도 완성됐다. 하지만 국제포교사에 관한 불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국제포교사의 역할은 크게 ‘법회나 템플스테이 등을 목적으로 국내 사찰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사찰안내 및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과 ‘우리말 경전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로 나뉜다. 최근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포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종안 지회장은 “외국인들은 대체로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많아 직접적인 교리 설명보다는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그 속에 녹아있는 불교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포교하는 편”이라며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2세 등의 정착을 돕는 다양한 형태의 포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입국자 수는 2006년 532만명에서 2007년 542만명, 2008년 589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2009년 기준 12만 5000명으로 나타나 국제포교사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편, 조계종 국제포교사고시 기출문제의 공개 등 정보공유에 관한 안타까움도 토로했다.

박종안 지회장은 “국제포교사고시와 같이 2010년 제15기 합격자를 배출한 일반포교사고시의 경우, 시험 종료 후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기출문제와 해답 등을 찾아볼 수 있어 포교사를 꿈꾸는 이들에게 훌륭한 교재가 되는 반면, 국제포교사고시는 매년 시험은 치러지지만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를 쉽게 알 수 없어 공부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1월 6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2011부산불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최근 천왕문 화재사건 등을 겪은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오른쪽)의 안색이 어둡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가운데)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해 부산 불심의 결집을 발원했다. 박지원 기자

지역 종합 소식

마산 금강노인복지관, 새해소망나누기

금강노인복지관(관장 곽인철)은 구랍 27~31일 2011년 새해소망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복지관 휴게실에서 진행된 행사에 어르신들은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관의 발전을 빌었다. 복지관측은 새해 소망 나누기 행사에 나타난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 2011년 사회교육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기범 기자

부산 최초, 사찰내 문화교육관 개관

부산 선암사(주지 원범)는 1월 8일 선암사 내에 문화교육관을 개관했다. 선암사 문화교육관은 지상 2층에 연건평 1980㎡ 규모로 건립됐다. 1층은 추모, 토론, 명상, 전시 행사가 진행되며 2층은 강의와 법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제7회 부산청소년 자원봉사상 시상식

맑고향기롭게 부산지부는 구랍 28일 지부 사무실에서 제7회 부산청소년 자원봉사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봉사상 대상은 박은비 학생(알로이시오전자기계고 1년)이 수상했다. 마리아수녀회 소년의 집에서 살고 있는 박은비 학생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벽기도 시간동안 재단 내 영아들을 총 276시간 동안 돌봐왔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남해안 최초 지장 나한전 조성

남해안 지역 최초로 16나한과 나한전이 조성됐다. 바다방생도량인 여수 지장대사(주지 정현)는 구랍 26일 2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나한전 낙성식 및 16나한 점안식’을 봉행했다. 법회에는 티벳의 페마쵸겔 린포체 스님의 마정수기와 천도법회가 같이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남원 선원사, 육군부사관학교 자장면 공양

남원 선원사(주지 운천)는 구랍 26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부사관 300명에게 자장면을 공양했다.

운천 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보시의 공덕을 설하고 “목숨을 걸고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군복무중인 장병여러분들이 가장 수승한 보시행을 실천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 교도소 송년법회

전주교도소 불교반은 구랍 31일 재소자 500여 명과 스님, 신도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승천 스님의 법문, 재소자 발원에 이어 아버님께 올리는 편지낭독, 재소자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 성주사 수다라 경전학교 개강

창원 성주사(주지 범전)은 1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3개월간 수다라 경전학교를 운영한다. ‘나는 세상에서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연은 〈마두삔티까 숫타〉 초기 경전을 교재로 한다. 박지원 기자

미타선원, 행복선 어린이템플스테이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 행복선수행학교는 1월 15~16일 합천 해인사에서 어린이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미타선원 행복선수행학교는 그동안 도심 간화선 수행도량으로 큰 호응을 받아왔으며, 이번 행사에는 청소년 간화선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박지원 기자

광주전남 불교NGO 단체 하나로

광주전남불교NGO연대 구랍 27일 발족

광주지역 불교NGO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광주전남불교NGO연대(상임대표 현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장)가 구랍 27일 광주NGO센터에서 출범했다.

광주전남불교NGO연대에는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이순규),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 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지부장 고현),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 해뜨는다문화가족복지센터(센터장 정선), 아시아밝음공동체(대표 도제)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출범식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성오 스님, 지용현 광주전남불교신도회 회장,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재학 신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상임대표 현지 스님은 이날 인사말에서 “8개 단체가 뜻을 모아 결집된 힘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고 대안과 전망을 세워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섭 운영위원장은 “향후 다른 지역 불교NGO단체들과 연대해 신규 NGO창립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포교사단 포교전진대회 개최

구랍 25일 지역포교사 200여 명 한마음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은 구랍 25일 아이리스웨딩홀에서 지역 포교사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교전진대회에서는 해남 대흥사 前 주지 몽산 스님, 광주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 무안 봉불사 주지 지오 스님, 곽영자, 주성심, 허미라 포교사에게 각각 감사패가 전달됐다.

공로상인 총재상은 이종관, 강윤구 포교사가 수상했으며, 중당단장상에는 한귀님, 한경자, 김경영, 이현하 포교사가 수상했다. 또한 2명의 포교사 자녀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 서원복지관 노인 일자리 성금 기탁

전주 서원노인복지관(관장 원행. 금산사 주지)은 구랍 22일 KBS ‘나눔이 사랑입니다’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서원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매점 운영 등을 통해 모은 것이다.

나원자씨(77세, 전주시 효자동)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얻고, 또 수익금으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서원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은 전주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7년간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함께하는 세상 2010 대구 송년 나눔법회

함께하는세상(이사장 지성)은 구랍 26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2010 이웃과 함께하는 송년 나눔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리랑카, 몽골 등 이주민들이 각국의 전통음악 공연을 펼쳤으며, 다문화 가족과 지역민 3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지성 스님은 “지구촌의 일원으로 상부상조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음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함께하는세상 회장 법광 스님(파계사 주지)은 “다문화 가족과 이주노동자, 새터민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2011학년도
藏山佛寺靑靈
청암사승가대학·율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교육원 교과목개편안 반영

청암사율원
- 모집인원 : 0명
- 입방자격 :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2011년 비구니계 수지 예정자.
- 전 형 : 서류전형, 면접(불교교리)
- 서 류 : 입학원서(본 율원 소정양식), 수행이력서, 승려증사본, 기본교육기관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 사진 4X5 2매
- 도 착 일 : 2011년 1월 22일(음력 12월 19일)
- 시 험 일 : 2011년 1월 23일(음력 12월 20일)

청암사승가대학
- 모집인원 : 00명 / 편입생 : 0명
- 서 류 :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승려증사본, 은사스님추천서,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진 3X4 4매
- 준 비 물 : 만의장삼, 필기도구
- 도 착 일 : 2011년 1월 22일(음력 12월 19일) 오후 5시
- 시 험 일 : 2011년 1월 23일(음력 12월 20일) 오전 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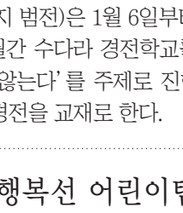
청암사승가대학·율원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의 [승가교육개선안] 인가신청에 관계없이 기존의 교육기관으로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특성있는 전통강원 “청암사”로 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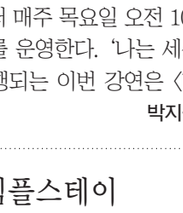
청암사승가대학장·율원장 의정거현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 청암사승가대학·율원 문의 054) 439-9511, 439-9313 / www.chungamsa.org

“일이 잘 안 풀리시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성적은 안 오른다 구요?”
“평소엔 잘 하다가 시험만 보면 꼭 실수가 나오나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시다 구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질 않는다 구요?”
“사업을 벌이는 족족 망한다 구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사주는 아주 좋다는데 왜 그러는지 답답하시다 구요?”


유남 탁대영


창천 백구빈

그렇다면 이름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틀림없이 이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잘못 바꾸면 예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돼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제 한자 중심의 작명, 수리학 중심의 작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름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미성 이름 연구원에서는 세계최초로 30여개 성명학을 집대성한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작명을 합니다.
“이름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름 속에 희망, 꿈, 성공, 건강, 재물, 실패, 좌절, 절망, 부도, 파산,불행 등 모든 운명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의 중요성에 대한
<무료 강연회>
매주 화, 목, 토
현재 불교 TV 광고 중
(10:30, 14:00, 18:00, 23:00)

<상담·문의전화>
1600-0063

자미성 이름 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6, 성지하이츠 3차 빌딩 409호



구랍 31일 대구 동화사 설법전에서 다원주의 신학의 일인자 폴 니터 교수와 금당선원 수좌 스님이 '불교와 기독교의 평차'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당선원장 지환 스님, 폴 니터 교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강주 선지 스님. **사진=박재완 기자**

"기독교, 희망이 전혀 없습니까?"

2010년 마지막 밤 대구 동화사 설법전은 서슬퍼런 선기와 같은 칼바람이 몰아쳤다. 동화사 금당선원 수좌스님들과 폴 니터 교수의 릴레이 토크는 활발발(活潑潑)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부주지 해월 스님, 금당선원장 지환 스님, 강주 선지 스님을 비롯해 수좌스님들과 신도들이 설법전을 가득 메웠다. 대화는 주로 폴 니터 교수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니터 교수도 대화 도중 질문을 하며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리=이상언 기자

#불성과 그리스도성은 같다

지환 스님: 기독교인에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폴 니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한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성 아퀴나스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해는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키듯이 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개인 혹은 공동체로서 경험한 것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불교의 은유법을 들어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저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모든 언어와 표현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손가락과 달을 동일시합니다. 이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불성(佛性)은 그리스도성(性)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한 불성을 통해 그리스도성을 유추해 볼 수도 있죠. 중세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 마이스터 에카르트(Meister Eckhart)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마이스터 에카르트, 쿠자의 니콜라스(Nicholas of Cusa), 십자가의 요한(John of the Cross) 등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타자이자 자아로 표현했습니다.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대승불교에서 공(空)과 색(色)을 다르다고 보는 동시에 공이 색이고 색이 곧 공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해야만

지환 스님: 현재 미국 주류의 기독교가 교수님과 같이 비이원론적인 이해를 하나요?

폴 니터: 현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수 기독교인과 진보 기독교인 간의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보수주의 ·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초청을 받아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을 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완전한 합의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보주의 기독교인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사이의 대화가 종교간 평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스님들이 근본주의 ·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자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환 스님: 대화가 폴 니터 교수님처럼은 어렵겠지요. 하지만 진정성만 있다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월 스님: 개신교와 불교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폴 니터: 우리 기독교인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습니까? 종교갈등이 하나의 사실로 우리에게 존재함을 염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교와 권력이 관계를 맺게 될 때 종교는 권력을 이용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이때 우리 종교만이 유일하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좋은 것이라 여기며 다른 종교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유럽에서 권력의 종교가 돼 왔습니다. 권력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종교이며,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선택받았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오랫동안 가르쳐왔습니다. 하지만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 '다른 종교 안에도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개신교 또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를 통해 가톨릭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종교화의 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근본 · 보수주의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크게 도움 되고 적용할 만한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은 '친구'

수좌스님: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부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소통이 가능합니까?

폴 니터: 〈부처님과 예수님의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은 매우 다르지만, 차이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썼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전통 문화를 체험했고, 유대교의 문화적 전통 안에서 그 언어와 상징을 사용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했습니다.

부처님은 북부 인도에서 힌두 전통 문화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브라만, 아트만, 윤회, 까르마 등 힌두교의 기본 사상을 극복하면서 '무아(無我)' 등을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내적 평화에 이르렀고, 그 내적 평화를 사랑과 자비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선지 스님, 스님은 다른 수행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조건과 인연으로 불교수행을 한다고 보시나요?

선지 스님: 인간의 근본적인 고(苦)의 문제에서 출발해 수행을 합니다.

폴 니터: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과 세계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만약 스님께서 한국에 태어나지 않고 기독교나 유대교 등의 다른 전통 문화권에서 태어났다면 그 전통에 따라서 인격적 경험이 이뤄지고 또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예수님 모두 고통의 문제에서 출발했고 마음 · 의식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다만 마음의 변화를 불교는 '깨달음'으로 기독교는 '회개'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사회참여도 깨달음만큼 중요

폴 니터: 굶주림과 폭력의 근원적 원인인 사회구조와 질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께서는 마음을 먼저 닦기 전에는 사회구조 질서를 바꿀 수 없다고 하시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사회구조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성문 스님: 상당수의 출가 수행자가 치열하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불제자들은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 두 가지 과제의 조화와 선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특히 출가 수행자는 얼마만큼 자신의 깨달음의 바탕위에 중생 구제에 나설 것이가를 두고 상당히 고민합니다. 수레가 양 바퀴로 굴러가듯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선원에서는 2000여 수행자들이 뼈를 깎는 용맹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전통, 정신적 보고(寶庫)로서 정신의 축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으면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봉사 실천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좌 스님: 만약 부처님과 예수님이 완전한 마음의 정화를 이루지 않은 채 사회정화를 위해 일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폴 니터: 그들이 마음 정화를 위해 가든지, 피곤해서 아예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정화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참선이 온전한 기독교인 만든다

능혜 스님: 한국 간화선이 서양에서 제대로 꽃피울 수 있겠습니까?

폴 니터: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신부였는데 일본에서 불교를 공부해 선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선센터를 운영합니다. 미국과 유럽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교회와 회당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해왔고, 소음을 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회당에서 말보다는 침묵을 강조하는 운동을 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향신기도(신학영성운동)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 참선 수행을 오랫동안 한 후 향시기도를 경험했을 때 "아! 이것은 그리스도식 참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묵조선을 해오던 제가 오늘 진제 스님에게 간화선을 처음 배웠습니다. 화두 참구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명상수행법이지만 반드시 배우고 탐구해야할 매우 중요한 수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좌스님: 1980년대부터 명상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내적 평화, 마음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명상을 하십니까?

폴 니터: 불교 명상 수행은 제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독교의 경험과 믿음에서 기독교인이 믿는 영, 성령, 자비의 에너지가 그리스도안에서 경험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스님안의 불성을 깨닫고 실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제 안의 그리스도성을 깨닫고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 (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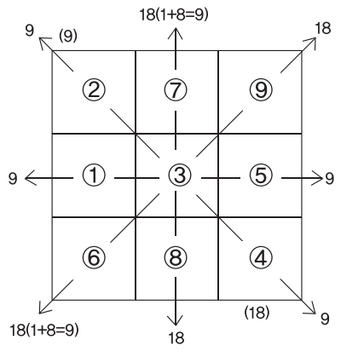
·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현)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목요일 : 저녁 7시 – 9시
금 · 토요일 : 오후 1시 – 5시
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등록비 (1,000,000원) 승려증소자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구단구궁 원리도]

***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3일 – 부교재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구단구궁을 수료하신분들께 감사드리오며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일정표에 맞추어서 재수강 하시기 바랍니다.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1년]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후 2시 – 5시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운 종사영만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월,수요일 :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수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목,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일요일 : 오후 2시 – 6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목, 금, 토 : 오후 2시 – 5시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원증

15년전통 부산불교전법대학 · 대학원 – 구단구궁연구회 051)467–4665 / 010–7725–1024

종교간 갈등해소에는 대화·대화·대화 뿐

폴 니터 교수 초청 특별 토론회

2011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종교 간에도 새로운 평화의 빛이 스며들었다. 불교와 기독교의 대표 성직자 신학자들이 모여 12월 5일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금차선원에서 '가슴을 열어 빛을 보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종교 분야의 세계적 석학 폴 니터(뉴욕 유니언신학대 교수)가 불교수행자인 부인 캐서린 코넬 여사와 함께 한국을 방한해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불교신문사 사장 수불 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국제선센터 금차선원장 효담 스님, 길희성 서강대 명예교수, 이정배 감리교신학대 교수, 김경재 삭개오작은교회 목사, 정현경 뉴욕 유니언신학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400여 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3시간 가량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불교와 기독교 대표 성직자와 신학자이 모여 종교간의 평화에 대해 열띤 대화의 장을 펼쳤다. 이날 폴 니터 교수는 "종교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 폭력 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종교갈등 99%가 개신교 책임

폴 니터 교수는 이번 한국 방문 일정을 통해 수좌스님들과 불자들의 뜨거운 수행 열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폴 니터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게 된 '사찰 땅 밟기' 등의 불교 폄훼 논란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니터 교수는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종교 간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폴 니터 교수가 진제 스님과의 만남에 기초해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는 '왜 일부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폄훼하는 행동들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이유와 대안 ▷두 번째는 부처님과 예수님이 이방이 될 것인가 친구가 될 것인가 ▷세 번째는 고통에 가득차 있는 세계에 불자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협력해 고통을 줄여나갈 것인가 ▷네 번째는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간화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됐다.

최근 기독교인들이 서울 봉은사, 대구 동화사 등 '땅 밟기' 사건을 두고 폴 니터 교수는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폴 니터 교수는 "불교이던 기독교이던 간에 자신의 종교 우월성을 강조하면 폭력과 연결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폭력적인 사건들이 등장한다. 이는 자신의 종교가 우월하고 참된 종교라 믿는 것에서 출발된 사건들이었다.

이에 대해 김경재 목사는 "한국 종교사에서 불미스러운 종교 갈등 사건의 99%가 기독교 책임, 불교가 1%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3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다. 김 목사는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바탕이나 내용의 이해 없이 글자 그대로 한글로 번역돼, 성경에는 이웃종교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구절들이 많다"며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성경을 존중하고, 문자적으로만 불교를 적대시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번영과 경쟁의 가치관에 매몰된 종교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이다.

김 목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경쟁 보다는 강하고 위대한 것이 승리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교회를 더 키우기 위해 다른 종교를 폄훼하고 있다"며 "종교적 권력, 명예욕 등을 앞세워 큰 종교왕국을 이뤄야 겠다는 탐욕이 강할수록 불교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는 불교의 역사이다. 개신교는 해방의 종교로, 자유의 종교로 전파됐다.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지식층이 아니었다. 반면 한국에서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는 과거 호국불교의 미명아래 귀족과 재벌을 중심으로 불사가 이뤄져 왔다.

김 목사는 "불교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정법을 알려주지 않았고, 불교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하지 않았다"며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폄훼하는 것은 불교가 뿌려놓은 '업(業)'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배 교수는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 이유로, 기독교인이 정치적이면 안 된다는 사실과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다.

이 교수는 "서구화가 기독교와 함께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한국 문화를 타자화 · 미신화 시켰다"며 "한복 입은 사람들이 타자화 됐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주인화가 돼버렸다. 이런 사회에서 자연스레 불교의 정체성이 흐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독교의 '사찰 땅 밟기' 등에 관한 문제들이 오늘날 불거지는 이유로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정권 장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개인들의 오만과 무례한 행동들이 일어났다"며 "기독교인들로 주축이 된 정권의 무례함이 이번 대화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 비판했다.

미산 스님은 "김경재 목사가 1%가 불교 문제라 지적한데 대해, 100%의 불교잘못, 0%의 기독교 잘못이라 말하고 싶다"며 "왜 우리가 100%의 잘못인가에 대해 역사, 사상, 사회, 문화적으로 면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와 예수 다르지 않아

수불 스님은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란 말의 구조는 모양이 있지만, 부처님은 둘이 아닌 공(空)이라 말한다"며 "이런 입장의 차이를 대화를 통해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그동안은 서로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인류의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줘야할 종교인으로서,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길희성 교수는 "불상과 탱화 등은 사실 상(相)이다. 불교는 무상(無相)을 알아야 한다"며 "부처와 예수는 천하의 자유인이었다. 세상 가치와 권위, 종교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길 교수는 "이들의 자유는 곧 죽음이었으며, 죽음은 참 생명"이라며 "우리는 두 종교 사이에서 '사즉생(死即生)'을 발견할 수 있다. 자유를 바탕으로 사랑과 자비를 이룬 부처와 예수는 불교의 공(空)과 기독교의 사랑을 말한다. 이것은 둘이 아니며, 공처럼 모두를 포용하고 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산 스님은 "하버드대에서 공부할 당시 어느 교회 창문에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있다'라는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불교와 기독교는 너무 쉽게 통합할 수 있다. 〈도마복음〉에는 종교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많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평화가 사회 평화 이끈다

폴 니터 교수는 "불자와 기독교인 모두가 개인과 사회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니터 교수는 "깨달은 개인이 우선 변해야 한다. 틱낫한 스님이 말했듯,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평화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산 스님은 "불교의 핵심 교리는 사회 구원, 자비실천, 지혜의 완성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 깨달음만 우선으로 하고, 중생구제는 하위 개념으로 본다"며 "깨달은 만큼 자비심이 나와야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강조했다.

정현경 교수는 "평화는 소통과 대화에서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911테러 사건이 타자화가 악마화가 된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테러나 왕따와 같은 행위는 다른 사람을 악마화 시키는 행위"라며 "그전에 상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갈등의 해답은 간화선에 있다

수불 스님은 "지구촌을 더 나아가 평화를 말할 필요조차 없는 세계가 있다고 본다"며 "이는 곧 깨달음 자체이며, 이런 내면의 문제와 자비는 간화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폴 니터 교수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에게 'Who was I?(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받았다. 이 화두를 통해 깨닫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간화선 경험을 짧게 말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간화선에는 중요한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을 만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답했다.

니터 교수는 "명상하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하고 싶다"며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거룩한 복음, 거룩한 교회에 귀의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배 교수는 "한국은 OECD국가 중 욕망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며 "이는 불교, 기독교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져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경 교수는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는 법이다. 평화는 진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산 스님은 "앞으로도 종교 간에 공통 주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구체적이고, 역동적이고, 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리=이은정 · 천진영 기자
사진=이나은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신입, 편입(학점은행제)생 모집요강

Ⅰ. 주의사항

1. 불교전문교육기관인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 학점은행제 실시교육기관이다.
2. 제출 및 전형료는 일체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3. 부정및 불법행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및 입학을 취소한다.
4. 합격통지 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5. 입학원서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우편으로 입학원서 접수시 전형료를 소정의 계좌로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 된다.
6.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 전형 절차에 따른다.

Ⅱ. 제출서류

학 과	제 출 서 류	제 출 방 법
신편입 공 통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본 1부 4.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5. 2학년 편입 경우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1부(단 영산재보존회에서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6, 반명함판 사진 4부 7.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1. 본교 교학처 및 우편접수 2. 우편접수시 인터넷에서 교부한 원서에 사진 부착후 여타의 서류와 함께 본교 교학처로 등기발송 3. **접수처 : (우)120-150 서울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학 행정실**

Ⅲ. 응시자격및 제출서류

1. **응시자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불교학, 음악, 무용)출신자

2. 신편입 전체공통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시~7시	조인각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7시	이기봉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7시	마일운	30
불교작법(무용)	나비춤/바라	수	오후 1시~7시	김현수	30
불교의식 (이론Ⅰ)	범불교의식	화	오후 1시~4시	심만춘	30
불교교양 (이론Ⅱ)	불교교양	화	오후 4시~7시	한활안	30
불교의식실기 (실기)	시련 대령 관욕	월	오후 1시~7시	이기봉	30

* 단 불교의식 실기과정은 상주권공 수료자 이상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②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③ 주민등본 1부 ④반명함판 사진 4부 ⑤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사본 1부(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⑥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3. 학점은행제

학점 은행제 모집 (2011학년도)							
2010학년도 1학기 과정				2010학년도 2학기 과정			
개설과목	교 수	요 일	인 원	과 목	교수	요일	인원
범패의전승계보	심만춘	화	30	범패실습Ⅱ	조인각	월	30
사물실습	이기봉	월	30	영산재의원리와방법	심만춘	화	30
영산재행위전승	한활안	화	30	불교학개론	한활안	화	30
				화청과희심곡별곡	이기봉	월	30

· 지원자격 : ① 고등학력소지이상자. (전문대 과정 4년제 대학과정 중퇴자) ② 타기관 학점은행제 수강자. ③ 타 전공학위를 원하는 자.
· 제출서류 : ① 신편입공통서류 참조

4. 편입과정
· 지원자격 : 동방불교대학 범패학과 졸업자
· 제출서류 : ①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 또는 옥천범음대학 상주권공 수료자에 한함) ② 신편입공통서류 참조

Ⅳ. 원서전형일정

① 원서교부 : **2011년 1월 3일(월) ~ 2월 11일(금)**
② 등록기간 : **2011년 2월 21일(월) ~ 2월 25일(금)**
③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11년 3월 7일 오후 1시**
④ 추가모집 : 출석일수 1/3 미만시기
⑤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원
⑥ 납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012501-04-204671 / 예금주 이수길
⑦ 유의사항 : 납부기간 내에 미납시 불합격 처리 됨. 실명입금원칙으로 하며, 타인 명 입금시 반드시 전화요망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Ⅴ. 합격자 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Ⅵ. 특 전

① 재학생중 4년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함.
②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 품수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 학중 출가자는 제외.
③ 4년 과정을 수료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④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선발을 부여하고 각종장학금 혜택을 부여 한다.

Ⅶ. 입학문의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평일 : 오전 9시 ~ 오후 5시(토 · 일은 휴무)

옥 천 범 음 대 학 학장 이기봉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갈등 생기면 '나'를 버려라. 싸움은 없다

기독교 신학자 니터·티베트 불자 코넬 부부

한국의 불교-기독교간의 종교 갈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된 상태다. 이러한 종교집단간의 갈등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숱하게 볼 수 있다.

시어머니의 종교는 불교인데 며느리의 종교가 기독교여서 제사문제로 갈등을 겪는다던가, 무교인 남편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당으로 데리고 가기위해 애쓰는 아내를 종종 볼 수 있다.

폴 니터 교수 부부의 종교도 다르다. 서로 갈등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서로에게 도반이자 서로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

폴 니터 교수는 가톨릭, 부인인 캐서린 코넬은 티베트 불교신자다.

다원주의 신학자 니터 교수와 불자인 코넬 여사의 결혼생활은 보기 드문 불자-기독교인 가정의 한 예로 세계 지식인과 종교인들에게 주목 받아왔다.

코넬 여사는 일찍이 불교로 개종한 후 오랫동안 불자의 삶을 살아왔다. 코넬 여사는 대학시절 명상 수행을 접하고 1970년대 후반에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코넬 여사는 "1991년 인도로 여행을 갔는데 보드가야의 보리수 나무 밑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당시에는 불교에 대해 잘 몰랐지만 1992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난 후 기독교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느꼈다"며 "가톨릭 신부였던 친구가 북미권에서 유명한 비구니 스님인 페마 초드롬(Pema Chodron)의 법문테이프를 건네줬다.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고 매일 수행하면서 기독교가 치유하지 못한 부분을 불교를 통해 배웠다"고 말했다.

2010년 12월 31일~2011년 1월 6일 7일간의 빡빡한 한국일정을 마친 터라 지치고 짜증났을 법도 한데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눈빛은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종교가 다른 부부의 생활은 어떠할까. 니터 교수는 "매주 일요일 뉴욕에 있는 가톨릭 성당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캐시(코넬 여사의 애칭)도 종종 미사에 참여해 성찬의 전례의식(밀떡과 포도주를 받는 의식)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폴 니터 교수 부부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30분 정도 명상을 함께 한다. 식사를 하기 전에는 항상 입정에 든다.

니터 교수 부부는 니터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매월 일요일 저녁마다 명상수행 모임을 이끌고 있다. 코넬 여사는 자비명상지도자로 사람을 모집하고 명상수행을 지도한다. 니터 교수 부부는 불교 수행이 부부간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니터 교수는 "가끔 내안에서 분노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불교의 '알아차림(awareness)'이 도움을 준다. 알아차리는 순간 화는 사라진다. 그 효과는 굉장하다"고 말했다.

코넬 여사는 "가끔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종일 명상을 한다. 해변을 걸으면서, 집에서도 명상을 한다. 이틀 정도 그렇게 집중명상을 하고 나면 잡생각, 걱정 등은 사라지고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명상의 효과는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첫눈에 반해 도반의 삶 결심한 지 28주년
매일 30분 명상수행이 부부갈등 막아

한국에서 28번째 결혼기념일(12월 31일)을 맞이한 두 부부는 1980년 친구의 소개로 저녁 식사자리에서 만났다. 성직자였던 니터 교수가 환속한지 5년 뒤였다.

둘은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사회 문제와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 던 저녁식사 모임에서 니터 교수는 코넬 여사의 식성을 보고 '이 여자다' 싶었단다.

니터 교수는 "내가 만났던 여자 중에 샌드위치에 앤초비(유럽식 멸치젓)를 넣어 먹는 여자는 캐시가 처음이었다. 이것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넬 여사는 "폴을 만나기 전에 이혼의 아픔이 있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실수를 겪고 싶지 않았는데 폴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강렬한 끌림 같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니터 교수는 종교간 대화의 전문인이다. 그의 전공은 부부사이에서도 적용되고 있었다.

니터 교수는 "종교간 대화와 같은 특정한 주제를 나누는 대화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나의 분별과 생각을 내려놓고 경청하는 자세로 상대와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넬 여사는 "나를 방어하는 자세를 버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한다. 매일 둘만의 공간에서 30~45분가량 하루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며 "이렇게만 해도 부부사이의 갈등은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니터 교수 부부는 일반인들의 종교간 소통을 위해 조언했다.

니터 교수는 "개인적 · 신학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그들의 관점을 존중해줘야 한다. 내가 캐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의 종교도 존중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학적 측면에서 생각할 때 신(神)은 너무 커서 한 종교 안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방편으로 신이 나타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코넬 여사는 이웃 종교인들의 부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기를 강조했다. 그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류를 하는 것은 서로를 배우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각 종교가 갖고 있는 특징에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오로지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 기독교의 경우 외부인을 환영하고 가스펠을 부르고 누군가를 도울 때는 건설적으로 함께 일한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 불교를 접한 경험에 대해 니터 교수는 "책과 학문적 대화들로만 불교를 공부해온 나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불교가 살아있음을, 생동감있는 한국을 느꼈다. 얼마나 진지하게 수행하는지 스님과 재가자들을 통해 배웠다"며 "미국 기독교인들은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데 비해 불교의 수행은 매일 일상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니터 교수는 한국의 간화선을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 명상과 접목해 보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불교는 일본불교, 미국의 젠센터, 티베트 센터 등을 통해서 접했지만 화두 수행은 매우 흥미롭고 미스테리하다. 간화선 수행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국으로 돌아가 진제 스님이 주신 화두를 평생 붙들고 수행하면서 미국에서 자비명상을 지도하는 존 매크라스키와 수행법을 접목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니터 교수는 국내에서 발생한 불교-기독교간의 갈등은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신이 불자여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기 이전에 당신 그 자체가 중요하다. 긴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각자의 테두리를 벗어던지고 강한 결속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럴 때 서로에 대한 분별은 사라지는 것이다"며 "남북문제와 같은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서로를 결속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위기가 기회다"고 말했다.



결혼 28주년을 맞은 니터 · 코넬 부부. 두 부부는 매일 아침 30분 명상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들은 불교의 '알아차림'과 분별심을 버리고 경청하는 자세가 부부간 갈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 폴 니터(Paul F. Knitter · 71)는 미국 유니온 신학교 교수이면서 종교신학, 종교대화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학문적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종교간 대화에도 깊이 참여해 온 학자다.

그는 가톨릭 사제에서 환속한 비교종교학자로 가톨릭 모태신앙인으로 사제 수업을 받아 성직자가 됐으나 30세 무렵 환속했다.

달라이 라마, 데스몬드 투투 등과 함께 평화평의회국제위원회의 이사로 활동해 왔고, 무슬림, 힌두, 불교인들과의 심층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특히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 니터 교수는 오랫동안 불교를 연구하며 명상수행을 해왔으며 몇 년 전에는 티베트 불교 전통으로부터 공식적 수계도 받아 공식적으로 불자-그리스도인(Buddhist-Christian)이 됐다.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은 그의 법명은 연꽃 치유자(Lotus Healer)다.

 # 캐서린 코넬(Catherine Mary Cornell · 56)여사는 제이비어 대학에서 인문학 석사학위(1995)를 받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사회사업 석사학위(1998)를 받았다. 그 후 줄곧 임상심리복지사로서 가정폭력, 성적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희생자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활동을 해왔다. 불교 수행자인 코넬 여사는 불교의 명상 수행을 그의 사회운동과 치유활동에 통합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의 스승인 라마 존 매크란스키가 창립한 '활동적 자비를 위한 재단'의 공식 교사중 하나로 뉴욕에서 일반인, 사회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자비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글=이나은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현지사 소개 그 열세번째 주제 - 천 도 재 -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의 미증유한 천도대재

윤회생사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선 조상님께 효를 다하라

사후세계를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면 천도는 불가능

사람의 몸 안에는 영혼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종교를 불문하고 영혼체가 몸을 빠져나와 중음계에서 떠돌거나 명부에서 심판을 받고 육도(지옥 · 아귀 · 축생 · 인간 · 수라 · 하늘) 중 한곳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천도(薦度)란 영가(영혼체)가 지금 있는 곳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보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천도재들은 지옥과 하늘세계를 전혀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영혼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천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도는 인과법에 근거한 것. 어떠한 인(因)으로 천도되는가?

한사람의 '평생의 삶이 반영'되어 다음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집전자의 부처님께 대한 발원으론 무주고혼, 지옥, 축생의 과보를 받은 영가가 하늘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천도가 되기 위해서는 삼계의 법왕이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재여야 합니다. 지옥을 관장하는 지장보살님(시방여래불)과 그 휘하 열시왕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그 분들을 뵙고 결정을 이끌어낼 대성자의 법력과 발원이 필요합니다. 그 대성자란 견성한 성자도 아니며 보살도 아닌 다름 아닌 불과를 증한 붓다여야만 합니다.

수배가 천도의 시작, 현지사 천도재의 실체를 밝힌다

현지사의 천도재는, 천도재가 접수되면 큰스님께서 삼매에 들어 직접 영가들을 수배(데리고 오는 것)하시며 경우에 따라 부처님과 여러 성중님들께서도 함께 작업하십니다. 물속이나 땅속에 숨은 영가들은 문수보살님께서 무량억종광으로 수배하시고, 지상이나 허공은 지장보살님께서 수배를 하십니다. 큰 신통을 갖춘 영악한 영가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직접 수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가는 지장보살님께서 열시왕에게 하명하시고 다시 옥사쪽으로 하달되면 팔만사천 지옥 중에서 인연영가를 찾아 지장궁 별궁으로 압송하게 됩니다. 축생계의 영가는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 그 축생을 찾아 영혼체를 빼내어 데려오게 됩니다.

영가가 복을 쌓도록 해주어야 한다

부부 각각의 친 · 외가쪽 40여명의 조상님들과 부처님께서 그 집안 내력을 보아 천도의 대상에 포함시켜 주신 3~40명의 윗대 혹은 방계 무주고혼 조상영가님을 포함하여 80여명 정도의 영가들을 집전장소로 구인합니다. 이때 이들에게 복을 쌓게 하여 보다 좋은 환경에 날 수 있는 원인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최고의 공덕으로서 조상님들의 이름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주게 됩니다. 이 공양은 다른 천도재들과 달리 화신의 부처님이 아닌 보신의 부처님께 대한 공양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신의 부처님께 대한 공양은 붓다회상이 아니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도 후 집전장소의 청정성 회복은 수행도량의 필수항목

천도 후 영가들의 탁한 기운은 집전 도량을 오염시킵니다. 실제 능력 없는 천도로 인해 이미 많은 사찰들이 영가의 기운으로 구정물처럼 혼탁해졌고 심지어 천도되지 않은 영가들이 그곳에 머물러 귀신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수행도량이 아닙니다. 현지사에서는 천도 후 영가의 탁한 기운을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정화하시여 오히려 천도재 이전보다 맑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현지궁 현지사는 보신의 부처님들께서 상주하시는 곳이기에 모든 면에서 항상 청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위자의 업장소멸과 거주지의 정화

천도재 전후로 불보살님이나 많은 성중님들께서 복위자(재를 지내는 사람)의 실제 거주지를 찾아가 영적인 청소를 해주십니다. 또한 복위자는 효를 행한 공덕으로 업장정화 내지 소멸이라는 크나큰 상을 받게 됩니다. 업장이 정화되면 복위자는 앞으로 있을 나쁜 과보가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그 복의 크기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 원만한 성취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현지사 천도재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

천도재는 고통 받고 있는 부모 조상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효행입니다. 나의 부모님, 조상님들께 살아계실 때 미처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지옥, 아귀, 축생 영가와 무주고혼의 상상도 못할 고통을 알게 된다면 누구도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영혼을 구해주는 천도재야 말로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 조상님의 크신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겁에 한번 있을 붓다회상의 천도재의 진정한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 부디 한명의 악도 중생이라도 더 건질 수 있기를 우리 현지사에서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천도재를 들어 보셨습니까?

세계 유일 붓다회상 현지궁 현지사 천도재

1. 천도대상인 조상 영가 모두의 현재 있는 곳을 알려준다
2. 무주고혼, 지옥, 축생의 조상 영가의 완벽한 수배 (적어낸 조상님 이외 본인이 알지 못하는 3~40명의 윗대 무주고혼 조상님을 추가 수배)
3. 보신부처님께 대한 공양이라는 대공덕의 자리를 마련
4. 불보살님과 성중님을 통한 복위자 주소 가택의 영적 청소
5. 부처님에 의한 업장정화와 소멸, 공덕만큼의 소원성취
6. 천도후 도량의 영적 청소
7. 조상님들은 현위치에서 한단계 좋은 곳으로 천도 (4번이면 거의 모든 조상님들이 하늘로 천도됨)
8. 천도 결과 확인 가능

《 신간안내 》

■ 21세기 대안(代案) 불교사상 '위대한 영산불교'
선불교, 위빠사나, 티벳불교 사상과 비교 논평, 수행론(수행방법), 수행목표(구원관), 불신관, 영혼체론, 생사관을 중심으로 비교 평가한다.

■ 새천수경 (80면 | 5,000원)
현지사 108 대참회문 수록.정법불교에 입각해 관음신행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비롯한 기존 천수경의 오류를 바로잡는다.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력 8일, 23일 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분원 042)525-5325, 5345 / 부산분원 051)554-5150

부석사 부처님이 법당 왼편에 앉은 까닭은?

소백산 부석사

부석사는 영주의 소백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석사는 신라의 불교 도입 후 화엄사상에 근거하여 제대로 만든 사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석사 창건후 불국사와 화엄사 등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찰이 점하는 신라 불교에서의 상징성은 대단합니다. 부석사는 정토신앙(淨土信仰)의 체계에 의거하여 아미타불을 주불로 삼고, 극락정토 구품의 교리에 따라 전체 영역을 9개의 석단으로 구성하고 주불 법당에 극락정토의 교주인 무량수불을 모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탑을 세우지 않는가를 물으니 의상대사는 "무량수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열반하는 일이 없으며 지금도 시방에 항상 계시므로 탑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부석(浮石)이란 뜬 돌을 말합니다. 부석사라고 이름이 지어진 배경을 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선묘낭자의 인연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의상 대사는 신라 사람으로 서기 625년 당시 귀족의 가정에 태어나 귀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조사는 서울 황복사에서 출가하여 입산수도를 했는데, 수도한 지 8년 만에 큰 뜻을 품고 원효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당나라로 가던 중 바위굴에서 해골물을 마셨던 원효 대사는 불교의 진수를 스스로 깨닫고서 중간에 귀국했고 의상 대사는 홀로 당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당나라 양주에 이르러서 병을 얻게 되어 양주성의 수위장인 유지인의 집에서 병을 치료하던 중 그의 딸 선묘(善妙)라는 처녀가 있어 의상 대사에게 연모의 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선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도로 대하여 제자로 삼았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정성으로 몸이 완쾌된 대사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묘가 조사에게 청하기를 "귀국하실 때 이곳을 지나시면 꼭 소녀의 집에 다시 한번 들려 주시고 가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대사는 이러한 부탁을 쾌히 승락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의상 대사는 당나라 서울 장안 남쪽에 있는 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 대사의 제자가 됐으며 화엄사상의 진수를 축약한 화엄법계도를 완성하였습니다. 대사는 해동화엄의 초조로 칭송될 정도로 공부가 깊었는데 당이 30만 대군으로 신라를 침범하려는 정보를 듣고서 급히 귀국 길에 올랐습니다. 대사는 돌아오는 길에 양주 선묘의 집에 가서 배를 구하고자 도움을 청했는데 바닷길이 험해 귀국길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묘는 "이 몸이 용이 되어 조사를 받들어 무사히 귀국하도록 해 주옵소서"하며 바닷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선묘는 용이 되었고 대사의 멀고 험한 바닷길을 호위하여 무사히 귀국하게 하였습니다. 그후 문무왕으로부터 화엄사상을 펼칠 사찰 건립의 명을 받아 이곳 영주시 봉황산에 터를 잡으려 하자 먼저 자리를 잡았던 이교도의 무리 500여 명이 점령하고 있으므로 선묘가 법력으로 큰 바위를 공중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였더니 무리들이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이후 대사는 비로소 이 자리에 사찰을 건립하게 되었다고 〈삼국유사〉에 전합니다. 이러한 유래에 따라 바위가 공중에 떠올랐다고 하여 부석사(浮石寺)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부석사의 가람 배치는 3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마다 다시 3단의 석축으로 나뉘어 모두 9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왕문이 있는 곳부터 종무소가 있는 곳까지가 하단이며 모두 3개의 석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무소에서 종루가 있는 곳까지 중단이며 다시 3개의 석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루부터 안양루까지 상단이며 여기도 역시 3개 석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모두 9품(九品)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를 아미타여래 9품이라고 하는데, 서방 극락정토에 태어나고자 하는 중생을 행업의 정도에 따라 상품(上品)·중품(中品)·하품(下品)의 3품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상생(上生)·중생(中生)·하생(下生)의 3생으로 세분하여 ① 상품상생 ② 상품중생 ③ 상품하생 ④ 중품상생 ⑤ 중품중생 ⑥ 중품하생 ⑦ 하품상생 ⑧ 하품중생 ⑨ 하품하생의 9단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석사는 아미타불 극락세계의 구품단계를 각각 상징하는 모습으로 석축을 구성하고 수행단계가 높아지면 중생계에서 불세계에 도달하는 경험을 체험하게 해놓은 곳이라 할 것입니다. 〈화엄경〉의 교주는 비로자나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화엄사상을 배경으로 조성된 부석사가 극락세계의 주불인 아미타불을 봉안하고 구품세계를 펼쳐 놓은 것은 조금 의아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화엄사상을 중생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 마련한 방편에서 채택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효 대사의 화엄사상이 외적으로 나타난 신앙형태가 아미타불이었다는 점에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완성도와 아름다움에서 한국 목조건축물의 진수로 꼽힌다.

안양루 걸음마다 무량수전 자태
뒤돌면 장엄한 소백산 기운 가득

부석사 최고의 절경은 안양문 통과 후 뒤돌아 봤을 때 한 눈에 보이는 소백산의 장엄한 줄기입니다. 숨이 막히며 외마디 감탄사 외에는 어떠한 언어라도 표현하기 어려운 자연미의 최극치가 있는 곳입니다. 이를 다른 이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극락 세계이며 화엄의 세계입니다.

안양문 기둥과 지붕사이에 보면 지붕을 받치는 공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포와 공포사이가 흡사 부처님이 좌정한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두워지면 석등의 불빛이 이곳을 비치게 되어 아래에서 보면 정확하게 금색신의 부처님이 좌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오래된 고(古)건축물이라는 문화재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배흘림 기둥에 주기둥 위에만 공포라는 부재를 올려서 이렇게 큰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완성도와 아름다움이 최고인 한국 목조건축물의 진수로 보여집니다. 무량수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인데 기둥 사이의 주칸 거리가 크고 기둥 높이도 높아 건물이 당당하고 안정감 있게 지어졌습니다. 기둥은 모두가 가운데 볼록한 배흘림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둥의 배흘림은 멀리서 볼 때 기둥의 가운데가 오목하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교정하기 위해서 조성하는데 이는 건축물의 안정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취하는 수법입니다. 무량수전은 주심포양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맞배지붕이 아니라 다포계열에서 보이는 팔작지붕 형식을 취하고 있어 독특합니다. 주심포와 다포계는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효과에 차이가 있는데 주심포양식으로 팔작지붕을 취하게 되면 상부의 무게 하중이 심해져 안정감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인지 부석사 무량수전은 지붕의 하중을 분산하기위해 추녀아래에 보조기둥역할을 하는 활주를 사용하여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무량수전 출입문의 특징은 밖으로 문을 열게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불전 내의 부처님이 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밀고 들어가는 출입문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찰들이 공간 활용을 위해 밖으로 여는 문으로 조성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특징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오래된 건축양식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른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수덕사 대웅전은 출입문이 밀고 들어가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궁전은 밀고 들어가고, 아미타불의 궁전은 부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서방의 극락국토를 주재하는 부처님입니다. 무량의 수명을 가졌으므로 열반하지 않으며 현재에도 시방에 항상 상주해 있는 부처님입니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나 지장보살로 보처불을 협시하는 방식과 달리 좌우 보처없이 본존불 일불만 조성되어 있는 것도 화엄사상의 배경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앞에서 보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어 주불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량수불은 서방에 계시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화려한 광배를 뒤에 갖추고 거대한 금색신을 갖춘 소조아미타불의 높이는 278cm, 광배높이 380cm 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살짝 들어 촉지수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촉지수인은 석가모니부처님을 표현하는 수인이지만 불상을 모신 장소가 서방 극락정토를 다스리는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이라는 사실과, 부석사에 있는 원융국사탑비 비문에 아미타불을 만들어 모셨다는 기록을 근거로 이 불상은 아미타불임을 확인합니다. 군위의 제2석굴암도 본존불이 촉지수인을 하고 있지만 좌우보처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로 부족하고 아미타불임을 표현하듯이, 촉지수인을 취한 아미타불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불은 앉아 있는 좌불로서 자세는 오른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 있어 마귀를 항복받는 항마좌이며 오른쪽 어깨가 들어난 법의로 우견편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글 · 사진 한지유 mytra@naver.com
한국생활문화연구소 소장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문화재 강사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 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히앉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림건강 (주)은 철,칼슘,마그네슘, 셀레늄,등이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획득 제10-096707 호 발명의 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



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 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기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기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목 지음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⑲

법어(法語)와 그 종류

상당법어 불참하면 벌칙 받는다



방장의 법어는 수행의 한 축이다. 사진은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이 2007년 동안거 해제 법회에서 법문하는 모습.

선종사원(총림)에서 주지(방장)의 법어는 매우 중요하다. 좌선과 함께 수행의 두 축으로서 참선자는 법어를 통해 지혜와 안목을 기르며 방법과 방향을 갈피 잡아 나간다. 그러므로 주지의 법어가 올바른 견해(見解) 즉 정견(正見)과 정법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인재가 배출되기도 하고 한낱 망상인이 나오기도 한다.

선원에서 수행자를 지도 교육하는 하는 시스템은 이와 같이 두 가지이다. 곧 좌선과 설법(법어)으로서 좌선을 통해서는 선정(禪定)을 축적해 나가고 설법(법문)을 통해서는 지혜를 갖춰 나간다. 이것을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 한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말인데, 그래야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교육시스템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림에서 설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은 설법 장소인 법당(法堂)이 불상을 모신 불전(대웅전)보다 훨씬 더 크다는 데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것도 송대에 와서일 뿐, 그 이전에는 불전 자체를 두지 않았다. 큰 당우는 오로지 선당과 법당만 있었다. 기능적으로 깨달은 부처를 만드는 곳은 좌선당과 법당이고 불전(대웅전)은 조석으로 예불하는데 그쳤기 때문이었다.

선원총림에서 행해진 법어의 종류를 조사해 보면, 상당법어(上堂法語) · 조참(朝參, 早參) · 만참(晩參) · 소참(小參) · 보설(普說) 등 다섯 가지인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격조 있는 법문이 상당법어이다. 상당법어를 비롯한 모든 법어는 주지(방장)가 해야 할 고유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 출타 중이거나 건강상 이유, 혹은 궐위 상태가 아니라면 빠트릴 수 없다.

법어는 방장·주지 고위 책무

출타 등 외에는 빠트려선 안돼

상당법어(上堂法語)란 '법당(堂)에 올라가서(上) 행하는 법어(法語)'라는 뜻이다. 선원의 모든 대중이 참예(參詣)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참법문(大參法門)이라고도 한다.

1000년 전 당송시대 총림에서 정기적으로 상당법어를 하는 날은 매달 1일 · 5일 · 10일 · 15일 · 20일 · 25일로서 한 달에 여섯 번 있었다. 5일 마다 한번씩 있었다고 하여 '5참상당(五參上堂)'이라고도 한다. 5일에 한번 씩 설법했던 것은 당시 정부 조정(朝廷)에서 5품 이상의 관리가 5일마다 한번 씩 조회를 열어 천자를 배알하고 교지(敎旨)를 받든 것을 본딴 것이다.

5참상당은 남송 이후에는 점점 횟수가 줄어들어서 포살일인 초하루(1일)와 보름(15일) 두 차례만 행해졌는데, 후대로 갈수록 그만치 스승이나 제자 모두의 근기가 약해졌음을 말해준다. 오늘날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겨우 결제 · 해제 때만 행한다. 조실이나 방장이 없는 선원은 그마저 생략한다고 한다.

상당법어는 아침 공양 후(粥罷)에 한다. 상당법어가 있는 날 대중들은 공양 후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승당에 앉아 있는데, 곧이어 고루(鼓樓)에서 북(鼓) 소리가 나면 수석 선승인 수좌는 대중을 이끌고 법당으로 올라가서 양쪽으로 도열해 선다. 이것을 안립(雁立) 또는 안행(雁行)이라고 하는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 줄을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과 같기 때문이다(徒衆竝雁行立側聆).

도열하는 순서는 먼저 서서(西序)인 수좌와 서기(書記) · 장주(藏主, 知藏) · 지객 · 욕주(浴主, 知浴) 등 두수(頭首)들이 서쪽에 각각 1줄씩 만들어 선다. 이어 두 번째 북소리에 맞춰 동서(東序)인 감원 · 유나 · 전좌 · 직세 등 지사(知事)들이 동쪽에 각각 1줄씩 만들어 선다. 다음 두수와 관련된 소직(小織)은 두수 쪽에, 지사와 관련된 소직은 지사 쪽에 선다. 그 나머지 대중들은 동서 구분 없이 차례로 줄을 지어 선다. 전임 주지 등 원로들은 수좌보다 윗자리에 선다. 행자들은 맨 끝에 서고 신도들은 지객 뒤편에 선다. 동서(東序)인 지사들과 서서(西序)인 두수들은 서로 마주 보고 서는데, 양쪽을 모두 합하면 10여 줄 이상이 된다. 사극(史劇)을 보면 조정(朝廷)에서 조회(朝會)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5일에 한 번 씩 법문을 듣는 5참상당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서로 구분해 도열하는 것도 조례(朝禮)를 모방한 것이다.

세 번째로 북소리가 울리면 시자(侍子)는 방장실로 가서 주지에게 보고한다. 주지가 법당으로 들어오면 대기하고 있던 대중은 모두 합장하고 예의를 갖춘다. 다음 주지가 법좌에 올라 의자 앞에 서면 가장 먼저 시향시자(侍香侍子, 燒香侍子, 비서실장격)가 선 채로 합장 배례한다. 이것을 문신(問訊, 합장 인사)이라고 한다. 이어 수좌와 서기 등 두수와 대중들이 문신하고, 다음에는 감원, 유나 등 지사가 문신하고 선다. 끝으로 사미와 행자, 신도들이 합장 배례하면 비서실장 격인 시향시자가 대중을 대신해 삼배하고 법을 청한다. 청법게 등 청법의식이 끝나면 주지의 설법이 시작된다.

상당법어는 종래의 고칙이나 공안을 들어서 수시(垂示, 제시하는 것)한다거나 또는 새롭게 공안을 제시한 다음 주지가 싯구로 짧게 부연 설명하는 형식인데, 그것을 착어(着語, 코멘트)라고 한다. 〈임제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법어는 간결 고준(高峻)해서 교학적인 설명이나 군더더기 같은 말은 넣을 수가 없다.

모든 대중들은 상당법어를 의무적으로 듣게 돼있다. 다만 중료(衆寮, 큰 방, 대중방)를 지키는 요주(寮主)와 직당(直堂, 당직)만 예외일 뿐, 그 외 대중으로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가해진다. 그리고 모든 대중은 주지가 법좌에 앉은 이후에는 법당으로 들어 올 수 없다. 만일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경우 옆문으로 요령껏 살짝 들어와야 한다.

법당에서 상석(上席)은 법좌 즉 법상 가까운 곳이다. 법좌는 법당 안쪽 즉 불상을 모신 곳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참고로 법당 안에는 불상 등은 일체 없음), 법좌의 높이는 약 2미터 가량 된다. 길이 2미터씩의 사방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으며 전면과 양쪽에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크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양과 형태는 군주가 앉는 옥좌(玉座)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상당법어의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모든 대중이 선 채로 듣고 또 〈임제록〉 등에서 본다면 그다지 길지 않다. 아마 30분~1시간 정도 이내였을 것이다. 법어가 끝나면 주지는 대중들

간결 고준한 상당법어 후에는

대중에 '구립진중'이라 인사

에게 상례적인 인사말로 "구립진중(久立珍重)"이라고 한다. "오래도록 서서(久立) 법문을 듣느라고 수고 했습니다(珍重)"라는 뜻이다. '구립진중' 또는 그 준말인 '진중'이라는 말은 〈임제록〉에도 자주 나온다(喝一喝云, 小信根人, 終無了日, 久立珍重. 〈임제록〉 1단).

상당법어의 종류는 많은 편이다. 한 달에 여섯 번 행해지는 정기적인 상당법어 외에도 하안거 결제날에 하는 결하상당(結夏上堂), 해제날에 하는 해하상당(解夏上堂), 성도절(12월 8일)에 하는 납팔상당 등 10여 종 이상이나 된다. 간단히 그 종류를 열거해 보도록 하겠다.

결하상당(結夏上堂) : 하안거 결제를 시작하는 날인 음력 4월 15일에 하는 법어이다.

해하상당(解夏上堂) : 하안거가 끝내는 날 즉 해제일인 7월 15일에 행하는 법어이다.

단망상당(旦望上堂) : 초하루를 '단(旦)'이라 하고, 보름을 '망(望)'이라 한다. 즉 초하루 날과 보름날에 행하는 법어로서 삭망상당(朔望上堂)이라고도 한다.

단오상당(端午上堂) : 음력 5월 5일인 단오날에 행하는 법어이다.

월석상당(月夕上堂) : 8월 15일 추석날에 행하는 상당 법어이다.

세단상당(歲旦上堂) : 세단(歲旦)은 원단(元旦)과 같은 말로서 세조상당(歲朝上堂)이라고도 한다. 정월 초하루 날에 행하는 법어이다.

이상에서 정기적인 상당법어와 날짜가 겹치는 경우는 하루에 한 번 법어를 한다.

납팔상당(臘八上堂) : 성도절인 음력 12월 8일에 행하는 상당법어.

욕불상당(浴佛上堂) : 4월 8일 불탄일에 행하는 법어.

개로상당(開爐上堂) : 음력 10월 1일 승당에 화로를 설치한 다음에 행하는 법어.

폐로상당(開爐上堂) : 2월 1일 화로를 철거하고 나서 행하는 법어.

인사상당(因事上堂) : 어떤 일을 계기로 상당해 설법하는 것.

퇴원상당(退院上堂) : 선종사원의 주지가 그 직책을 그만두는 것을 퇴원이라고 한다. 주지로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고별(告別) 법어이다.

개당설법(開堂說法) : 원래는 선종사원을 창건하고 난 다음 처음 법당 문을 활짝 열고 행하는 법어를 가르켰으나 후대에는 주로 주지(방장)가 부임하는 날, 즉 진산식 날에 행하는 법어를 일컫게 됐다.

그 밖에도 황제의 생일날에 하는 성절(聖節)상당 법어, 개산조사의 기일(忌日)에 행하는 상당법어 등 몇 가지가 더 있으나 생략한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불교가 개발 한 LED 인등 ·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정도만 소요됩니다.



봉녕사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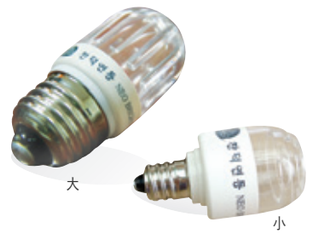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만월등 팔각접등 종등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행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발란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료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불교장례문화를 지키는

BTN 불교TV

불국토상조



불국토상조는

불교 장례의식을 책임지는
불교전문 상조 토탈서비스입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영가를 모시겠습니다.



▷스님의 시달림(염불)



▷대마 100% 불경수의



▷리무진 운구차량 + 장의버스



▷제단에 영가극락왕생발원 장엄번 설치

불국토상조 특징

▷입관시 스님이 시다림(염불)을 해드립니다.
▷제단에 불교식 장엄번 설치해 드립니다.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불경수의를 제공해드립니다.
▷가족신앙공동체를 위해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해드립니다.

불국토 "49재 보험"

임종부터 49재까지 장례비용 걱정 "끝"

49재보험은 불교TV 자회사인 (주)불국토와
흥국생명이 불자들을 위해 선보인 보험으로
불자보험 사후보험 효도보험 입니다.

▷ **49재**를 지내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한 신행입니다.
▷ **49재 보험** 가입하며 후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49재 보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참다운 효행입니다.

문의전화 : 02-722-1049

전국시단위 대리점 모집문의 02-3270-3370

서울 종로 02-722-6049 서울 남부 010-8238-0005 서울 관악 02-855-0213 인천 서부 011-268-2394 경기 성남 010-5500-0124
대 구 053-641-6900 부 산 051-337-6606 충북 청주 043-258-4444 인천 남동 010-9702-3424 강원 속초 070-7109-1138
대한불교조계종 철원 심원사 033-455-5882 울산 수정사 052-267-9166 (사)한국불교정토종 032-867-4444

중요정보고시 1)중도해약 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가.환급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가능합니다. 나. 환급시기 : 해약환급금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소비자 분쟁시 분쟁의 해결기준 가. 공정거래 위원회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나. 계약철회 등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한 환급금액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수령할 수 있습니다. 3)수의 원단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가. 대마 100%원사 : 수입사 나. 제조 : 한국 상품별 차등적용됩니다. 4)수의 원단의 제조방법및 제조지역 가. 기계직 나. 제조지 : 한국 5)관의 재질 두께 및 원산지 가. 재질 : 오동나무(원산지 : 중국) 나. 두께 : 1.5치 (제작 : 한국) 6)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가. 고객 불입금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2010.9.7)에 의거 선수금의 50%를 주거래은행(국민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7)총고객 의무 환급액 : 14,165,500원 상조관련자산 : 202,450,402원(2010.9.27기준) 교량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은 서비스대상 지역에서 제외(제주도는 가능)됩니다. 잔금은 장례식 후 즉시 일시불로 완납하셔야 하며, 음식료와 식장 이용요금(접견실 및 안치실료 등)은 본 상품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세요.

고객불입금은 할부거래법 시행령(2010.9.18)에 의거 국민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교TV 불국토상조 **고객지원센터 02)3270-3377 / 장례발생시 긴급전화 1661-2353**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48>

늘 깨어있으면 실수하지 않는다

학승이 물었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바르게 대수행을 한다."
학승이 물었다.
"화상께서도 수행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옷을 입거나 밥을 먹거나 한다."
학승이 물었다.
"옷을 입거나 밥을 먹는 것은 보통의 일입니다. 수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하시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매일 무엇을 하고 있는지."

問 了事底人如何
師云 正大修行
學云 未審和尚還修行也無
師云 著衣喫飯
學云 著衣喫飯尋常事 未審修行也無
師云 你且道 我每日作什麼

요사저인(了事底人)은 '일을 마친 사람'이라는 뜻이다. 선문에서 일을 마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일상사 무엇을 할까? 여기에 대해 조주 선사는 깨달아야 비로소 바른 대수행자가 된다고 말했다.

깨달음에는 차별없어 오직 돈오뿐
돈오점수, 돈오돈수 구분은 무의미

그런데 이것을 보고 조주 선사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정통 선불교는 돈오점수(頓悟漸修)니, 돈오돈수(頓悟頓修)니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원각경〉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던 교가(教家)의 규봉 스님과 청량 스님이 한 말이다. 선가(禪家)에서는 오로지 돈오(頓悟)만 말한다.

돈오라는 용어가 사용된지는 오래 됐다. 선가에서 돈오의 뜻을 확실하게 표명한 선사는 육조 스님이다. 육조 혜능 스님은 〈육조단경〉에서 돈오를 강조했고, 깨달으면 그 자체가 돈수라 했다[悟人頓修].

후대에 규봉 스님은 이러한 선문의 돈오의 뜻을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를 말하면서 깨달음에 차별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가의 판단일 뿐이다. 돈오돈수라는 말을 하거나 돈오점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규봉의 뜻을 좇는 사람들이다.

정통 선불교는 자성을 깨닫고 바로 부처의 행을 행한다. 이것을 육조 스님은 수행불행(修行佛行)이라고 했다. 이 사상은 뒤에 원오 극근 선사가 오후 보림(悟後 補任)이라는 말로 잘 설명했다. 즉, 스스로 부처인 것은 분명히 알았으나 그동안 습성이 깊은 이유로 부처의 행이 쉽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깨달음 후에도 부처의 행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때가 보림 기간이다. 즉, 육조 스님이 깨달았으면 불행을 수행하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펼쳐놓고 설명한 것이다.

육조 스님의 선법은 닦아서 부처가 되는 선법이 아니고 깨달아서 부처를 회복하는 선법이다. 육조 스님과 신수 스님의 게송에서도 이러한 차별성은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그리고 닦는 것을 강조했던 북쪽 신수계의 선법은 나중에 없어지고 유일하게 남종 혜능의 돈법만 남아서 오늘날까지 대를 이어온 선불교라는 것도 기억해두어야 한다.

조주 스님도 정통 선불교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깨닫고 난 다음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 문답에서도 깨달아야 '바른 대수행'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옷을 입거나 밥을 먹을 때 및 일상사에 수행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수행은 물론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수행 체계를 갖추어서 부처가 되려고 정진하는 것과는 다른 수행이다. 조주 선사는 일거수 일투족이 그대로 부처의 행인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행동 하나, 말 한 마디가 혹시 부처의 행과 말에 들어맞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갔던 선사였다.

낭중(郎中) 벼슬을 하고 있는 최씨(崔氏)가 물었다.
"훌륭한 선지식도 지옥에 들어갑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나는 맨 앞에 들어간다."
최씨가 물었다.
"대선지식이 되시는 분이 어찌하여 지옥에 들어가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낭중(郎中) 그대를 보겠는가?"

崔郎中 問 大善知識還入地獄也無
師云 老僧未上入
崔云 既是大善知識爲麼什入地獄
師云 老僧若不入 爭得見郎中

이 법(진리)을 아는 사람들은 개구즉착(開口即着)이다. 즉, 뭐라고 입만 벙긋하여도 진실과 10만 8000리나 멀어진다. 따라서 선(禪)을 설명하고, 도(道)를 설명한다면서 수많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지옥에 갈 업보를 짓는 것에 불과하다. 선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만일 선사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람에게 불법을 설명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불조의 은혜가 한량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잠자지 않는 눈이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범안(凡眼)과 육안(肉眼)이다."
스님은 또 말하길,
"비록 천안(天眼)은 얻지 못했지만 육안의 힘은 이와 같다."
학승이 말했다.
"무엇이 잠자는 눈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불안(佛眼)과 법안(法眼)이 잠자는 눈이다."

問 如何是不睡底眼
師云 凡眼肉眼
又云 雖未得天眼 肉眼力如是
學云 如何是睡底眼
師云 佛眼法眼是睡底眼

잠자지 않는 눈은 늘 깨어있는 눈이다. 눈이 깨어있으면 실수하지 않는다. 정신이 온전한데 어찌 실수가 있겠는가. 깨어있는 눈은 보통 불안(佛眼)과 법안(法眼)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반대로 범안(凡眼)과 육안(肉眼)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깨달음을 얻은 선사는 보이는 것이 다르다.

스님은 부처의 눈은 오히려 잠들어 있다고 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선악이 없으며, 길흉도 없는데 도대체 피곤하게 눈을 뜨고 살펴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불안은 눈을 감고 감아서 아수라장 같은 세상도 아무 문제없는 세상으로 보고 쿨쿨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범안과 육안은 평범한 눈이지만 사리 분별이 있고, 옳고 그른 것을 아는 가운데 또한 옳고 그른 것이 없는 것도 안다. 따라서 수시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것은 아닌지 깊이 살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나아가게 한다. 범안과 육안의 능력은 크다.

무불선원 선원장

체험하지 않고는 터득할 수 없다



선어록 해제 28
허당집(虛堂集)

김호귀 교수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허당집〉의 허당(虛堂)은 만송행수의 제자인 임천종륜(林泉從倫)이 주석하던 당호(堂號)이다. 텅 비어 있는 집이라는 정도의 뜻에 대해 원나라 원정 원년(1295) 9월에 봉훈대부 강단례가 〈허당집〉에 붙인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겁이 형성되기 훨씬 전에/ 손발조차 없는 어떤 사람이/ 그림자 없는 숲속에 들어가/
뿌리가 없는 나무를 베었네/ 원각의 큰 가람을 지으려고/ 깨침의 큰 광명을 빌려다가/
계정혜 기둥 주춧돌 세우고/ 체상용 대들보 높이 놓았네/ 걸림없는 해탈로 문을 삼고/
법공을 가져다 좌(坐)로 삼았다/ 이에 그것을 허당이라 하네/ 임천 노인 이에 주석하면서/
색계 선천의 맨 끝자락에서/ 붉은 노을 늘상 바라보면서/ 그림자 모양을 엮어 낸다네/
색에 즉하여 마음 밝히지만/ 허공에 의해 허공 설명하고/ 횡설수설 제멋대로 혀 놀림/
끝끝내 벗어날 수는 없다네/ 이에 친절한 도리 도달하여/ 그것을 듣고자 하는 자라면/
날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 확달영명(廓達靈明)한 자 되어야 하네/

공안은 순서대로·한번에 읽을 것 아냐
간화선-화두·묵조선-진리 뜻해

곧 제법이 본래 공하다는 뜻의 텅 비어 있는 집[虛堂]에서 붉은 노을[丹霞], 곧 단하자순이 엮어 놓은 송고 100칙을 바탕으로 하여 풀어보았지만 끝내는 그 도리를 체험하지 않고는 터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공안 100칙의 집대성이다. 이 공안은 한꺼번에 다 읽어야 하는 필요도 없고, 순서대로 접해야 할 것도 아니다. 나름대로 자신과 인연이 닿는대로 참구하여 단 하나의 공안만이라도 낱낱이 투철하여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안은 간화선에서는 화두의 뜻이지만, 묵조선에서는 진리의 뜻이다. 때문에 간화선에서는 스승의 경우 제자를 지도하는 수단 내지 도구이면서 동시에 제자의 경우 참구의 수단이다. 그러나 묵조선에서는 자신의 깜냥을 점검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여기 공안집으로서 〈허당집〉 6권은 임천종륜이 평창한 것으로 원나라 원정 원년(1295)에 출간됐다. 본래의 명칭은 〈임천종륜노인 평창단하순선사송고허당집(林泉從倫老人評唱丹霞淳禪師頌古虛堂集)〉이다.

북송 시대의 단하자순의 송고 100칙에 만들어 학인을 제접하기 위한 지침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단하어록〉 권하에 수록되어 있는 송고에서 100칙을 채용한 것이다. 거기에 임천종륜이 맨 앞에 시중을 붙이고, 단하의 고칙과 송에 각각 착어(著語) 및 평창(評唱)을 붙였다. 단하자순(丹霞子淳: 1064~1117)은 녹문자각과 함께 부용도해의 제자이다. 속성은 가(賈)씨이고 사천성 검주 재동현 출신이다. 27세 때 구족계를 받고 진여모철·진정극문·대홍보은 등을 역참했다. 후에 대양산 도해에게 참문하고 그 법을 이었다.

숭녕 3년(1104) 남양의 단하산에 주석했다. 이후 당주의 대승산 및 수주 대홍산에서 선풍을 진작했다. 정화 7년(1117)에 3월 11일 입적했다. 문하에 진헐청료·천동정각·대승이승·대홍경예 등이 뛰어났다. 〈단하자순선사어록〉 2권, 〈허당집〉 3권 등이 널리 유포되었다. 임천종륜(林泉從倫) 중국 조동종 제15세로 그 법맥은 동산양개(807~869)-운거도응(835~902)-동안도비-동안관지-양산연관-대양경현(943~1027)-투자의청(1032~1083)-부용도해(1043~1118)-녹문자각(?~1117)-청주일변-대명보-왕산체-설암만-만송행수(1166~ 1246)-임천종륜이다.

임천종륜은 호가 임천(林泉)이고 연경 보은선사에 주석한 만송행수에게 참문해 깨침을 인가받고 사법했다. 만수사에서 출세했고 만송을 이어 보은선사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원나라 세조 9년(1268) 조칙을 받아 입내설법하고 제사(帝師)와 도를 논해 선학의 대요를 발휘했다. 또 종밀의 〈도서〉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상주(上奏)했다.

세조 18년(1277)에는 연경의 민충사에서 도장(道藏)의 위경이 철저하게 소각됐는데 이때 종륜에게 불을 붙이도록 했다. 종륜은 투자의청의 송고 100칙 및 단하자순의 송고 100칙에 대해 각각 수시·착어·평창을 가해 〈공곡집〉 및 〈허당집〉을 편찬했다.

〈허당집〉 100칙에 대해 임천종륜은 단하자순이 붙인 각각의 주제에다가 다음과 같이 48가지 부제를 붙였다. 가풍(家風 5회), 경교(經教 3회), 경선(鏡扇), 골동(骨董), 교로(橋路 3회), 기용(器用), 대기(對機 11회), 대도(大道 2회), 목욕(沐浴), 묘견(猫犬), 문법(問法), 문호(門戶), 법기(法器), 법신(法身 3회), 법촉(法屬 2회), 병석(甁錫), 복식(服飾), 불조(佛祖 8회), 비주(飛走 3회), 빈주(賓主), 선정(禪定 2회), 성명(姓名), 성방(省訪 4회), 세시(歲時), 시중(示衆 6회), 심안(心眼 2회), 양식(糧食), 예배(禮拜), 우록(牛鹿 2회), 우설(雨雪), 유산(遊山), 인경(人境 2회), 장립(杖笠), 재죽(齋粥), 전당(殿堂), 제왕(帝王), 조교(祖教 4회), 조의(祖意). 주즙(舟楫 3회), 진보(眞寶 2회), 진상(眞像), 참학(參學 2회), 천화(遷化 2회), 탑묘(塔廟), 토사(免蛇), 해결(解結), 향등(香燈), 화과(花菓 2회)

출강 및 통신
2011학년도 제 20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0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1학년도 제20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1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2011년 동산불교대학 38기 신입생 모집



최고의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배움이란 마라톤처럼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반야회 28년의 역사와 그 바탕으로 19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동산불교대학이 자성을 찾아 인격과 덕성을 함양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불교학과 (2월 개강)

1년차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 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무진장대종사(본대학학장), 정병조교수(동국대), 차차석교수(동방대학원), 김상현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주명철교수(동방대학원), 정업스님(승가대), 법상스님(승가대), 보각스님(승가대)
2년차 교과목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최종석교수(금강대), 김호귀교수(동국대), 윤열수교수(동국대),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최봉수교수(대원대), 김형준교수(동산대), 묘주스님(동국대)

▶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 (180명) (토요반 · 목요반 · 통신반 각 60명) · 불교다도학과 (20명) · 불교미술학과 (20명) · 불교한문학과 (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 (20명)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11년 1월 3일~2월 12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및 면접 (합격자 개별 통보)	[불교학과]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토요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목요반) (통신반)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 수강이 어려운 분

▶ 개강 일시
불교학과 : 2011년 2월 12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개강
불교한문학과 3월10일(목), 불교다도학과 3월8일(화), 불교미술학과 3월10일(목)
사찰음식문화학과 3월9일(수) 개강

▶ 원서문의 · 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법정 국수 한사리 간질간질 생각나



前 방송인 이계진

이순을 넘긴 그가 스님의 빈자리에 크게 서운해 했다. 연륜의 상당부분이 스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일까. 스님과 교유가 깊었던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순수하다는 것이다.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솔직함은 나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 그리고 스님에게도 꼭 같이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부터 꼭 천 년 앞선 1011년. 고려는 초조대장경을 파기 시작한다. 흔히 고려대장경을 부처님 힘을 빌려 거란이나 몽골 침략을 막으려는 마음에서 팠다고 깎아내리지만, 대장경을 만들어 적을 막으려고만 했다면 굳이 인쇄경판으로 만들 까닭이 없었다. 대장경을 찍은 참 뜻은 부처님 열반 뒤 부처님 말씀을 모은 일처럼 온 나라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일군, 겨레 얼이 담긴 큰 역사다.

지난 가을. 법정 스님과 인연이야기를 들려주십사 부탁하려고 화계산(지도에 없는 관봉 선생이 지은 산 이름) 자락에 자리한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 이사 관봉 이계진 선생(65) 댁을 찾았다.

비가 개인 끝 시리도록 맑은 하늘과 맥고자를 쓴 선생 모습이 어우러져 선선하다. 관봉 선생이 법정 스님을 처음 뵌 건 20여 년 전 여름, 온 식구가 송광사 수련회에 갔을 때였다. 그 뒤 경복궁 앞 법련사에서 스님을 다시 뵈었을 때 스님은 "〈샘터〉에 쓴 글을 봤는데 글이 참 맑더군요"하고 덕담을 건넸다. 그리고 1992년 불일암에서 선생 부부는 법정 스님에게 계를 받았다. 향적(香積)과 삼매화(三昧華). 그날 스님은 내외에게 점심공양으로 국수를 비벼주셨다. 일러 '법정 국수'다.

스님은 국수를 손수 삶아 우물가로 가서 찬물에 헹군 다음 맨 국수를 한 사리씩 감아 맛을 보라고 건네주셨다. 스님은 하늘을 쳐다보며 하얀 국수 한 사리를 간질간질 목으로 넘기셨고, 우리도 스님을 따라 하늘을 쳐다보며 하얀 국수 한 사리씩을 간질간질 목으로 넘겼다.

관봉 선생 수필집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에 나오는 글이다. 나그네는 집 바깥뜰에 원시모습 그대로인 화덕에서 선생이 손수 삶아 진간장과 참기름, 김 부스러기를 버무린, 고소하고 맛깔난 법정 국수를 맛보는 영예를 얻었다. 지난 15년. 사람들이 화계산 자락 관봉 선생 댁에 들어서면서 늘 묻는 말이 있었다. "와! 몇 평이나 되요? 땅값이 얼마나 되죠?" 그동안 그걸 묻지 않은 사람이 법정 스님까지 네 분이 있었는데, 셈에 둔할뿐더러 미욱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나그네가 묻지 않은 탓에 '다섯 번째 바보'란 이름을 얻었다.

–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그리고 두어 달 남짓 지난 12월 초 다시 만난 자리. "스님을 뵙기 전부터 '많이 가지더라도 늘 갖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또 좀 모자라고 못난 구석이 있어도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욕심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다 스님을 뵙고는 '내 생각이 그르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오늘도 전철을 타고 걸어왔는데, 좋은 구두가 있지만 오래된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게 참 편안해요."

돈이 있지만 티 안내고, 차가 있지만 걸으면서 행복해 하는 관봉 선생. 밟을 리(履), 지날 력(歷)을 쓰는 '이력'이란 말에 걸맞은 발자취다.

17대와 18대 국회의원 당시 30분씩 1시간, 선서할 때를 빼고는 배지를 달아본 적이 없다는 말씀에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백제 온조왕 15년, 궁궐 지은 얘기를 적바림하면서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소박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넘치지 않는다'고 한 대목이 떠올랐다.

서울서 살다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는다는 일은 선뜻 뛰어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가 중풍이 드셔서 아파트에선 살기 힘드셨어요. 낙향할 기회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 무렵 스님께서 〈월든〉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부인이 시골생활을 꺼렸다.

"여자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못갑니다. 시골생활 3W가 있어요. 먼저 '와이프wipe'가 허락해야 하고, 둘째 '워크work', 워크는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노동력, 그 밖에 따로 할 일이 있어야 한다며 무일푼이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머지는 '워터water'. 물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으뜸이 와이프죠. 건강이 좋지 않아 시골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지 몰라 망설이던 집사람이 선뜻 결정 내린 데는 헬렌 니어링이 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그리고 장두석 씨가 쓴 자연치유 능력에 대한 책 〈민족생활의학〉이 있었어요. 그 책들을 읽고 나더니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며 마음을 냈어요."

그 때 관봉 선생이 프리랜서가 되고 두어 해쯤 지나 그야말로 잘 나갈 때였다. 내려가 있는 사이, 동료나 라이벌들은 프로그램 수주하러 다니고, 광고 찍으러 다닌다는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더란다. 그래도 "지금도 난 이만큼 부자인데, 가자! 내게 주어질 일이 있으면 산골이 아니라 숨어있어도 찾아올 거다. 이런 배짱으로 갔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정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갈등도 많이 했다. 그러다가 '법정 스님은 산속에서 밥그릇 하나 가지고 살고 계신데'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서울 살았으면 얼마를 더 벌었을 거라는 생각, 그건 가상이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생각 속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서울 사는 시간을 줄여서 큰 병이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골 가길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 모습을 법정 스님은 장하게 여겼다. 집을 짓고 한 해 남짓한 가을 녘에 스님이 오셨다. 당신이 권한 책을 읽고 실천하다니 신기하다는 생각도 하셨을 스님. 참 좋다고 잘했다고 하면서도 적잖이 걱정도 되셨는지 "살아보니까 일을 너무 하면 안 되겠더라고…. 골병이 드니 쉬엄쉬엄하고, 나무는 이렇게 가꾸고…"하면서 산골생활 노하우를 하나하나 찬찬히 일러주셨다. 그러기를 15년. 자연인 이계진 삶은 얼마 전에 펴낸 책 〈주말농부 이계진의 산촌일기〉에서 만날 수 있다.

–따뜻한 눈길, 그리고 끝없는 관심

14대 때 처음 정치를 권유 받은 관봉 선생. 당치 않은 소리 말라며 단호히 뿌리쳤다. 하지만 15대 땐 물리치기가 너무 힘들었다.

"안가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방송국, 신문사마다 찾아다니면서 '난 국회 안갑니다. 기사 내지 말아주세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렇게 말하곤 집에 오면 갈등이 되요. 이러다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 끝에 법정 스님을 찾아뵙고 여쭈었다. 스님은 "처사가요? 거기 가시면 차맛을 잊어버릴 거요"하고 간단없이 말씀했다. "그날 밤부터 우리 내외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법력 높은 스님 말씀 한 마디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 16대 때 스님은 "기도해봐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말씀. 선생 귀에는 그 말이 "하지 마세요"로 들렸다.

"집에 와서 또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안 나갔어요. 그 산골에, 날 데리러 이름 대면 다 알만한 톱 정치인들이 와선 밤 12시가 되도록 대답 듣겠다고 어르다가 '그럼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고 나면, 이튿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렇게 답한 적이 없다' 고."

매화향이 그윽하게 감도는 2003년 이른 봄 불일암. 법정 스님과 마주 앉은 관봉 선생. 조심스레 입을 뗐다. "스님. 제가 아주 유치한 사랑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스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하고 여쭈니, 스님은 "처사가요?"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이내 "선한 눈매를 가지고 기다리고…"하시면서 종이와 붓을 꺼내 "사랑은 따뜻한 눈길, 그리고 끝없는 관심!"이라고 써 주셨다.

군시절부터 오래도록 꿈꾸며 벼리던 사랑소설 〈솔베이지의 노래〉. 소리 때문에 험한 꼴을 본 중년 방송인 김시향과 불치병에 걸린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펼치는 말간 순애보. 여주인공 이름이 한효리. "효리는 본디 '소리'에요. 평생 아나운서를 했던 내 애인. 사운드(sound)죠. 소리라는 이름이 바로 와닿을 것 같지 않아서 효리라고 했어요. 말 배우는 어린애들한테 '효' 해봐 하면 '소!' 그러거든요." 주인공 이름을 소리라고 지을 만큼 소리는 선생에게 목숨과 같았다.

17대 때, 그토록 손사래 치던 국회의원 출마 결정을 내리고 스님을 찾아뵈었다. 스님은 "나이가 들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씀은 '소리 듣는 귀가 열렸다'는 짧지만 준엄한 인가(認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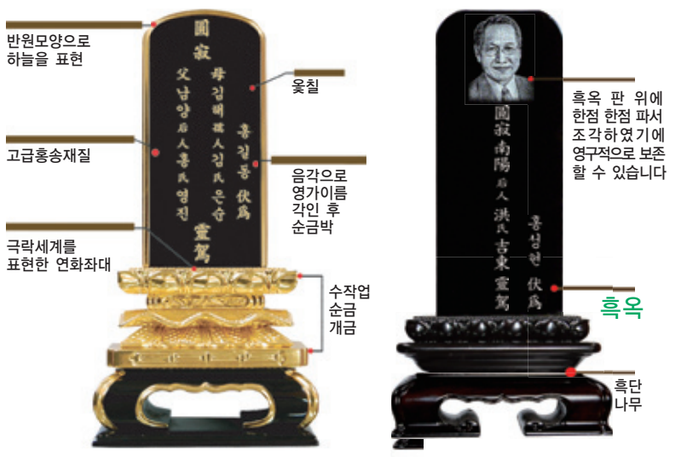
"명품"의 황금위패, 흑옥위패로 영단의 품격을 높여 드립니다 !!

황금영구위패는? ※디자인특허※

◈ 하나 하나 수작업으로 정성을 다하여 제작한 황금위패로 영가위패단의 품격과 신도는 조상에 대한 숭모의 뜻을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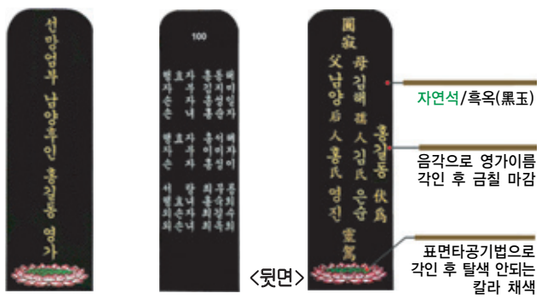
<안치전경>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작업 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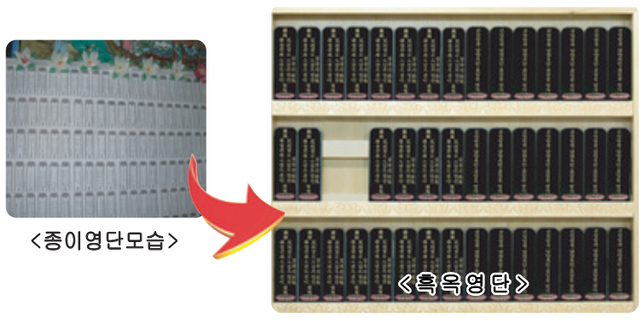
흑옥위패단은? ※디자인특허※

◈ 자연석 고급석재로 제작하여 영단의 안정감과 품격을 높여줍니다.
◈ 비용이 저렴하여 많은 신도가 위패제작에 동참할 것입니다.
◈ 뒷면에 고유번호와 가족이름을 넣을 수 있어 관리가 편합니다.
◈ 좁은 공간에 많은 봉안영구위패를 장엄 할 수 있는 맞춤형 흑옥위패 단입니다.
◈ 사찰비용없이 영단 설치와 어려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뒷면>

영가의 문구는 각 사찰의 요구대로 제작합니다



<종이영단모습>

<흑옥영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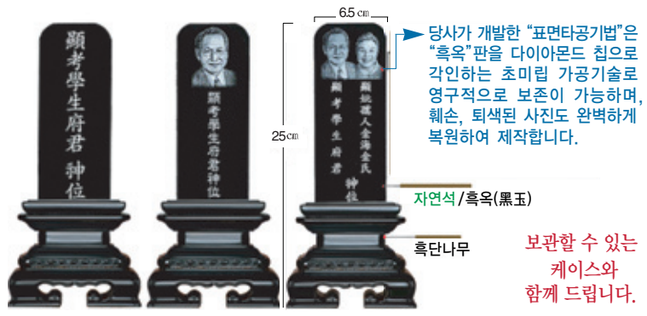
※ 전국 어디든 각 지역 사업부에서 샘플과 자료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

흑옥 제사용 위패는? ※디자인특허※

◈ 제사 때나 명절에 지방위패에 조상님의 사진과 함께 제작한 지방으로 제사를 모시면 생전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며, 지방을 쓰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흑옥(黑玉)과 흑단 나무를 부착하여 제작하였기에 영구적으로 보존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시 사진은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제작 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전화 : 02)966-9650
(주)대양아트 FAX : 02) 921-9650
본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6-1 e-mail : dyart@daum.net

"선거전이 한창일 때 선거사무실에서 급히 찾아 달려가 보니. 법정 스님이 와 계셨어요. 스님을 뵙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법대로 순리대로 하는 게 나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한참 있다 꺼낸 말이 '아니, 스님이 여길 왜 오셨어요?' 였어요. 그 말씀을 두어 번 했어요", 관봉 선생은 금세 눈시울이 물러지며 코끝이 붉어왔다. "아버지가 오신 것 같아서…. 그때 스님이 '그래, 얼마나 힘드냐' 고 하셨어요. 스님이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 때 사진이 몇 장 있어요. 선거 끝나고 국회의원 할 때 그 사진을 보면서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하고 되새겼어요. 18대 때도 잠깐 오셨어요. 음식점에서 점심 대접하고는 어서 가시라고 그랬어요. 여길 왜 오셨냐고. 나 때문에 어른 스님이 정치판에 모습을 보여? 어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 아름다운 패배

요즘 눈길을 끈 드라마 '대물' 을 보면서 선생 모습을 떠올렸다고 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캠프에서 했던 대사가 그대로 나와서. 처음 정치를 할 때 우리 집사람이 통장을 갖다가 회계자에게 주면서 '이 돈이 전부에요. 더는 돈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국회위원 선거, 도지사 선거 때도 캠프에서는 공약을 잘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때마다 나는 '지키지 못할 공약은 못합니다. 지킬 공약만 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한 말이 잘못된 줄 알게 되면 그 다음 방송 시간에 반드시 고치고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이번 선거 때 돈 써야 한다고 둘레에서 소리 높일 때도 '비겁한 승리보다 아름다운 패배를 택하겠다. 절대 안 된다' 고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드라마 속 주인공은 도지사가 됐지만, 현실 속 관봉 선생은 낙마했다.

"거짓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죠. 천심, 민심이 뭡니까? 여러 사람 생각이 모인 건데, 천심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날이 오게 하려면 나 같은 희생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요즘 어디 가서 축사나 인사할 때 그래요. '선거에 져서 죄송하지만 부끄럽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나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날마다 옳다고 떠든 대로 했을 뿐이다.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나쳤던 부분이 있다면 고칠 수는 있지만 탈법을 해가면서 자세를 바꾸고 싶지는 않다' 고 얘기했어요."

그는 앞일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시 선거전을 치루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잘라 말한다.

순수가 통하고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시작한 정치. 세비 말고는 17, 18대 두 번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면서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 18대 들어와서는 돈이 없어서 의정 보고를 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한테 이계진은 돈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 도지사 선거 때도 후원금이 적게 들어와 많은 빚을 진 관봉 선생. 집에 스님 사진을 걸어놓고 드나들 때마다 "스님,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고 인사드린다.

30년도 훌쩍 넘은 아주 오래 전. 나그네가 몸담았던 패션계에서 관봉 선생에게 패션쇼 사회를 부탁하고 사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정해진 대로 주십시오"이다. "나는 출연료를 흥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 무덤을 파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자존심 상해요. 내 몸값을 내가 정한다



법정스님 다비식 때 '스님 불 들어갑니다' 라고 소리치며 엉엉 울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사진장이가 알았던 정치인 이계진 대신 법정스님 제자 '이계진' 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오랜 시간 취재현장에서 그를 봐왔지만 '인간 이계진' 을 발견하지 못한 나의 좁음이 부끄러웠다. 이 부끄러움은 나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그의 모습에 더 커졌다.

는 게. 돈을 두 곱 더 받는다고 삶이 두 곱으로 행복해지겠어요?"

– 정재(淨財), 청재(淸財)

맑고 향기롭게 처음 모습 스케치를 부탁했다. "스님이 처음 하신 얘기는 단순해요. '중이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어?' 이게 출발점이에요." 맑고 향기롭게 활동은 누구라도 뜻을 같이 하는 이라면 종교를 따지지 않고, 요란스럽지 않게 제 스스로, 여기저기 손 벌리지 않고 제 주머니 털어 나누고, 키우려 들지 말고 자연히 늘어나는 대로 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그 가운데 종교를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 몹시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돌아가신 아동문학가 정채봉 선생도 계셨는데 처음엔 불자인줄 알았는데 천주교인이더군요. 스님이 하시고 또 길상사 둘레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불교가 중심이 되는데, 문을 더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선생은 사업을 자꾸 늘려나가기보다는 하던 일 제대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일을 벌리다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필요하면 여기저기 손을 벌리거나, 수익 사업에 손을 대게 되고 그러다보면 부작용이 생기게 되니까. 정재淨財, 청재淸財를 하자는 거지요." 선생은 맑고 향기롭게 운동이 처음 생각대로 단출하고 담백하게 이어가기 바란다.

법정 스님이 입적에 들기 이틀 전, 선생은 남미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렸다. 여행길 눈에 쏙 들어 사온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인형을 스님께 드렸더니 스님 낯빛이 연꽃잎 벙글 듯이 환해지셨다.



돌아오는 길. 성덕대왕 신종에 적바림된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처님 말씀을 글로 옮기면 불경이고, 부처님 모습을 만들면 불상이고, 부처님 목소리를 만들면 종소리니라."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랑

석길암의 한국불교 승려열전



태허성숙(太虛星淑, 1898~1969)②

서대문 감옥에서의 2년간의 옥고. 태허 스님이 조선 사람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나섰던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결과였다. 독립운동을 위해 땅 판 돈을 몰래 들고 집을 나섰던 젊은이, 그 의지가 승려의 길을 만났다고 해서 식었을 리 없고, 더구나 민족대표였던 손병희나 만해를 만났으니 '예정된 결과' 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런 그의 눈에 식민지 조선 백성의 고달픈 삶이 밟히지 않았을 리 없었다. 그리고 그 고달픈 삶들에 대한 연민이 1920년대 초반 조선사회에 세를 넓혀가던 사회주의를 만나게 된다. 그것이 그의 삶에 또 다른 전기가 된다.

"처음에는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다는 마음에 가입했지만, 이 단체를 통해 사회주의 운동에 발을 들이게 됐다."

스님의 회상이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라 표현하고 있지만, 실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일제는 조선을 병합한 후 지속적으로 식민지 수탈정책을 실시했고, 그 수탈정책에 제일 먼저 희생당한 사람들이 바로 농민이었다. 토지와 식량 수탈이 식민지 정책의 1순위였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제일 먼저 농사지을 땅을 빼앗겼고, 식량을 빼앗겼다. 수탈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그냥 주저앉아서 버티는 자들에게도, 수탈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시로 타지로 내몰리는 자들에게도, '연명(延命)' 이라는 말에 사치에 불과한 시대였다.



국립현충원에서는 매년 태허 스님의 추모제가 봉행된다.

연명이 사치였던 수탈시대 가난한 자 위해 승려 굴레 던지다

1922년 성숙이 무산자(無産者)동맹회와 조선노동공제회에 가담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보이기도 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니 이념이니 하는 것은 그저 좀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조선의 백성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일본 경찰은 그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고, 스님은 감시를 피해 북경으로 건너갔다. 북경에서 태허 스님은 북경민국대학을 다니며 정치경제학을 연구하는 한편 〈혁명〉이란 잡지를 발행하는 혁명가로 변신했다. 1926년에는 광동으로 가 광동코뮌에 참가하기도 했으며, 광동코뮌의 실패 이후 다시 상해로 가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 항일운동을 계속했다. 승려로서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의 일선에 서있던 스님은 1942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차장에 취임하고, 1943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하다 해방을 맞았다.

태허 스님은 귀국 후 1946년, 임정이 미군정 자문기관인 민주의원에 참가하는 것을 반대해 임정을 떠난다. 미군정의 정책이나 미군정을 이어서 들어선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나, 그에게 있어서는 해방된 조국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독립운동가는 어느새 좌익이라는 낙인을 찍혔다. 그는 독립운동가, 독립된 국가의 유공자가 아니라 좌익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죄인이 돼 있었다. 끝내 그 죄인이라는 해괴한 굴레를 벗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의 단칸방에서 생애를 마쳤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가 죽은 지 10여 년 후인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고, 스님의 유해는 2004년에야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그는 일제시대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념을 위해서 투쟁한 인물이 아니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념은 조선 사람들의 사람다운 삶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듯이, 그에게도 이념을 위한 이념 투쟁, 권력을 위한 이념 투쟁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을 것이다.

일찍이 부처님이 맨발로 세상을 걸어 중생을 향해 걸어 들어가셨을 때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다운 삶을 가로막는 어떤 주의를 허용하신 바가 없다. 성숙, 그는 그 부처의 길을 쫓아 놓지 못했던 이가 아니었을까. 이념이 굴레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념이 그 굴레를 벗기는 수단이 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고집스런 승려를 발견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를 불자(佛子)라고 부르는 것인지 묻고싶다.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센터 교수



불화 수월 관세음 보살圖

중생의 고를 다 해결하신후에 열반에 들겠노라 원을 세우신 관세음보살은 언제 어디에나 여러 모습으로 중생들 속에 나투시고 계십니다.

불자들은 고통이 있을때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염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자가운데 많은 분들이 관음보살 그림을 가정에 두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상이나 그림상 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있는줄 잘 못 알고 사찰이 아닌 곳에 있는 불상이나 그림상에 기도, 염불, 절 또는 예물을 올려 잘못되는 불자가 있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일부 스님들이 가정에 상을 두고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마음에 관한 것이지 물질이나 상은 허망하여 공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보살님의 마음이 물질로 된 돌, 나무, 철 이나 그림으로 된 상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불보살님께 크나큰 불경이되며 염불을 하더라도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마음은 살아 숨쉬며 믿고 생각할 줄 아는 중생의 마음안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배워 알면서도 우리들 중생이 어리석어 믿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상이나 그림상을 보며 마음속에 불보살님의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마음속의 불보살님께 기도, 염불, 절을 하면 그 즉시 전달이 됩니다.

불자라면 관세음보살 그림상 1점 정도는 눈이 자주 가는 곳(좋은 자리가 아님)에 두고 볼 때마다 염송을 한다던지 기도 등을 하고 모든일이 잘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잘되지 않을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것이라 믿고 관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면 이것이 곧 생활선이 되어 자연 고는 사라지고 망념이 끊어져 성불에 다가설수 있을 것 입니다. 그동안 본인은 많은 사찰의 탱화를 조성하며 공부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불자의 한사람이지만 불자 가정에 불화 1점 없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되어 본인의 재현 작품중 고려불화 가운데 설화를 바탕으로 그려진 수월관음도의 작품성이 뛰어나 이를 축소 하여 벽에 걸거나 탁자에 둘수 있도록 고급으로 제작 권하고저 합니다.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고 하루빨리 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모 민한식 합장

불모 민환식 대표작 ▼

조계사 대웅전 신중탱화	3.3 × 4.84m
조계사 덕왕정 극락탱화	8.8 × 2.7 m
조계사 대웅전 영단탱화	13 × 2.1 m
조계사 2만불 조성 (석가아미약사불 관음지장보살)	17 × 15 × 24Cm

작품규격 : 2.8cm × 43.5cm
재 질 : 원낫원목 / 아크릴(표면) (벽걸이 탁상용 겸용)
가 액 : 12만원(택배비 포함)

일심공예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77-10 301호
031)421-1040 | 010-2248-7395 | 010-7158-0004
계좌번호 : 농협 356-0413-3251-63 (예금주 : 민한식)

설날선물로 최고!!!

▼ 아래 작품도 판매 가능합니다.



◁ 지장보살



◁ 달마선사

노동자의 고단한 삶이 세상과 부대끼는 곳

구로공단(2)

> 노동자들,
> 쉬는 날이면
> 라훈아에게
> 한풀이 했다

2010년 8월 31일, 대법원 재판정에서 판결을 지켜보던 몇 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은 1960년대 서울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당한 당사자의 유족이었습니다. 어느새 이 분들도 노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그때 강제수용 당한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 반세기 동안 가슴에 담아 온 한이 녹아 내렸습니다. 공단을 만든다고 강제로 땅을 빼앗은 국가는 오히려 이들을 '땅 사기꾼' 으로 몰아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 을 가슴에 찍었습니다.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간 토지는 가구수로는 200여 가구, 68만㎡가 넘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던 이들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디에 살아나 계신지, 이 반가운 소식을 알고나 있는지….

이 판결을 보도한 신문기사는 이렇게 났습니다.

"판결을 내린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구로공단 토지 소유주였던 김아무개씨 등 4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해 불법구금, 폭행 등으로 소(訴) 취하를 강요했다' 면서 '공권력 남용이 정의 관념에 비춰 묵과할 수 없을 정도' 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구로동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로 1961년부터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경작지에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자 토지 소유권을 내세워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이 땅을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작해왔고 그 연고권으로 농지개혁 때 분배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검찰력을 동원, 민사소송을 사기로 몰아 당사자들을 집단 연행한 뒤 가혹행위로 소를 취하시키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었으며 당시 검찰은 원주민 53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고 말입니다.

문제가 된 땅 위에 세워진 공단이 구로1공단입니다. 공단이 조성되면서 구로동이 '가난에서 헤어날 수 있는 희망의 일터' 가 되어 전국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살 곳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공단 근처 야트막한 언덕배기, 개천가 뚝방 밑에 판자로 대충 바람이나 막는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정부가 허름한 주택을 지어 노동자들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 주택단지는 '간이주택' 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수출단지와 모여든 노동자로 해마다 수출은 늘었습니다. 1억불 달성이 10억불로, 100억불로 금자탑을 쌓아갔습니다. 1공단만으로는 부족하여 2공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1968년,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산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박람회 부지는 1공단과 안양천 사이에 있던 너른 들이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자그마한 야산이 둘러 있었습니다. 박람회 부지를 만들기 위해 야산은 뭉텅 잘려나가 평지가 되고 없던 도로도 뻥뻥 뚫렸습니다. 정말 요술방망이라도 두드렸는지 황무지와 공동묘지가 사라지고 각종 산업기계, 생산물이 전시된 전시관, 체험관이 들어섰습니다. 경부선 영등포와 시흥역 사이에 산업박람회 간이역도 만들어졌습니다.

박람회장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이곳에는 설탕이나 조미료, 담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포장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장이 있었고 각종 기계와 산업시설이 전시되었습니다. 각 전시장에서는 선물도 줬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전시장이 있는가 하면 그때는 정말 신기하기 짝이 없는, 표주박을 반쯤 잘라 엎어 놓은 모양의 바람집도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그 박람회장에서는 온갖 첨단시설과 장비가 사람들 정신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복권도 팔았습니다. 별이 다섯 개가 그려진 복권을 뽑으면 그때 돈으로는 어마어마했던 거금 100만원을 줬습니다. 당연히 이 복권 파는 장소에는 기차보다 더 길게 사람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박람회가 끝나고 그 자리는 2공단이 되었습니다. 간이역이 있던 곳에는 뒷날 가리봉역(지금은 가산디지탈단지역)이 들어섰습니다. 구로동에서 가리봉으로 넘어가는 곳엔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때 잘려나가고 메워져 차가 다니는 길이 났습니다. 지금 남구로역이 있는 곳을 구로동 원주민은 '구종점' 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나기 전엔 그곳이 길의 끝, 종점이었기 때문입니다.

60년대가 저물고 70년대로 들어서면서 3공단이 생깁니다. 경부선의 서쪽에서 안양천까지 광활하게 펼쳐진 곡창지대가 메워지고 공장이 들어섭니다. 경부선 위에는 다리가 놓였습니다. '수출의 다리' 라고 불렀습니다. 그 들판이 메워지기 전에는 한가롭기 그지없던, 철따라 푸르렀다가 누렇게 변하는 들이었지요. 마을의 아이들은 들판을 지나 안양천으로 멱감으러 다녔습니다. 안양천 바로 못 미쳐 큰 못이 있었습니다. 민물낚시터로는 참 좋은 곳이었고 참 아름다운 못이었습니다. 이곳이 메워지고 공장이 들어서면서 안양천도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안양천에는 메기며 모래무지, 동자개라고도 하는 빠가사리가 많았다면 믿겠습니까. 개천가의 참 고운 모래밭과 수초들이 이들을 품었던 안양천이었습니다.



구로공단 옆 가리봉 시장 인근 전경. 이제는 중국 거리와 다름 없어졌다.

공단이 넓어지면서 경기도 광명 철산리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로동, 가리봉에 방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이, 3공단하고 가까운 이곳에 순전히 '잠 잘 곳' 을 마련했습니다. 집도 아니고 제발 방만이라도 제대로 된 그런 곳이 절실 했습니다. 등을 짓누르는 노동에서 잠시나마 풀려나 활개를 뻗고 쉴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소설가 신경숙도 3공단 노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자전적 소설 〈외딴방〉에서 그려진 그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수출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단은 더 필요했습니다. 부천으로, 부평으로, 그리고 마산과 창원으로, 구미로…. 공단이 생기는 곳에는 여지없이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세상과 부대껴야 했습니다. 자본가들과 맞부딪히고 자본가들을 지켜주는 관료와 경찰, 심지어 방범꾼에게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니 공장의 경비한테도 그래야 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 지어진 '기숙사' 는 사실 노동자를 붙들어 놓기 위한 수용소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외출이 가능하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장의 경비가 일차적으로 으름장을 놓고 행세를 했습니다. 아주 못된 인간은 어린 여성노동자가 통금에 걸리도록 했으니까요.

남구로역에서 공단 쪽, 80년대 중반 노동자들의 가두시위장소로 자주 등장했던 가리봉오거리, 약칭 가오리라고 하는데요, 이곳까지에는 가리봉시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로아리랑이라는 영화에 등장도 했고,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라는 영화 '아저씨' 에도 등장합니다. 또 이제 막 개봉하려는 영화 '황해' 에도 이 가리봉시장이 나옵니다. 가리봉시장은 공단노동자들이 거쳐 가는 곳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장이 쉬는 날은 첫째 · 셋째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때에는 기숙사에 있던 노동자들이 주로 구로시장 쪽으로 옵니다. 구로동에는 극장이 두 군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계종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구로시립청소년수련관 자리에는 국일극장이, 구로시장 극동아파트 부근에는 한도극장이 있었지요. 극장은 노동자들이 쉬는 날 맞춰 '쇼' 를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라훈아, 남진, 김상진이 떴고요 우리의 노동자들은 그들에게 한풀이를 했습니다. 극장에서 나와 구로시장에서 주전부리를 하고 자신들이 만들었지만 자신들은 사 입을 수 없는 옷 구경도 하고, 신발가게도 들렀습니다. 그렇게 모처럼의 '부자기분' 을 내고 돌아가는 길에 가리봉시장을 거칩니다.

가리봉시장 부근에는 '비둘기장' 이라 부르던 쪽방집촌이었습니다. 주로 2층구조의 벽돌과 콘크리트집인데 한 집에 많게는 30개 쯤의 방이 있었습니다. 달랑 방 한 칸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은 시간차를 두고 방에 머물렀습니다. 서로 작업시간이 다른 노동자가 방을 얻으면 공간을 이용하기 좋으니 그리 했습니다. 그곳에서 연탄가스로 죽어나간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 거리의 애환은 조선족 동포들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리봉시장은 중국의 어느 거리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에선 연변말이 표준어입니다.

그나저나 왜 이곳에는 교회만 많고 절은 없을까요. 형편없는 기독교 교리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보듬어 주는 마음씀씀이는 그네들이 더 적극적이니 참 알 수 없습니다. 훌륭한 교리보다 고단하게 사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자비의 실천' 이 더 그리워지는 공장지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끝〉

개신교, 형편없는 교리지만 마음 씀씀이 적극적
훌륭한 교리보다 '자비실천' 절실

서동석 前 민중불교운동연합 의장

효사 활인천역집 2011 완결 최종판 분개(分個) 판매 개시!

본 육임 임상활용 CD 프로그램 및 육임 각 임상용 활용서는 육임의 정수(精粹)를 집대, 또는 장착시킨 적중도와 효과성을 최대로 간편하게 구성시킨 이 시대 전무후무한 임상활용 명품(名品) 입니다. 다만 가격이 고가(高價)이므로 이를 분개(分個)시켜 요긴한 것을 골라 쓰시게 하고, 또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고 간편합니다.

■ 효사활인천역집 2011완결 최종판	CD프로그램	500만원

이하 분개된 종목 및 가격, 또는 육임활용서 내역입니다.

■ 효사육임산책 2011 개정판 (※)	CD 프로그램	150만원(활용서 200만원)
■ 효사육임래정비법 2011 개정 · 증보판 (※) (육임대계전서 합착됨)	CD 프로그램	100만원(활용서 200만원)
■ 도사에게물어봐	CD 프로그램	20만원(활용서 10만원)
■ 육임길흉성부상담지침록 (※)	CD 프로그램	20만원(활용서 10만원)
■ 태아분만길일길시선택비법 2011 개정판	CD 프로그램	10만원(활용서 12만원)
■ 육임1년신수비결 2011 개정판	CD 프로그램	30만원(활용서 25만원)
■ 효사숙 사주 (※)	CD 프로그램	30만원
■ 월영도	CD 프로그램	20만원
■ 매화역수	CD 프로그램	20만원
■ 작명(作名)	CD 프로그램	30만원
■ 주역	CD 프로그램	20만원
■ 택일법	CD 프로그램	10만원
■ 당사주	CD 프로그램	10만원
■ 토정비결	CD 프로그램	10만원
■ 꿈 해몽집	CD 프로그램	20만원
■ 정통부적보감	CD 프로그램	20만원
■ 동의보감	CD 프로그램	10만원



이하 육임임상용 활용서 입니다.

■ 고귀명수(鼓龜命雖 : 일생사 및 당면사) 육임운명판단 신간 (新刊) (1월 15일까지 150만원 할인 가격 배송) (1권 · 6권 · 60권 / A3 · A4 · 크기 중 선택)	350만원
■ 육임래정비법 2011 개정 증보판(좌정용 / 휴대용)	50만원 / 30만원
■ 효사육임사주감정법 2011 개정판	20만원
■ 효사육임풍수 2011 개정 증보판 (※)	30만원
■ 오행제례의식집 2011 개정판	15만원
■ 효사육임강론 2011 제8판최종본 上(육임종합학습서 2015쪽) (※) 下(육 임 임 상 용 1750쪽) (※)	55만원
■ 효사도정기(途程記)	12만원
■ 불가법요집(佛家法要集) 감동적인 법회 / 각 목적사 기도문 / 각 목적 법문 인용구 수록 (※)	10만원

위(※) 표시의 육임활용서 및 CD프로그램은 더욱 귀중한 추천 명품이 되겠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보기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져 있습니다

육임강의
「도술(방법실기)반」
2011년 1월 8일
오후3시에
개강 합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효사직통 070-7514-8680 (주 · 야) / 사무실 02)738-8680 (주 · 야) / FAX 02)738-8681 (주 · 야)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조계사 건너편 SK건설 옆건물) www.taotemple.net

옛 사당의 향로같이 정진하여 한 가닥 흰 비단이 되라

경내를 참배하는데 두 개의 고련(古聯)이 보인다. 경저전선지(慶諸傳禪地)와 초원설법지(楚圓說法場)가 짝을 이루고 있다. 석상사의 정체성을 두 구절로 요약한 고련이다. 석상 경저(807~888)가 선을 전했고, 석상 초원(987~1040)이 법을 설한 도량이라는 뜻이다.

석상 경저가 상화산(霜華山)으로 들어온 때는 30세(836년)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해에 스승 도오종지(道吾宗智, 769~835)가 입적하자 도오산에서 스승의 영골(靈骨)을 수습했고, 이후 석상사로 들어와 회창법난 때 유양의 도자기 촌에서 도공으로 4년 동안 피해 있다가 82세에 입적 때까지 주석하였던 것이다.

석상사 조성(照性) 주지스님은 출타 중이고, 대신 얼굴이 후덕하게 큰 지객스님이 안내를 한다. 선당(禪堂) 앞에서 수불 스님이 지객스님에게 순례자 일행이 잠시 좌선할 수 있느냐고 요청하자 허락한다. 선당은 석상사의 20여 명 되는 대중스님이 일과표에 따라 좌선하고 있는 모양이다. 밖에서 선당 안을 볼 수 없도록 창에 칙칙한 커튼이 쳐져 있는데, 우리나라 선방처럼 밝지 않고 어두침침하지만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선당 중심에는 특이하게 오불관(五佛冠)을 쓴 비로자나부처님이 보인다. 오불관을 쓰게 되면 대부분 스님상인데, 여기서는 비로자나부처님이라고 한다. 참고로 안휘성 구화산 화성사나 절강성 절에서 지장왕보살로 추앙받는 신라 김지장 스님도 오불관을 쓰고 있는 것이다.

비로자나부처님 뒤편 방장실에는 수불 스님이 앉고, 순례자 일행은 벽을 따라서 마루에 앉는다. 입정을 알리는 죽비소리가 나자 선당 안은 단박에 침묵의 영원 속으로 빠져든다. 한 순간이 영원이라 했던가. 나는 눈감은 채 석상 경저선사의 행적을 따라나선다.

한 톨의 쌀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석상 경저는 여릉 신감(현 강서성 창강현) 출신으로 13세에 남창 서산 소감에게 삭발한 후 23세에 영은 숭악에게 수계 받고 율장을 공부했다. 그러나 공부가 흡족하지 않아 남쪽으로 만행하다가 대위산으로 들어갔다.

경저는 위산 회상에서 쌀을 관리하는 미두(米頭) 소임을 보았다. 하루는 키로 쌀을 까부는데 위산이 말했다.

"시주물을 흘려버리지 말게."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위산은 쌀 한 톨을 땅바닥에서 주워들고는 말했다.

"너는 흘려버리지 않았다지만 이건 뭔가."

경저가 대답하지 못하자 위산이 다시 말했다.

"한 톨의 쌀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게. 모든 쌀이 이 한 톨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모든 쌀이 이 한 톨에서 나온다면 이 한 톨의 쌀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위산이 크게 웃고 방장실로 가버렸다. 그날 저녁 위산은 법석에 올라 말했다.

"대중들이여, 잘 살펴라. 쌀 속에 벌레가 있구나."

이로써 '쌀 속의 벌레[米里有虫]'라는 공안이 생겨난다. 경저는 대위산을 떠나 이번에는 도오산의 도오 종지[道吾宗智]를 참방한다. 경저는 도오에게 예를 갖춘 뒤 물었다.

"보이는 것마다 깨달음[觸目菩提]이라는데 무슨 뜻입니까."

도오는 대답하지 않고 시자를 불러 정병에 물을 떠오라고 했다. 그런 뒤 좀 전의 상황을 잊은 듯 경저에게 물었다.

"좀 전에 내게 무얼 물었더라."

경저가 말을 하려 했다.

"아, 네."

그러나 도오는 듣지 않고 방장실을 나가버렸다. 시자더러 정병에 물을 떠오게 하는 것이 답이었던 것이다. 순간 경저는 대위산에서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이뤘다. 비로소 도오산에서 자신의 본래성품을 견철한 바 도오를 오랫동안 시봉했다.

이 선화를 두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 하나는 평상심이 깨달음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정병의 물처럼 더러움에 물들지 말아야 하고 정병처럼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오가 입적을 앞두고 법석에 올라 대중에게 물었다.

"내 마음 속에 한 물건이 있어 오랫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나를 도와 한 물건을 없애주겠는가."

"그 물건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근심하게 될 뿐입니다."

경저의 대답에 도오는 크게 칭찬했다. 그런 뒤 도오는 경저가 깨달은 바를 인정하고 자신의 법을 전했다. 이로부터 7년 뒤 회창법란이 일어나자 경저는 변복을 하고 유양의 도자기 촌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러나 동산 양개선사의 문인이 도자기 촌을 들렀다가 경저와 법거량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할 수 없이 경저는 석상사로 돌아와 개당설법을 하였다.



선당에서 좌선의 정복을 누리고 있는 순례자 일행.

천하의 선원으로 퍼져나간 석상칠거(石霜七去)

재상 배휴가 석상사 중창을 지원하게 된 까닭은 경저선사의 법력을 흠모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배휴가 석상사를 찾아왔을 때였다. 경저가 배휴에게 다가가 그가 든 홀(笏)을 갑자기 낚아채더니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 물건이 황제의 손에 있을 때는 대규(大圭)라 부르고, 재상의 손에 있을 때는 홀이라 부르는데, 이 노승의 손에 있을 때는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경저는 배휴가 대답을 못하자 홀로 때리는 시늉을 했다. 그것이 재상 배휴를 맞이하는 최상의 대접이었다. 이후 배휴의 홀은 선시의 소재가 됐다. 훗날 불인선사는 법거량을 하여 진 소동파에게 옥대를 풀게 한 뒤, 다음과 같은 선시를 남겼던 것이다.

석상스님께서 배휴의 홀을 빼앗은 일이
삼백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오랫동안 밝은 달과 흠 없이 함께 할
소동파가 풀어놓은 옥대만이야 하겠는가.
石霜尊得裵休笏 三百年來衆口誇
長和明月共無瑕 爭似蘇公留玉帶

석상 경저는 석상사에서 30년 동안 주석하면서 이른바 석상칠거(石霜七去)를 가르쳤다. 휴거(休去), 헐거(歇去), 냉추추지거(冷湫湫地去),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 한회고목거(寒灰古木去), 고묘향로거(古廟香爐去), 일조백련거(一條白練去)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칠거는 석상 경저가 입적한 이후 대중들 사이에 다시 한 번 화두가 되었다. 경저가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었다. 대중들은 관례상 수좌를 방장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저를 시봉했던 구봉 도건(九峰道虔)이 반대했다. 구봉이 수좌에게 말했다.

"스승님께서 '쉬고, 쉬며, 맑고 고요하게 하며, 한 생각이 만년이듯 하며, 재와 마른 나무같이 하며, 옛 사당의 향로같이 하며, 그리하여 한 가닥 흰 비단처럼 되라' 고 하신 칠거 법문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보시겠습니까."

"한결 같이 순일 무잡한 도리를 밝히신 것이니라."

"그것은 스승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에 수좌는 향 한 줄기가 타는 동안 좌탈하여 생사에 자유자재함을 드러내 보였다. 그래도 구봉은 수좌의 등을 두드리며 "앉아 죽고 서서 죽는 일은 능하지만 우리 스님의 도리는 꿈속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석상 경저의 선을 고목선(枯木禪)이라고 불렀다. 한때 대중이 1000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서 800명의 대중이 고목처럼 앉아 눕지 않고 장좌불와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석상사 대중들을 고목들, 즉 고목중(枯木衆)이라 했는데, 세 명의 태자가 석상사로 출가하여 경저에게 귀의한 데다, 대중들이 장좌불와 한다는 소식을 들은 당 휘종은 크게 고무되어 사신을 통해 붉은 가사(紫衣)를 내렸으나 경저는 사양할 뿐이었다.

좌선을 끝내고 조사전으로 가보니 석상 경저는 개산조사로, 석상 초원은 중흥조사로 모시고 있다. 경저선사의 법을 받고 귀국했다는 신라승 낭공(郎空)의 흔적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없다. 석상 초원은 전주(全州) 이씨(李氏) 자손으로 어려서 유학을 공부하다가 22살에 출가하여 분양선소(汾陽善昭, 947~1024)를 참방한 뒤 2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배운 것이 없다고 느낀 초원이 어느 날 선소에게 "저는 스님 밑에서 2년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 가르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세속의 잡다한 일들이나 하다 보니 견성은커녕 세월만 지나가버렸습니다. 스님, 저는 출가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소연했다. 그러자 선소가 대뜸 욕을 퍼부으며 지팡이로 후려쳤다.

"이 못난 놈이 감히 내게 불법을 배우겠다고 들어!"

초원이 비명을 지르자 선소가 입조차 틀어막아버렸다. 순간 초원은 대오하여 눈앞이 환해졌다.

"원래 임제 스님의 도는 일상생활에서 나왔구나."

만년에 시자를 데리고 만행을 마친 초원은 석상사로 돌아왔다. 도중에 시자에게 말했다.

"내가 갑자기 풍에 걸렸구나."

시자가 초원의 입이 돌아가 있는 것을 보고는 발을 굴렀다.

"어쩌겠습니까! 평생을 부처와 조사를 꾸짖고 욕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내 너를 위해 바르게 하겠노라."

초원이 입을 손으로 쓰다듬자 원래대로 돌아왔다. 석상사로 돌아온 다음해에 입적하니 나이 54세 법랍 22세였다. 초원 회상에서 두 제자 황룡 혜남(黃龍慧南, 1002~1069)과 양기 방회(楊岐方會, 992~1049)가 나와 황룡파와 양기파를 개창하니 선종은 오가칠종(五家七宗)이 되었다. 그러고 보니 산문 앞의 묘탑은 초원선사의 것인데 예전에는 그 앞으로 시냇물이 소리치며 흘렀다고 한다.〈계속〉



선종 황룡파와 양기파를 배출한 석상 초원선사의 묘탑.



글=정찬주, 사진=유동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불자몰 ▼ www.buljamall.com
불자종합쇼핑몰 BuljaMall
불자용품, 사찰홍보용품, 판촉물, 기념물, 답례품
인쇄물전문(봉투, 전단지, 초대장 등)
최대 50% ~ 70% 할인
소량구매도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문의전화 : 070-7257-0408

World View

그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미얀마 난민 수용소를 가다(상)

글=임연태(시인 본지 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후원=대한불교진흥원/다음카페 '히말라야의 꿈'



어린아이들은 늘 배가 고파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버릇이 있다. 한 어린이가 이른 아침부터 사탕수숫대를 입에 물고 있다.

#공포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가난과의 전쟁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을 이루는 산악지역은 무려 800㎞에 달합니다. 이 국경 산악지역의 정글은 사람이 살기에 매우 불편하지만, 300만여 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크고 작은 수용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 난민은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종족, 민주화를 위해 무장한 세력과 정부군의 총격전, 대규모 시위와 무력적인 진압 등 공포에 못 이겨 국경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해 11월 7일 20년 만에 총선을 치르고 군사정권에서 민간정권으로의 이양을 선언했지만 '군복에서 양복으로 옷만 바꿔 입을 뿐 정치세력의 판도 변화는 없을 것'이란 게 미얀마 안팎의 견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랜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는 대화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선언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얀마의 민주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지역에서는 수시로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럴 때마다 수천 명의 난민이 발생, 태국 영토로 넘어와 난민수용소가 형성되곤 합니다. 난민수용소는 전기나 수도 등의 생활 기반시설이 전무하고 가옥도 모두 대나무를 엮어 지은 임시주택일 뿐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서방 NGO들의 구호품(1일 두 끼 분의 식사와 간단한 의류)에 의지해 살아가는 난민들의 생활은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입니다.

국내에서도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불교계에서도 각종 단체가 나눔을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태국 국경도시 메솟(Mae Sot)을 중심으로 일부 국제구호단체와 선교사들이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비해 불교계에서는 영봉 스님(네팔 세종한국문화와 언어교육원장)이 3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학교와 고아원 사원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대불교는 새해를 맞아 불교계의 나눔 문화 확산과 불교국가인 미얀마의 난민들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메솟에서 남서쪽으로 240㎞ 지점(미얀마와 태국의 국경인근)에 위치한 누포캠프(Nu Pho Camp)와 메솟 외곽의 난민 고아원 '뉴블러드 스쿨(New Blood School)' 현장을 취재 했습니다. 누포캠프는 7개의 사원과 불교중학교가 있지만 불교계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한국 불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1997년 이 캠프가 설립될 당시에는 거주 난민 90%가 불자였지만, 지금은 60%가 기독교 신도로 개종했음을 이번 취재에서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불교계의 국제구호 사업에 대한 현주소일지도 모른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불교계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태국 국경지역 미얀마 난민수용소를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사방 2㎞에 2만 명 생활 '제한된 자유' 누려

닭울음소리에 잠을 깹니다. 지금 내가 누워 있는 곳은 아주 특별한 마을입니다. 마을입구에는 'NU PHO TEMPORARY SHELTER AREA'라는 영문이 태국어 아래 적혀 있습니다. '임시보호구역'이라는 의미인데, 보호구역 안의 사람들은 군부독재와 종족 갈등으로 인한 내전 등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누포캠프는 사방 2㎞ 지경에 2만여 명이 살고 있는 집단 수용소입니다. 시설이 괜찮은 18홀 규모의 골프장 면적이 30만평이라는데, 10만평에 2만여 명이 산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빠를까요? 강원도 정선이나 영월 군민 전체가 4만 명을 조금 넘는다는 것이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포캠프가 있는 반누포(Ban Nu Pho)라는 마을은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 밀림지역에 있는데, 태국 영토 전체를 놓고 보면 중앙에서 서북쪽에 위치합니다. 이 일대에만 미얀마 난민 수용소가 9개나 있고 거기 사는 난민의 수는 대략 30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집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800㎞에 이르는 태국 국경 전역의 난민캠프는 수백 개에 이르고 난민의 수도 3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누포 캠프는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멀리 보이는 산 너머(10㎞ 가량)가 미얀마 땅이라고 합니다. 누포캠프는 1997년에 형성 됐습니다. 미얀마와 태국의 접경 지역인 이곳은 카렌 족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의 난민캠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렌족이고 카렌어를 씁니다. 미얀마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온 난민들이 마을을 형성하기 시작하자 UN 산하 NGO 단체들이 태국을 설득하여 캠프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의 입장에서는 미얀마 난민들이 매우 난감한 존재였겠지만, 그들이 산악지역 안의 난민 캠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땅을 내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997년 이 캠프가 설립될 당시에는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삶의 양상이 정착되고 나름대로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장이 서고 캠프 안에 상가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학교가 설립되고 학교에 대한 NGO와 선교단체의 지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근의 태국인 소유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 오기도 합니다.

생존율 50%의 위협적인 상황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감옥행이 되고 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도 미얀마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을은 자체적인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며 가난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것은 물질의 문제이지 정신의 문제는 아니어서 캠프는 오래전 서울의 달동네들처럼 빈궁의 터전에 평온이 깃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캠프 안에서는 어떤 범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면 그것을 빌미로 캠프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난민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필수품들을 파는 가게는 있어도 술을 내놓고 파는 곳은 없습니다. 서로 가진 것이 없으므로 남의 것에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한창 나이에 하루 두 끼 밖에 못 먹다니

나는 어제 저녁을 이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들의 부엌은 단순합니다. 대나무를 엮어 만든 식탁이 두 개 놓여 있고 가운데 불을 때는 아궁이가 있는데 아궁이 위로는 솥 세 개가 일렬로 놓여 있습니다. 맨 앞의 솥이 가장 큰데 거기는 물이 가득하고 위로 다섯 개의 솥을 위로 포개어 쌀을 넣고 커다란 뚜껑을 덮어 찌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증기를 이용한 다중 찜통 시스템입니다. 그 뒤로는 국을 끓이는 작은 솥이 걸려 아궁이 불길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식사는 간소합니다. 밥 한 접시에 야채와 멸치를 넣어 끓인 국물 한 국자가 전부입니다. 어떤 아이는 숟가락을 사용하고 어떤 아이는 손으로 먹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라 각자 자란 환경에서 배운 대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의 아이들은 하루에 두 끼 밖에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식량 사정이 넉넉지 못한 탓이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10~19세 청소년들이 묵고 있는 기숙사에서 하루 두 끼라니! 간식이나 특식은 고사하고 하루 세 끼 밥이 보장되지 않다니! 통탄을 해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하루 세끼 밥은 줄 수 있게 하리라 다짐해 보지만 아이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랄 일은 또 있었습니다. 불교중학교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불교중학교이지만, 태국은 물론 어느 나라의 불교계에서도 이 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방문하는 일도 없습니다. 캠프 안에 들어 온 많은 교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즐거움과 먹을 것이 있는 교회로 발길을 옮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어둠이 내리는 식당에 앉아 아이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너는 무슨 공부가 재밌어?"

"공부요? 다 재미있어요."

그렇게 재미있게 공부하지만 이곳의 학교는 미얀마로부터도 태국으로부터도 공식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언젠가 나라 사정이 좋아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까막눈'으로 살 수 없으므로, 언젠가 이 캠프를 벗어나게 되면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므로 '졸업장'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교사도 먹어야 가르치죠"

'Buddhist Mission Middle School NuPoe'

불교중학교는 누포캠프의 동쪽 야트막한 언덕에







입학은 해도 졸업 못한다… 갈 곳이 없어서

불교계 영봉 스님 뿐 다른 지원 없어… 주민 60%가 기독교로 개종

있습니다. 개울을 건너면 양철지붕을 올린 솟을대문에 학교를 알리는 현판이 달려 있습니다. 현판 위에는 유럽연합과 일본정부가 학교건물을 짓는데 지원했음을 알리는 안내판도 붙어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 교사 2동과 법당 겸 교무실로 쓰는 건물이 하나 그리고 고아들의 기숙사 3동이 학교를 이루는 건물의 전부입니다. 운동장은 따로 없고 정문 앞에 농구코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운동장입니다.

오후 2시. 살며시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실마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꽃들이 듬성듬성 피어있는 화단은 깨끗하고 군데군데 비닐봉지에 흙을 담아 채소를 한 포기씩 심어 둔 것이 보입니다. 교실 가까이 가니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 선생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당 겸 교무실로 쓰는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여선생님은 환갑이 가까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네, 탓 나잉 선생님께 얘기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탓 나잉(That Naing) 선생님은 지난밤에 우리 숙소를 다녀갔습니다. 올해 55세인 그는 민주화 운동 시위에 가담했다가 감옥생활을 했으며 13년 전 미얀마를 탈출해 누포캠프로 왔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미얀마에 살고 있는데 날마다 아이들 사진을 보며 다시 만날 날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3년 전 영봉 스님이 처음으로 누포캠프를 찾아왔을 때 탓 나잉 선생님이 스님을 찾아 왔었다고 합니다. 불교중학교가 있다는 사실에 고무된 스님은 어떻게 하면 학교를 도울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스님, 교사들도 먹어야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인 즉, 불교중학교 교사들에게는 월 400바트의 월급이 책정 되어 있지만 온전하게 나올 때도 있고 절반만 나올 때도 있고 더러 거르는 때도 있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때부터 영봉 스님은 이 학교 교사 11명에게 월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



누포캠프불교중학교 정문. 유럽연합과 일본이 지원해서 설립된 학교다.


불교 중학교 학생들의 수업장면.

한 명의 월급 400바트는 한국 돈으로 대략 1만 6000원입니다. 교사 한 명의 연봉이 19만 2000원 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봉 스님은 지난 3년간 불교중학교 전체 교사 11명에게 연봉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들이 한국말을 몰라서 그렇지, 좀 안다면 '영봉 스님'을 '연봉스님'이라고 부를지도 모를 일입니다.

#늘어나는 학생 대책 없는 현실

불교중학교의 학생은 남학생이 148명이고 여학생이 156명, 합해서 304명이 현재의 총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얀마 국경지역에서는 무장반군 세력과 군정이 충돌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태국으로 넘어 오는 난민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나이는 대개 10세에서 19세까지인데 부모가 전혀 없는 고아가 100여 명이나 됩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름은 중학교지만 이곳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뒤섞어 공부를 하는 듯합니다. 선생님들은 굳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누지 않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분류한 학급만 소개합니다. 즉, 전체를 4개 학년으로 나누고 1년 단위로 학년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로 배우는 과목은 영어, 카렌어, 미얀마어 등의 언어와 수학, 과학, 역사, 지리 그리고 불교경전이라고 소개 합니다.

"불교경전을 공부하나요?"

"아침마다 20분씩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침마다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한다니 그 시간에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자비와 지혜의 샘물이 흘러들어가길 빌어봅니다.

"아, 영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감 선생님은 학교 현황을 얘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몫이 끝났다는 듯 수업을 마치고 들어 온 영어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칸 누헤(Khan Nohe)입니다."

젊은 영어선생님은 올해 23세이며 캠프안의 다른 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작년에 불교중학교로 왔습니다. 그가 미얀마를 떠난 것은 5년 전이고, 머지않아 가족이 있는 미얀마로 갈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하나요?"

"네, 특히 언어에 열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하지만."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어요?"

"무엇보다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난민이 늘어난다는 것이니 미얀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학급의 인원이 80명을 넘어 서는 지경이니 수업 지도에도 무리가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학생들은 장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가요?"

갑자기 칸 누헤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아차! 싶습니다. 너무 막막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착한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이 졸업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100명에 이르는 고아들의 경우 이 캠프 안에서 갈 곳이 따로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도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캠프를 벗어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학급을 조절하며 교육과정을 높여 가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서 (미얀마)상황이 좋아져서 되돌아 갈 수 있길 바랄 뿐이라며 젊은 선생님은 창밖을 내다봅니다.

"그래도 한 번도 미래에 대해 절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으니까요."

학생들의 발랄한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다고 하니 선생님은 전교생을 불러 모읍니다. 순식간에 질서정연하게 모인 학생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와~ 함성을 질러댑니다. 6월의 푸른 나뭇잎 같은 손이 예쁘기만 합니다.

#어느 여학생의 아픈 기억과 희망 이야기

수업을 다 마친 학생들이 집으로 기숙사로 돌아가고 학교는 조용합니다. 텅 빈 교실에서 여학생 한 명을 만납니다. 열일곱 살의 호살루에(Paw Sar Lweh). "캠프에는 언제 왔지?" "3년 됐어요."

"미얀마에서는 어디 살았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야기를 시작 했지만, 결국 그녀는 고향과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또르르 또르르 굴려 냅니다.

호살루에는 미얀마 국경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그러니까 8살 때 아버지가 병(말라리아)으로 돌아가셨고 다음해엔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홉 살 소녀 가장에게는 여섯 살의 남동생과 두 살짜리 여동생을 보호해야 할 태산 같은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원래 가난했던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던 3남매는 아버지의 친구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 집에서 3남매는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일도 해야 했고 동생들 때문에 꾸지람도 들어야 했습니다. 천덕구러기 3남매. 하루하루가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고난이라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고난이 아닌 경우를 몰랐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 큰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멀리 있는 학교를 걸어서라도 다니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하면 그 마을이 아닌 다른 도시, 아니면 다른 나라에라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가끔 인근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마을도, 공부를 할 수없는 현실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떠나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어 난민 수용소로 간다는 것이었고 그 곳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귀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이 집에서 내 입 하나라도 덜 수 있다면 떠나고 싶다."

그렇게 결심한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 총살의 위험을 무릅쓰고 꼬박 이틀을 걸어서 국경을 넘었고 사흘째 되는 날 누포캠프에 도착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동생들이 보고 싶지만,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기숙사에서는 살만해?"

먹고 자는 것을 비롯해 많은 것이 불편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불편함을 견디게 한다고 대답합니다. 호살루에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언젠가 여기서 나가게 될 것이라 믿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위험하고 열악하다면 그곳에 살고 싶진 않아요. 어떡해서든 제가 먼저 안정되지 않으면 동생들을 안정시킬 수 없으니까요."

"그런 날은 반드시 온단다. 그 날을 위해 네가 준비할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겠구나. 최선을 다해 살기 바란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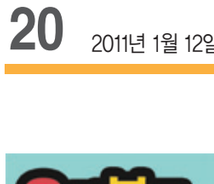
불교중학교. 다른 종교의 선교사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교사와 학생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화단의 꽃들이 어여쁘고 기숙사 옆의 채소밭에 채소들도 싱싱합니다. 이제 이 캠프 안에 있는 사찰을 찾아갈까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요절복통 여래네 집

#40. 송액영복(送厄迎福)



스튜디오 돌

어느 틈에 호랑이해 경인년이 가고 신묘년이 밝았습니다,



어떤이는 한 살 더 먹는게 기쁘고, 어떤이는 한 살 더 먹는게 슬픕니다,



띠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여래엄마 후배 중에 자신이 돼지띠라는게 창피해서 감추고 살았던 사람이 있대요,



그 후배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돼지띠라는 사실에 겨우 안심을 했답니다,



따지고 보면 십이지신 모두 신들인데 더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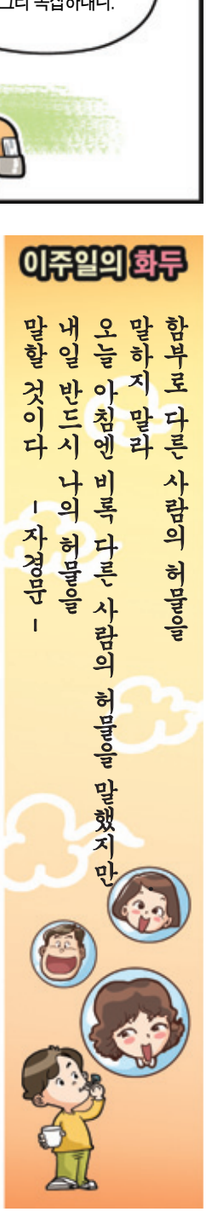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 자경문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대승연화종 불광사에서는 **승려**를 모집합니다
017-552-7350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개인지도 (빙의, 퇴마)
한달만 물상으로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영가 보는법과 실전위주로 개인지도함.
역학 : 물상으로 명리, 영가지도, 궁합, 택일, 구궁법,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부산)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비법약 전수 받으실 분
악성으로 인한 골수염, 관절염,
갑상선종양, 편도종양,
목, 허리, 디스크 등에
즉시 효능이 있음.
전수희망자 : 포교에 뜻있는 스님만 가능
무 료 치 료 : 스님에게 무료보시
010-6285-3703

사무실 직원
(숙식가능 자) 구함
미국 LA사찰에서
부전사실 스님 모십니다
010-5792-3000

팔공산 묘적암 대중모심
• 불교마음수련원 원장 0명
• 종무원 0명
• 기타 뜻을 함께하실 사부대중 <승속 불문>
팔공산 묘적암
011-9371-8080

수강생 모집
철학반 • 무속반
승도반 • 치유반
도건명리학당(불당사)
042)526-1123
010-3452-1123

매주 화, 목요일 저녁7시
무료특강
남천홍 역리학원
02)725-6886
영가천도, 가정 사무실 방문 기도함
꿈바위 010-6789-5008

스님 초빙
부산, 대구에서
열심히 할동하실 분
가정과 회사방문
기도 및 상담
대불정능엄신주 기도함
꿈바위불교교육원
010-6789-5008

불공의식
사찰의 모든 불공을
전통의식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010-8677-1277

부전스님 모십니다
▷ 40~50대, 비구
경남 양산
055)375-01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경기도 남양주
016-293-170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011-9514-3721

신심있는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절 관리해 주실 스님)
▷삼척
010-9219-7695

동영상 역학강의
용신, 실전사주,고급-일진내정법(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등의 과목을 거리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저렴한 수강료로 빠른 시일내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동영상 역학 강의입니다
www.beumchun.com

사찰운영 같이 합시다
혼자 절을 가지면 죽을 때 가져갑니까?
잘 되지도 않는 곳에 혼자 절을지어
어렵게 살지말고 여기 6억원 들여
시내 한편에 목조로 불사를 잘한 이곳에
2억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수행합시다
돈이 모자라면 1억도 됩니다
등기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니스님을 원합니다
아니면 노보살님도 괜찮습니다
011-9837-8668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7232-0384

기도하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기도시간 : 아침, 사시
▷부산 가야대원사
051)891-7255
051)891-1051

전통 염불 배우면서
부전사실
스님 모십니다
▷50세 미만, 비구
▷마산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노원구 중계동
▷60세 이하, 출퇴근 가능 하신 분
02)3391-8523
011-9002-8523

청소년 빙의
100% 치유
학업성적향상
부처골 지장선원
www. jijangsw.com
054)383-8553
* 퇴마의식 비법전수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공양주
구합니다
(보시금 : 상담 후 결정)
▷ 충남 아산
041)545-733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65세, 보시금 상담 후
010-3188-510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65세 이하
010-8934-6058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울산
052)275-082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12-9810

대방등 신통기도
•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워집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130-1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매각 공고
법원 등기된
법인 종단양도
법인 불교단체 양도
011-412-8040

전통사찰 등록
종교법인 등록
문화재 등록
서류대행
011-9746-9001

신심있는 공양주
모십니다
▷개원사
053-981-0995
010-2828-066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남 통도사 부근
011-9660-4241

이 책으로 꿈과 마음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 꿈과 마음이며 건강회복과 재능발휘 또한 꿈과 마음에 달려있으며 그토록 원하는 진실, 깨달음, 지혜와 통하는 것도 다름 아닌 내 꿈과 내 마음에 있음을 밝혀주는 이 책은 인류에 대한 선물이다.
꿈 과 마 음
책값 오천원. 070-7756-1235 메일:home4047@hanmail.net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1-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미국뉴욕, 중국 청다오
이점트 카이로 3월 동시모집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화, 금요일 오전, 목요일 저녁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문의 : 전화 053)474-8228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전화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덕연선생 약력 및 저서>
- 서라벌대학 풍수명리과 교수 역임
- 인터넷 홍익TV 명리학, 구성학 강사
- VJ특공대 이색 역술인 출연
- 다음 N-사주카페지기
- 내가바로 사주왕, 사주여행 저서

인터넷 역학(사주)강좌 안내
학습내용 왕초보 입문, 격과 그릇의 이해, 테마별 사주보는 법, 육친 통변의 날개 마음을 보는 사주통변 등 무료강좌 다수
사주 기초부터 고수까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하여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주보는 눈을 확 틔어 드립니다.
■ 인터넷 창에 '덕연풍수명리학회'를 검색 하세요.
■ http://www.sajuacademy.com
덕연풍수명리학회 문의 042)320-2444

무아 스님 황토 氣 토굴 최초 공개
- 항암 치료중 면역력이 떨어져 치료에 힘이 들거나 치료 효과가 없는 분 (암, 당뇨, 성인병)
- 수술 후 몸에 기운이 없어 회복이 늦는 분.
- 항생제, 약물과용으로 배독을 해야 되는 분.
- 1회 체험으로 본인이 배독, 면역력이 증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氣 토굴을 만들어 드립니다.
대구 비슬산 약천사
상담문의 011-823-2460 / 053-423-246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분거리 국도 옆)
■ 면 적 : 사찰 전시관 2층(신축) 240평 외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대중공양실, 기념품판매장, 총 2,200평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 좌불(목불), 국내최대 관음목불입상, 50여점 크리스탈개금불, 천여점 희귀불상 전시(국내최대전시장), 외관벽 일체 크리스탈 장실 만다라 액자로 장식
■ 연간 5만명 참배, 천도재 월 10건이상
■ 전시관에 전시중인 크리스탈 개금불은 주지스님이 10여년간에 걸쳐 조성한 창작개금불로서 일본으로부터 불교예술의 새 역사를 연 작품으로 호평 받고 있으며, 절대 모방이 불가능한 불상이며 참배하시는분께도 황홀함이 빠져드는 작품으로서 TV방송 등 총 18회 방영된 바 있습니다.
■ 양도가 : 35억 가능
■ 사찰내역은 인터넷상에 포항 **성취관**을 입력하십시오.
■ 연락처 : 054)249-1023
휴. 010-4504-0174
■ 자금력 있으신 대덕스님께서 운영하면 대 성공을 확신합니다.

(사)대승불교본원종
본원불교의식대학
제6기 학인모집
1. 교육기간 : 1년
2. 입 교 식 : 2011년 3월 2일(수요일) 오후3시
3. 수업일시 : 주 1회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4. 교육내용
• 1학기(기초반) : 도량석, 종성, 각단 불공의식
• 2학기(중급반) : 거불, 복청게, 가영, 천수바라, 요잡바라, 화청, 49재 및 천도재, 사찰의식 전 과정
5. 입교자격 : 불교의식 (범패)에 관심있는 스님 및 재가불자
※ 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6.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호
대승불교본원종 총무원 교육관
학장 : 만혁 스님
7.접수 및 문의 02)391-4376 / 010-9996-6340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본원불교의식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147-3
TEL: 02)391-4376 / FAX : .02)379-2746

포布기氣법法을 아십니까?
포교활동에 활용되어 왔다하여 포기법(布氣法)이라 불리는 치유법! 50년 전통의 한국기치유연구회에서 그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포기법은 신비주의의 방술이 아닙니다. 수 많은 이가 말하는 그냥 그런 치유법도 아닙니다.
순수한 보건학문으로써 우리 민족의 스님들이 사용하던 그 치유법입니다.
스님 특별 지도반 및 개인 지도반 운영중
지 도 내 용
▸ 사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방어력 지도
▸ 기감을 통한 진단법 전수
▸ 통증 제어법(요통, 편두통, 생리통, 안면 신경통 등등)
▸ 원상회복법(척추측만, 디스크, 허리통증 등등)
▸ 세포재생법(간경화, 화상, 수술 후 빠른 회복 등등)
▸ 기능조절법(장 기능 정상화, 내분비 기능 정상화, 근육 기능 정상화 등등)
위 증상은 단 몇 번 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 02-3482-5032
(전화상담 시간 : 평일 10:00 ~ 18:00)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www.gihealing.com

東和임영재선생의 氣.수맥.풍수지리이야기

◆ 수강생모집 ◆
풍수지리,수맥 전문가 양생교육
모집인원: 선착순20명
교육일시: 2011년2월13일 일요일 오전11시 6주코
교육장소: 교대역13번 출구 스타벅스건물 7층
◆ 수맥,풍수지리 상담 ◆
음택, 양택, 재혈,원격감정, tv.출연 이론입증
전화예약 ☎:1644~8457 동화자연지리회 www.dh21.kr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좋은 인연. 멋진 인생
▷전통 예술 : 대금,단소, 태평소, 학춤, 한량무 ...
▷불교 의식 : 예불, 범패, 바라무, 법고 ...
▷전통 무예 : 선무도, 봉술...
위 수행으로 불심을 가꾸어가실 도반을 모십니다
선무도 양산 연수원 010-9314-0950

불자정보

▷ 문 의 : 02)2004-8215,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 / 상단 돌출 150,000 / 중앙 돌출 500,000 / 하단 먹 7cm 100,000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531-5
- 태양빌딩 5층 중 4층
- 평수 : 45평 육합
-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지장, 칠성
- 가전제품 등 일체 완비
- 인등 100등, 연등 165등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20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1200만원

011-742-845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 법당 : 60평외 2동
- 요사 : 90평
- 부지 : 1,200평
- 가액 : 25억

- 위치 : 경북 양주시
- 법당 : 35평
- 요사 : 100평
- 부지 : 60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경기 양주시
- 법당 : 35평외 35평
- 요사 : 27평
- 부지 : 218평
- 가액 : 5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한 국 불 사

- 서울근교 (APT밀집지역, 재래시장근접) 교통주차 편하고 산세수려함
- 대지 약 160평, 2층 목조법당
- 가액: 10억

※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운영 하실분 전화 상담해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4동
- 2층 건물중 2층
- 법당20평, 방1, 화장실1, 주방1
- 포교원 개원하지 3개월 정도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 특징: 양쪽 재래시장 있음 건강상 (급)양도, 유동인구 많음

010-3827-6869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자인면
- 방사 많은 암자
- 대지 126평
- 건물 4동, 약 70평
- 가액: 1억 3천

010-5572-1501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2동
- 4층건물에 4층
- 평수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시설완비

010-2987-003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읍
- 2층건물 2층
- 법당 40평중 방3칸, 주방1, 화장실, 주차장완비
- 후불탱, 지장탱신중탱화, 아미타삼존불, 집기일체
- 등산로 입구, 아파트 주변 대로변 교통원활
- 보증금 2천만원. 월 35만원
- 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010-6556-6431

사찰 및 토굴안내

양산 신도시 부근 사찰

- 총 대지 : 약 1500평
- 법당 35평(전통와가 5포 7포)
- 요사채 80평(방 10칸),대종각
- 부산근교 신도시, 산세수려,계곡물 철철
- 주차장 300평, 텃밭 400평
- 총금액 : 13억

부산 강서 아름다운 절

- 총대지 : 384평
- 법당(신축)약 40평, 요사, 방3칸, 지장전, 산신각
- 단청완료, 주차장 300대
- 가액: 5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찰(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호계동 위치 좋음
- 평수 500평
- 산신, 용왕, 법당, 요사채 각1동
- 심야보일러
- 가액: 3억 3천(조절가능)

011-595-1522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
- 마을 뒤 대밭있고
- "ㄱ"자 한옥 57평
- 대지 340평
- 가액: 2억 3천

010-4459-150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삼안읍에서 5분거리
- 마을 뒤 위치한 사찰
- 대지 150평
- 법당 16평. 단청, 선방2
- 요사채 18평, 방2개
- 공양실(방2), 산신각 4평
- 전세 3천만원

010-3367-207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천 원미구 춘이동
- 평수 80평, 방 4개
- 보증금 8천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3019-2236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2동
- 평수: 30평(삼존불, 지장, 신중, 산신탱화, 최상급인등)
- 유동인구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 등산로
- 최고위치,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3,000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4534-3646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절(사찰)요양시설

복지시설

- 경남 산청
- 농장, 약초재배단지 다용도
- 3만 5천평
- 가액:17억 5천만원

02)739-5008

친환경
삼베타올 SET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 요사채 2동. 임법당 1
- 양도가 7500만원
- 건물만 등기이전됨
- 땅 토지세 1년 19만원

010-3723-66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 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
- 주차시설 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로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교원안내

- 위치 : 충남 서산 터미널 뒤편
- 평수 : 23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8만원
- 시설비 500만원
- 대체의학 하시는 분 환영

010-2864-728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IC에서 3분거리
- 대지 140평, 주차장완비
- "ㄱ" 자 골기와
- 가액: 1억 8천 5백만원

011-523-88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하남시 창우동
- 건물: 2층에 2층
- 건평: 74평
- 법당, 방3, 공양간, 시설완벽
- 검단산 등산로 입구, 아파트 주변, 대로변 교통원활
- 보증금 4천만원, 월 13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031)791-9022

토굴터안내

- 위치: 거창군 가북면 중감마을에서 500M
- 현재 묵은 논, 2필지, 1017평
- 남향, 해인사 뒷산
- 깊은 산속 시원한 계곡물
- 가액: 2천 5백만원

011-9393-4965

사찰(암자)안내

- 위치 : 강원 동해시
- 부지: 2100평
- 건물: 법당 15평. 삼성각. 용왕각. 요사2동 각15평.
- 주위환경: 전면이 동해 바다가 보이며 좌청용 우백호가 있는 명지로서 약수가 있는 곳임.
- 가액: 2억 (절충가능)

010-8633-8472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문현동
- 대지 약 160평
- 건평 80평(1,2층)
- 방 6개, 목욕탕 2개, 주차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내방 절충

010-3302-1821
055)638-1825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암동
- 건물30평 (법당,주방,방2개,화장실)
- 삼존불,원불60불,산신각)
- 보증금 500만원 월25만원
- 시설비 500만원

011 - 549 -3821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포항근교
- 법당 목조 20평
- 요사채 40평
- 지하수, 심야전기
- 건평 680평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135-973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 지하철에서 2분거리
- 자연녹지 300평, 건물허가 났음
- 하천부지 약 300평 정도 사용
- 법당(슬레트) 70평정도
- 전세나 양도
- 답사 후 결정,50년된 사찰

011-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신리면 마소리
- 평수 : 법당30평, 산신각 약15평, 대지 224평
- 법당 마당앞 연못 있고, 산밑에 위치
- 도로포장완료. 주차장有
- 가액 : 1억 8천만원

043)852-0533

절(사찰) 별장하실분

- 경남 합천군 남기면
- 한옥2동(주택, 찻집), 작은초가 황토집3채
- 별도분할 구매가능
- 대구,부산1시간20분거리 마산,창원30분거리
- 인터넷에서 연꽃인연 검색 하시면 전체를 알수 있음
- 가액은 만나서 절충합시다

055)934-4488
010-3521-6920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海月 金文華의 魂이 담긴 스피커의, 힘 있고 우렁찬
소리는 스님의 건강과 절 전체에 氣를 불어넣어 줍니다.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ital Echo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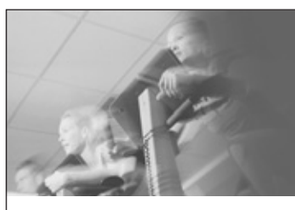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절감
심야전기 대비
1/2이상
절감 효과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암, 스트레스 부터 날리자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온 많은 병들이 사라져 갔다. 질병퇴치의 가장 큰 공은 수돗물과 비누의 사용에 있다. 수인성 전염병들이 수돗물의 사용과 함께 사라졌고 많은 감염성 질병들이 비누의 사용으로 전염이 차단됐다. 20세기 들어 계속된 항생제 개발은 거의 모든 질병을 다스릴 수 있게 했다. 병은 이제 두려운 병마(病魔)가 아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됐다.

하지만 전염성 질환은 퇴조했지만 몇 가지 난치병들은 아직 남아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암이다. 암은 넓은 의미의 종양을 말한다. 종양 중에서도 악성종양을 암이라 한다. 정상조직을 파고 들어가 림프관이나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져나가는 암은 정상세포와 비슷한 생리기능을 갖춰 발견도 치료도 어렵다.

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완전한 치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암을 의심할 수 있는 위험신호는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피로증세와 거의 흡사해 조기발견이 어렵다. 주기적인 검사와 세심한 배려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 나이가 되면 다 그런 거지 뭐' 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암의 발생 원인으로는 음식물 담배 바이러스 대기오염 등 외인성 요인이 90%를 넘는다. 그만큼 평소의 섭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암이 발견되면 누구나 심각한 당혹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완치가 어려울 뿐 아니라 생존율도 낮기 때문이다.

필자는 주위에서 많은 암환자들을 자주 접하면서 몇 가지 느낀점과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우선 암에 걸리면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 본인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암의 진행만 촉진시킬 뿐이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와 가족은 무엇보다 암을 인정하는 자세가 우선시 돼야 한다. 의학계에는 너무나 유명한 실화가 있다. 50대 초반의 성공한 사업가가 어느 날 암 진단을 받게 됐다. 그는 입원하기 전 며칠간 심사숙고 끝에 코미디 녹화테이프 200개를 준비했다. 아울러 '나를 웃길 수 있는 소재를 하나씩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의 문병을 사절한다' 는 팻말을 병실에 붙여 놨다. 암 병동에서는 유일하게 그의 병실만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런 생활을 한지 1년이 지난 후 그 환자에게선 암세포가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다. 생명의 본래 에너지가 갖춘 긍정적 에너지가 암을 치료한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암환자를 접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웃을 수 있도록 만드시길 부탁한다. 웃음만이 살아온 삶과 남은 삶을 편안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이다. 어두운 얼굴로 문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뿐이다. 암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그 상황을 받아 들이고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가족과 문병하는 이들의 첫 번째 과제이자 의무다.

환자와 가족 암 인정해야
암 치료 '비방' 은 금물
웃을수록 암세포 줄어든다

다음으로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이다. 편안한 마음으로 전문 의료진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필자는 직업이 한의사라 그런지 암 치료에 대한 많은 '비방' 들을 문의 받는다. 그러나 확실하게 검증된 '비방' 은 없다. 항암작용을 나타낸다는 식물들은 참으로 많지만 인체에 그 치료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지 검증된 사실은 없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조제일 뿐이다. 책이나 선전전단 소문으로 퍼진 그 많은 '비방' 들은 결과적으로 암의 진행만 촉진시킨다. 얄팍한 상혼에 편승한 잘못된 기대가 올바른 치료를 방해한다.

암은 극심한 면역력 저하 현상을 초래한다. 사소한 질병이라도 암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무엇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암 환자분들께 이 말을 권하고 싶다. 원론에 충실하고 발상의 전환으로 스스로 가진 치유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부정적인 모든 것을 겸허하게 다 비우면 생명이 갖춘 본래의 에너지는 활짝 드러나게 되는 법이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건강한 구강 관리법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한 임플란트



정 미 화
연우치과 원장

치과에서 말하는 임플란트(implant)란, 치아 임플란트를 말한다. 다른 말로 인공치아 이식술이다.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골이식, 골신장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을 통해 생체 적합적인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과 치료술식이다.

인공치아 이식은 고대에도 시행됐다. 16~17세기에는 금과 상아로 만든 인공치아를, 20세기 초반에는 금이나 은 납 이리듐 철 코발트합금 등으로 제작한 금속 임플란트가 개발됐다. 1940년대 이후 골막하 임플란트와 티타늄 블레이드 임플란트가 개발돼 대중화됐으나, 수명이 짧고 성공률이 낮았다. 반면 1982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표한 스웨덴의 브레네마르크(Branemark)의 골유착 임플란트는 90%의 성공률을 보여 세계적으로 널리 대중화됐다.

임플란트 시술은 일반적으로 1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치아 상실 부위가 커서 다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또는 많은 양의 골 이식이나 잇몸 연조직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시간 수술이 될 수도 있다.

시술 후에는 1시간가량 거즈를 물고 있어야 한다. 1주일간은 심한 운동이나 음주, 흡연은 절대 삼가야 한다. 침을 뱉으면 안 되고, 빨대를 이용해 음료수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한다. 코피가 날수도 있으므로 코는 풀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은 시술 후 병원에서 더욱 상세하게 알려주며, 이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

치유기간 동안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는 자극을 피해야 하며, 턱뼈의 상태에 따라서 치유 기간은 달라진다. 임플란트와 턱뼈의 골 유착을 위한 기간은 아래턱의 경우 최소 4~6개월, 위턱의 경우 최소 5~6개월이 필요하다. 시술부위의 뼈가 약한 경우에는 1~2개월이 더 소요된다. 뼈 이식을 한 경우에는 6~9개월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 2단계 수술은 간단하다. 치유기간은 늦으면 1~2일, 빠르면 바로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

일반 보철물이나 틀니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주위의 치아와 뼈가 상하지만 임플란트는 주위의 치아조직을 상하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연 치아와 기능이나 모양이 유사하면서도 충치가 생기지 않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치아도 그렇듯이 관리를 잘못하면 플러그나 치석 등이 생겨 주위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 치주질환 등을 야기 할 수 있다.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흡연과 지나친 음주, 과도한 저작력(씹는 힘)은 임플란트에 손상을 주게 돼 치료를 실패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

치아의 임플란트에서 100% 성공률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수술 전 치과 의사의 신중한 진단과 계획 그리고 환자 스스로의 적절한 관리만이 임플란트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연우치과 (02)733-1030**

바른 자세 바른 생활

어깨 결림, 어깨 높이부터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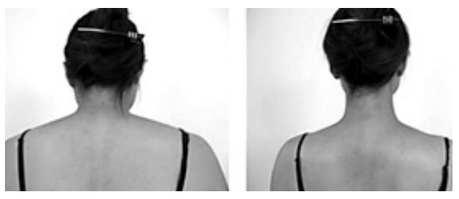
황 상 보 원장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평소 어깨가 많이 결린다고 느껴도 이유를 몰라 불편함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대체적으로 어깨의 양쪽 높이가 달라 어깨 결림 현상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 평생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깨의 양쪽 높이가 다르면 흔히 철봉에 매달리거나 수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으나 어떤 이에게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만약 어깨의 양쪽 높이가 달라 보이거나 이로 인해 어깨 결림이 심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어깨의 양쪽 높이가 다르면,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넓어진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뚱뚱해 보이게 된다. 실제로 상체에 살이 찌게 되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해 어깨가 결리기도 한다.

구부정한 자세는 딱딱하고 경직된 어깨 구조를 지속하게 만든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전체적인 체형이 계속해서 틀어져 척추, 골반, 다리까지 영향을 미친다. 심한 경우 어깨를 돌리거나 목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어깨 불균형 교정 전 후

어깨 비대칭에 대한 근본적인 체형교정은 우선 좌우 어깨 높이를 맞춰 어깨 라인을 바르게 정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가 좋아지면 인상도 밝아져 전체적으로 건강한 느낌을 만들어 준다. 어깨 비대칭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이로 인해 압박 받던 신경의 흐름, 어깨 결림, 목통증, 피로감 등이 해소된다.

특히 어깨의 폭을 넓게 만드는 근육의 밸런스를 재 정돈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든다. 어깨의 골격 자체를 작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게 되면 어깨가 작고 아담하게 보인다.

넓고 구부정한 어깨 비대칭, 어깨 결림 증상은 다음 3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이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과잉 반응시켜 목과 어깨 주위의 혈관과 근육을 수축시킨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다 어깨가 더욱 쑤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이 어깨 비대칭 교정에 필수 과정이다.

두 번째는 바르지 못한 자세이다. 바르지 못한 자세 습관은 어깨 비대칭의 가장 큰 원인이다. 무거운 가방을 한 쪽 어깨에만 오래 매고 있거나 장시간 동안 컴퓨터하기, 신문이나 책을 바닥에서 읽기, 누워서 TV보기, 굽은 자세로 책상에 오래 앉기 등은 어깨 근육의 긴장과 피로를 더해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킨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이다. 운동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혈관을 펌프질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해 비만을 야기 시키며, 늘어난 중량이 어깨에 부담을 줘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깨 불균형은 척추측만증, 목과 어깨 부위의 피부변색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평소 바른 자세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르고 균형 잡힌 어깨를 갖기 위해서는 구부정한 자세는 피해야 한다. 또한 기지개를 피거나 어깨를 가볍게 돌려줌으로써 혈액순환 도움을 줘 가벼운 몸을 만든다. 이 과정을 통해 어깨 결림과 넓어보였던 어깨를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어깨로 만들 수 있다. 1544-9697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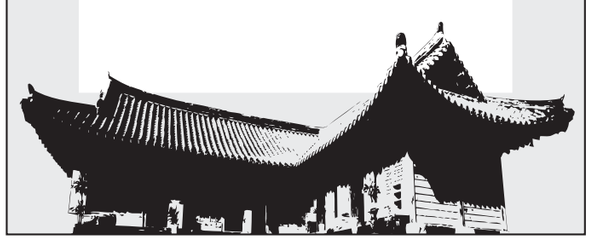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사)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9기생 학인모집

영남범패 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 의식을 체계적인 내외전 강의를 6개월 과정으로 학인스님을 모집하고져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 개 강 일 : 2011년 2월21일(음력.1월19일) 월요일 오후3시
■ 수 강 일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주2회)
■ 장 소 :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진영포교당 (화장사)
■ 과 목 :
• 초급반 : 예경의식 및 사시불공
• 중급반 : 사십구재의식, 각종시식 및 사물다루는 법
• 상급반 : 점안.예수재.영산재 의식등
• 연구반 : 영산소리(삼귀의.합장게.중직.보장.연향.할향게)등. 바라 및 승무작법
■ 학 장 : 한파스님
■ 강 사 : 수암. 휘암. 묘산스님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연 락 처 : 수암스님 (011-488-7060)
화 장 사 (055-343-2267)

개강일에 상관없이 수시로 모집합니다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중의계(5년), 결업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 CH중국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강좌 및 개강일정

서울206기) 1월 8일(토요반) 14시 | 신도림역2번출구
부산 31기) 1월 9일(일요반) 14시 | 전포역5번출구
서울207기) 1월 11일(화요반) 14시 | 신도림역2번출구
울산 2기) 1월 12일(수요반) 14시 | 신정동 효천빌딩뒷편
부산 32기) 1월 13일(목요반) 14시 | 전포역5번출구
제주 18기) 1월 13일(목요반) 19시 | CGV영화관맞은편
광주 20기) 1월 21일(금요반) 14시 | 화정역4번출구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무료 수강생 모집

"아는 것이 힘이요,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우는 경우, 장단족,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림)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락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⑳ 화전리 사방불

고구려人 마음으로 불상 만들어



1983년 충청남도 예산군 화전리에서 발견된 것으로 돌기둥 4면에 불상이 새겨져 있는 백제시대 유일의 사방불이다.

고구려 불교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은 무척 적다. 그래서 조상기(造像記)들이 남아 있는 연가7연명 금동불입상을 비롯한 현재 몇 안 되는 불상들은 의미가 깊다. 조상기는 고구려 불교의 새로운 모습을 알려주는 단서이다. 건흥5연명 금동석가불 광배, 연가7연명 금동불 광배, 계미명 금동삼존불입상, 경4연명 금동삼존불 등은 조상기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불상들이다.

현재 고구려 불교에 관한 연구는 승랑을 필두로 해 중국과 연관이 많은 이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국가불교적 양상하에서만 연구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고구려 불교의 모습을 짐작하기는 어려웠다. 조상기는 이런 부분에 있어 실제 신앙을 한 이들의 기록을 살피는 것으로 역사의 한 자락을 들춰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건흥5연명 금동석가불광배는 고구려 것인지 백제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이 유물에는 '석가문(釋迦文)'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석가모니불로부터 영원히 법을 듣기 바란다는 뜻의 이 말은 〈아함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 등장한다.

연가7연명 금동불광배는 6세기 중반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조성된 미륵상이다. 용화삼회의 자리에서(미륵불이 이 땅에 현신해 중생을 제도하는 일) 열반의 진리를 깨우치고 모든 죄가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계미명 불상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며 조성됐다. 경4연명 역시 스승과 부모들이 다시 태어날 때 마다 모든 부처님과 선지식, 미륵을 만나기를 기원하고 본인들 역시 부처님을 만나 법문을 듣길 기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인들이 조상은 단순히 사상을 넘어 인간 본연의 심성에서 시작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심성의 뒤편에는 법화사상을 기반으로 한 현세적인 기원과 국가적 이상이 함께 어우러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발견됐다.

백제의 경우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현재 남아 있는 유물로서는 당시 불교신앙을 짐작하기 어렵다. 그나마 태안반도에 존재하는 태안 마애삼존불, 예산 화전리 사방불, 서산마애삼존불 등이 백제불교의 흐름을 짐작케 한다. 이 불상들의 위치는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곳에 순서대로 자리한다. 이 중 화전리 사방불상은 바닷가에서 가장 가깝지만 가장 먼저 조성됐다.

화전리 사방불은 동서남북 사방에 조성된 불상이다. 사방에 조성된 불상의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관불삼매해경(佛說觀佛三昧海經)〉의 '본행품(本行品)'에 따르면 동쪽에는 아촉(阿閦), 남쪽에는 보상(寶相), 서쪽에는 무량수불(無量壽), 북쪽에는 미묘성(微妙聲)이라 기록돼 있다. 물론 이러한 배치를 그대로 따랐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추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사방불의 모습은 중국 운강석굴이나 공현 석굴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훗날 한국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등 역사서 드문 상황에서

조상기는 불교신앙 살펴 볼 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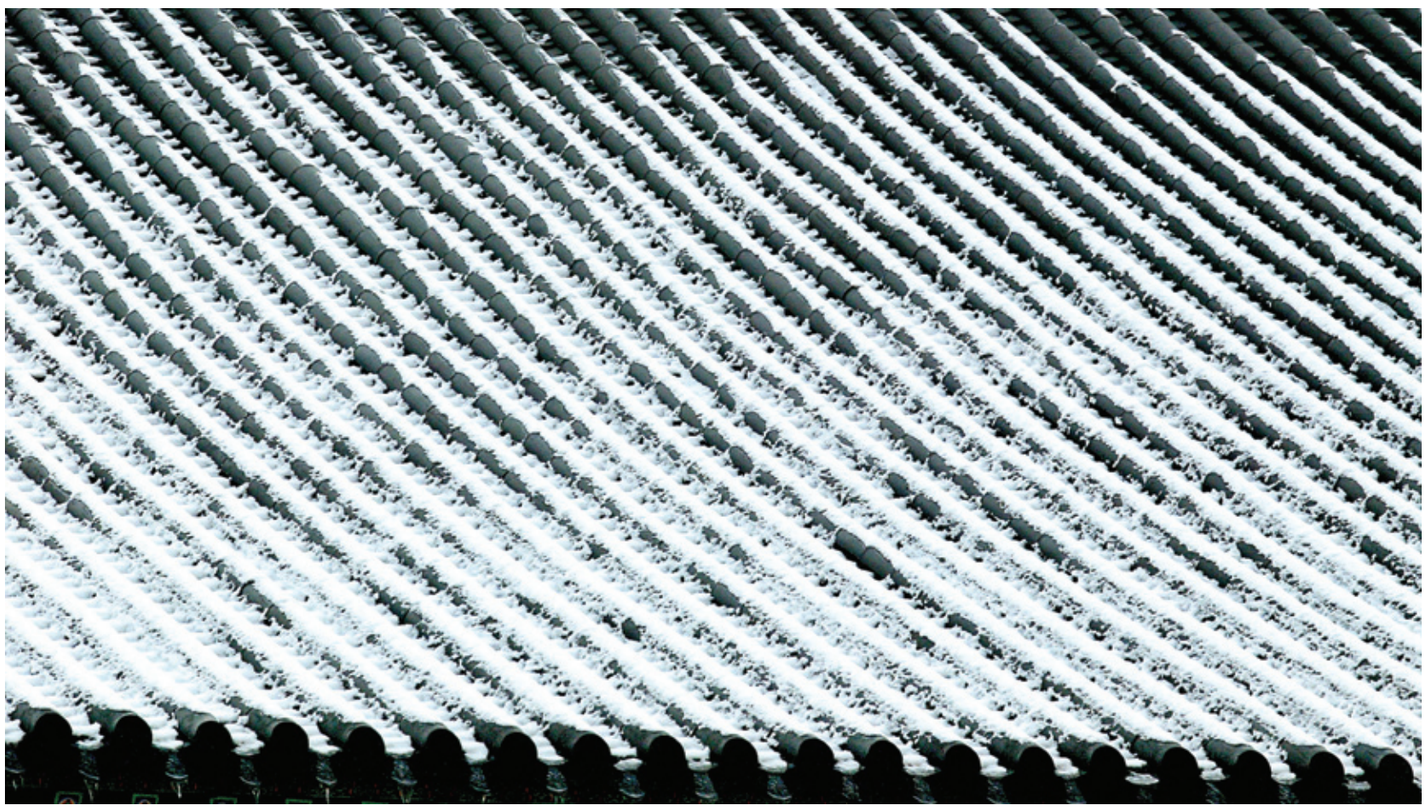
이런 신앙은 단순한 타방 정토에 대한 신앙이 아닌 불탑신앙의 새로운 형태이다. 탑 주변으로 불상을 둘러 배치하는 형식은 인도의 산치대탑이래로 다시 중국으로 전래됐다. 이런 형식이 다시 한국으로 전래됐으며, 우리나라만의 독립적인 불탑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불탑신앙은 불교신앙 중 가장 원초적이고 강렬한 신앙이다. 불교신앙의 대상이 됐던 불탑은 불상이 조성되지 않던 시기에도 부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대상이었다. 이러한 신앙이 불상 조성과 함께 불상과 불탑이 공존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백제불교 신앙의 일면에 이러한 신앙의 형태는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65



조계사

잠들 시간도, 깨어날 시간도 따로 없는 절, 서울 견지동 조계사. 산문 밖에선 고단한 차들이 새벽 범종소리를 물고 어디론가 달려가고, 백발의 할머니는 차가운 향에 불을 붙인다. 달빛이 할머니의 그림자를 끌고 법당으로 가고, 법당 지붕 위에선 잔설이 빛난다.

산새소리도, 걸어 들어갈 숲길도 따로 없는 절, 서울 견지동 조계사. 잠들지 못하는 부처님 곁에서 참새들이 목탁소리를 듣고, 차가운 좌복 위에 쓰러진 이마엔 이내 땀방울이 맺힌다. "관세음보살"

표주박 걸린 수각도, 거미줄 지나간 부도밭도 따로 없는 서울 견지동 조계사. 밤새 달빛에 빛나던 잔설 위로 아침 햇살이 찾아오고, 석조의 빌딩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풍경을 흔들어댄다.



사진부 차장

그림으로 본 극락세계

제27도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

삼화는 아미타 부처님이 보살, 비구, 신중 등 대중의 호위를 받으면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사부대중을 내영하는 장면이 전개되고 있다.

오른쪽 상단에는 중생들이 그토록 원하는 극락이 구름 속에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하단에는 왕생진언이 새겨져 있다. 고려시대 불자들은 아미타내영도 불화를 그려 내불당에 모시고 사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우리도 이제 아미타내영도 판화 한 장이라도 자신의 서재에 모셔 놓고 칭명 염불할 수 있다면 사후 극락왕생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현재의 삶도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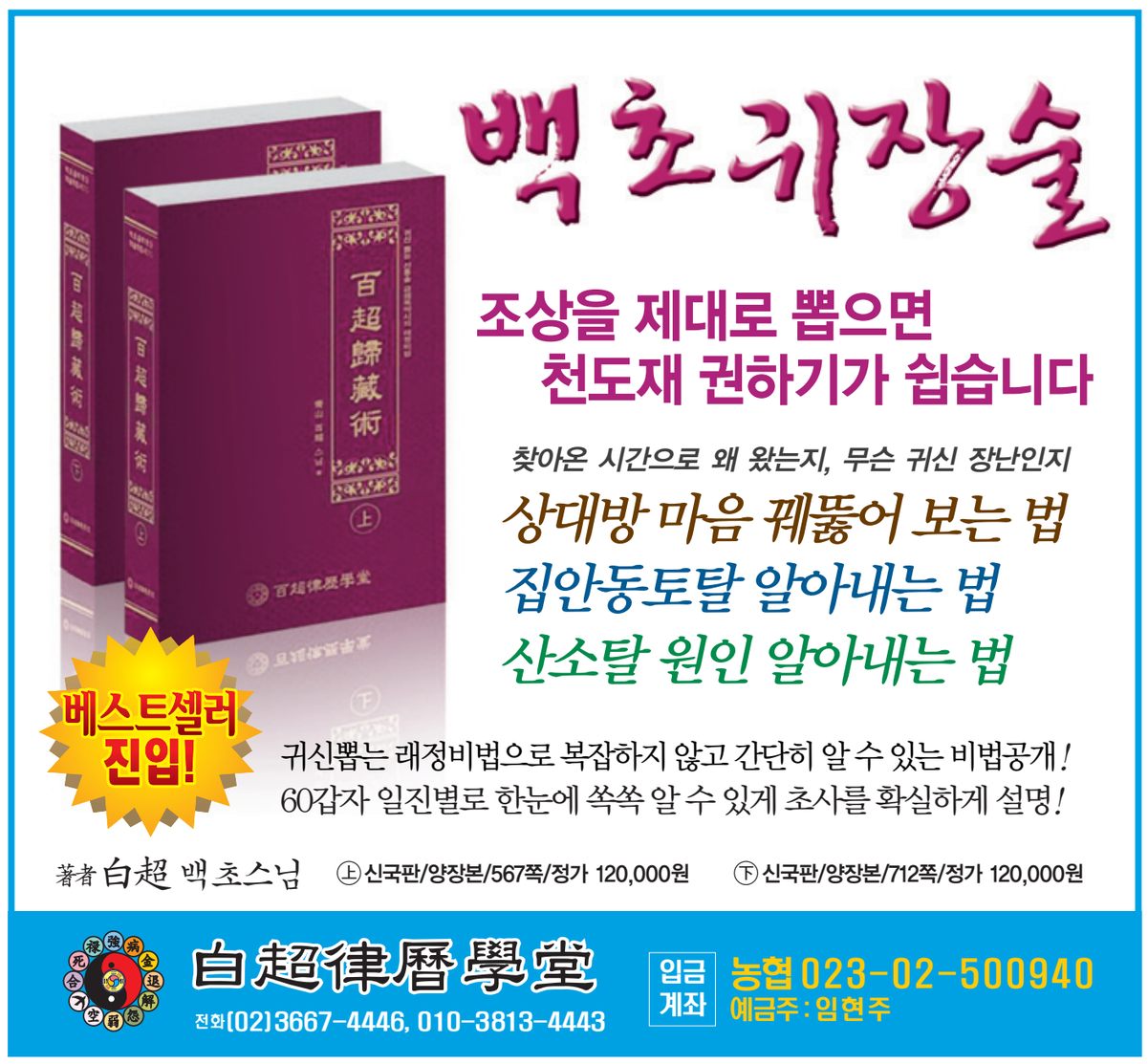
이제 불자들도 막연히 극락을 꿈꿀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 된 극락세계의 삼화를 통해 사후세계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어가보자. 이러한 수행이 익어 가면 우리의 믿음이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나의 삶속으로 녹아 들어와 사바세계의 삶이 바로 아미타부처님이 내영하는 극락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판화박물관소장 〈불설아미타경〉 제27도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 덕주사판 1572년간행, 반곽(半郭) 28.2×21.0㎝

선학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 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자성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냥 좀 믿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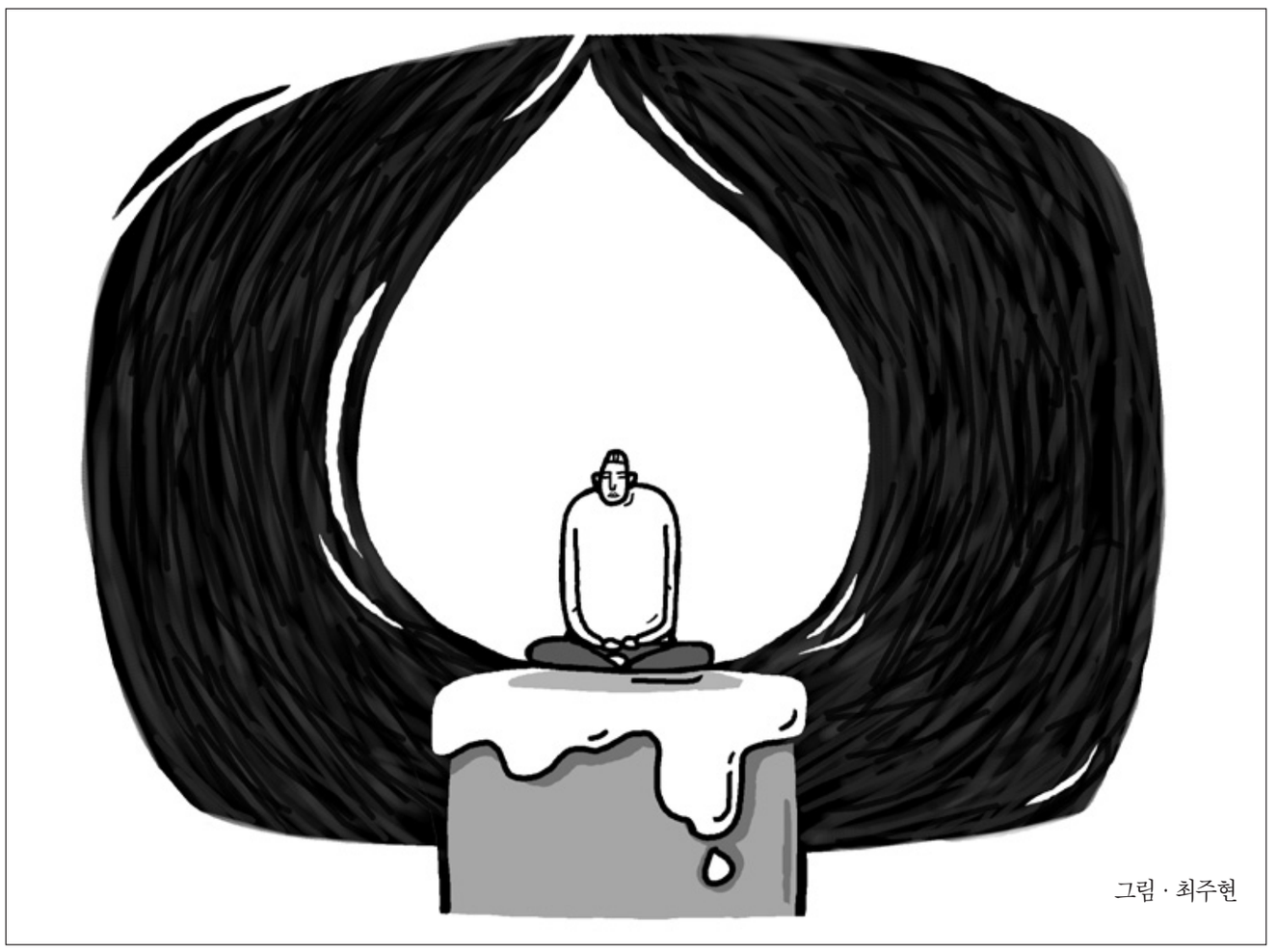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영혼을 주장한다면 불법의 핵심인 무아의 사상에 위배되는 게 아닌지요. 그리고 마음과 영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그 영혼 자체는 바로 육신과 둘이 아닙니다. 이 육신과 영혼이 있는 데다가 그 불씨 에너지, 원소 자체가 있어서 즉, 작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 주게 하는 겁니다. 이 영혼이라는 그 자체가 마음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신이라고도 하고, 악신이라고도 하고 선신이라고도 하죠, 마음을요. 마음을 잘 쓰면 바로 선신이요, 마음을 악하게 쓰면 악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악신으로서 삶을 악하게 살았으면 아주 악의적인 영혼이 되고요, 선의적으로 지혜롭게 대치를 해 나가고 마음을 넓게 잘 쓴 사람들의 마음은 악신이 아니라 선신으로서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 한군데서 영혼이 악신도 나오고 선신도 나옵니다. 영혼 자체가 자기 근본은 아닙니다. 영혼은 악신이 될 수도 있고 선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그냥 이름일 뿐입니다, 영혼이라는 이름. 마음을 잘 쓰는 데서 나오는 선신도 영혼이요, 악신도 또 영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자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혼백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돌아가시면 재를 곱게 쳐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도환생을 했으면 발자국이 나타난다거나, 독사가 됐으면 독사 흔적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악행을 한 혼백이라면 귀신이 머리를 풀어서 산발을 한 모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양을 보더라도 그렇고,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씨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내 주는 반면에 마음속에서 나와서 행동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거를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업식' 이러죠.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영혼의 업식은 따라간다고요. 자기의 불씨는 항상 밝아서 여여한데 그 업식 영혼이 그냥 얼기설기 얽혀


그림 · 최주현

가지고 업식이 돼서 현실에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신도 되고 선신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악신으로서 너무 악하게 했다면 진짜 악신으로 활동을 할 거고, 선신으로서 행했다면 선신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시키는 거는 악신이고 선신이고 몽땅, 악신이 나오면 악신인 대로 거기다 놓고, 선신이 나오면 선신이 나오는 대로 감사하게 거기 놓고 이렇게 하라는 얘깁니다. 업식이 다 이 몸속에 들어 있으니까 악신으로서 악행을 하게끔 이 마음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악신으로서 행이 나올 때는 '어, 이것도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거기다 놓고, '이것도 공부고 재료지.' 하고 거기다 놓고요. 또 잘되고 싱그러운 일이 생기면 '이것도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거기다가 맡겨 놓고요. '참 감사하구나!' 하는 생각만 해도 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음을 그렇게 먹었으면 죽어서도 영혼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고자 백종(百種)을 마련해 놓았고 칠석(七夕)을 해 놨죠. 그리고 촛불재를 하고요. 앞으로 또 촛불재가 다가옵니다만 이 촛불 하나 켜는데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만 밝아질 뿐 아니라 자기 마음도 밝아져서 양면을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촛불입니다. 더군다나 조상님들도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 모습을 쓰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 모습 쓰고 나온 대로에 대접을 받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들을 잘 해 보십시오. 그것이 거짓이 아닙니다. 이건 들고 켜고 하는 데에 방편이라고 하지마는 방편이자 진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거나 열심히 뛰는데도 안된다거나 이런 것도 업에 속하는 거니까, 그것도 본인이 촛불을 들고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거나 부모가 해 주거나 이래도 그건 훨씬 더 물리가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조건이죠. 내가 해 놓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받을 게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만이 한 것만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촛불재라는 것이 아주 못났든 잘났든 또는 업보가 많든 업보가 적든 하여튼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 배우면서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고 업이 면제될 수도 있죠. 살아 있을 때 잘 생각하고 계속 지극하게 수행해서 자기 무명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죽으면 더하고 덜함도 없기 때문에, 그게 새로이 의복을 다시 갈아입고 나오는 때라 교차로가 되거든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더 배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하고 덜함이 없죠. 이 몸, 모습이 없으니까 부딪침이 없고, 부딪침이 없으니까 상대가 없고, 상대가 없으니까 배울 게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꼭 이 도리를 배워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양면 가운데서,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혼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동시에 작용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없다면 바로 실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靈)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까닭은 바로 마음내기 이전 그 자체에 마음과 영혼이 둘이 아니게 결부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낼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영혼을 각각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마음 또한 같이 돌아가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내기 이전은 그대로 근본이 돼 있죠. 그대로 근본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영혼이다, 마음이다 이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체가 움죽거리는 그 자체가,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이들을 기죽지 않게 키우려면…

문) 스님,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기죽지 않게 키울 수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도, 다른 아

☞ 26면으로 계속

인류 모두의 건강을 자신있게 책임진다

절수행♡절교육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수행 몸 · 마음 살아차림

청견스님 700만 배 절수행의 지혜로운 에너지!
부처님 크신 은혜 가피로 고통 받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건강을 회복하고, 소원을 성취한 가슴 찡한~ 감동의 기적같은 엄청난 체험이 많습니다.

▸절을 빨리하여 숨이 차고 헐떡거리며 얼굴이 붉어지고 혈압이 올라가면
절수행이 아니라 화난것!
▸절수행은 만병통치유의 가장 좋은 인류사의 최고 건강법
▸소원성취 업장소멸의 왕중왕 수행기도법!

KBS SBS 생로병사의 비밀 0.2평의 기적 다수방영

☎02)456-0035(서울숲법당 · 부산 · 대구 · 광주)
www.법왕정사.kr
▶매주 화요일 절교육, 매일 절수행기도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
이 세상에 부처님으로
나투셨는데
어찌하여 화탕지옥 칼산
지옥 넘나들며
몬도가네가 되셨는가.
부디 새해에는
부처님으로 돌아오소서!!

대안은 채식입니다.

성지순례 전문여행사 파초여행(주)
051)808-7370

佛紀 2555年 辛卯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고종

종정 김정각 총무원장 김화엄

재단이사장 경원
상임이사 혜광 원로의장 금봉 종회의장 경원 호계원장 용암
이사 화엄 원로부의장 명종 종회사무처장 삼주 교육원장 법해
도기 원로의원 무찰 종회의원 이경담 감사원장 석성
일명 청송 조경담, 대각 총무부장 용운
경담 수암 대성, 덕봉 사회부장 법영
자명 송은 도정, 도허 규정부장 석경
감사 혜천 원각 만성, 혜일 교무부장 지언
원경 법경, 제법 재무부장 보월
일운, 지우 포교부장 지현
자견, 자명 홍보부장 현암
재성, 정일 홍보국장 김지현
지연 자비나눔실천회장 광명심

서울교구 직할 부산교구 삼주 대전교구 용주 대구교구 고봉
울산교구 지운 인천교구 용운 강원동북 보해 강원서북 동청
경기남부 광은 경기북부 영우 경남교구 승원 경북교구 해동
전남교구 혜성 전북교구 석성 충남교구 상원 제주교구 경운

www.ilbung.org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02)998-8161~ 2 / 전송 (02)998-8384

살아 있을 때 꼭 이 마음도리를 배워야 됩니다

☞ 25면에서 계속

이들하고 학교생활하다 보니 상대적인 궁핍함에 마음을 상하게 되고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아이들을 볼 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칠성을 믿어야 수명과 재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까지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믿고 들어가야 아이들도 저도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근본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 여러분이 무슨 가난하다 안된다 하고 울고 짜고 그러지 말고 울 힘이 있으면 힘을 내서 생각을 잘해 보세요. 알고 있는 고놈이 일체 만법을 활용할 수 있는 해결사입니다. 그러니 고놈에게 모든 걸, 용광로에다 넣듯이 자동적으로 넣어 버리세요. 자동적인 기계가 스스로에게 스스로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다 다 맡겨 놓아라 이겁니다. 그까짓 것 뭐, 죽어도 그 솥에 있을 거고 살아도 그 솥에 있을 거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팥죽이 아무리 끓어도 그 솥에 있는 거지 팥물이 어디 갑니까? 그러니 그저 죽어도 그 속에 들어갈 거고, 살아도 그 속에 모두 있을 거니까 거기다 다 놓으시고 한생각 좋게 해서 딱 쳐들어 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생산이 돼서 자동적으로 현실로 나와요. 우리가 헌쇠를 넣으면 새 물건으로 생산이 돼서 나오면서 다시 용도대로 종류별로 이름을 지어 가지고 다시 나오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50%의 행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고서야 그 행적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는데 무슨 우주가 있고 상대가 있겠습니까? 부처가 어딨습니까? 나라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겁니다. 나 빼놓곤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에다 왜 빕니까? 이름에다 왜 빕니까? 아니, 골이 비었습니까, 빌게? 이게 주제넘은 소리 같지만요, 주제넘은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성을 그렇게 전부 갖춰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원력자, 해결사를 나한테 두고도 왜 딴 이름을 쳐다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거기서 얻어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 날 때 나고 남 생길 때 생겼고 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우리가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길 없는 길을 걸을 줄 알아야 하고, 발 없는 발로 디딜 줄 알아야 하고, 손 없는 손으로써 만가지 칠보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여러분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성을 믿어라 이겁니다. 그 자성을 찾으려고만 애를 쓰지 말고 그냥 좀 믿으란 말입니다. 네? 찾기는 어디서 찾습니까? 자기한테 자리하고 그냥 그냥 있는데요. 좀 믿어 봐라 이겁니다, 불 심지처럼 물러서지 말고. 믿는다면 거기다가 놓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믿는다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 몸뚱이가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소용돌이 속에 내가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버리겠다.' 이런 패기가 아주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죽으면 살아요. 죽고 사는 게 없는데 왜 살 수가 없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자성불(自性佛)이란 바로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진실하게 믿으세요, 좀.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을 좋게 해라 이겁니다. 안된다 하더라도 '안되는 게 어딨나? 안되게 한 것도 거기서 한 거고 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한 건데 이번에는 되게 하겠지.' 하고요. 무엇이 되고 싶다면 되게 하는 것도 안되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거니깐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해 달라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러니 더 잘 알고 있는 놈이, 자기가 지금 되고 싶어 하는 거를 자성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다시 돌아서 회전이 돼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되게 해 주시오.' 이럴 필요도 없죠, 알고 있으니까. 말로는 '난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도 속으로는 '아이, 고것 좀 가졌으면….'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아.' 하면서도 '고거 잘 생겼는데.' 요러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성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고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자성이 알고 있죠. 그러니 믿지 못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해서, 아무리 죽을 꿈을 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어허, 죽는 것 사는 것이 따로 없는데 어찌 죽을 게 있노?' '어, 좋은 일 생기겠구먼.' '승진하겠구먼.' 용도에 따라서 딱 생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밀어 던져 버리세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여러분의 아픔과 내 아픔이 둘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 하나 돌리면 모든 것이 그냥, 이 몸뚱이 속의 모든 것이 회전을 해 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자성을 믿고 놓을 수 있고 생각을 잘해서 놓을 수 있다면, 회전이 돼서 50%의 안 보이는 데서 50%의 보이는 데로 나온다면 우리는 사람답고 흥겹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대책 없이 악한 인연을 만났을 때는

문) 살다 보니 별별 인연을 다 만나게 되는데 주위에서 정말 대책 없이 악한 인연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전력은 있는데 이 가설만 만들어 놓고 전력이 없으면 불 안 들어오죠? 그런데 이 세상만사가 전부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다 가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을 켜는데 그쪽에 어떻게 불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겁니다, 나하고 벌써 근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주인공에 탁 맡겨 놓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 봐요. 그리고 만나걸랑 부드럽게 말해 줘요. 뭐, 이 몸뚱이 가지고 얼마나 삽니까? 모두 가지고 갈 건가요? 내 몸뚱이도 버릴 텐데 뭐 가지고 갈 게 있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그래야만 합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걸, 재산을 하늘땅만큼 가졌다 하더라도 내 이 진실한 마음하고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주인공,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즉 말하자면 주인공에 다 이렇게 맡겨 놓고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저 규합돼서 얼굴 붉히지 않고 살게 해 주는 것도 너 아냐? 이 영원한 친구야!' 이렇게, '한마음 친구야!' 이래도 좋아요.

이 공부 하는 사람은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선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선이 되지.' 이런 생각조차도 그냥 다 놓으세요. 행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그 만 가지, 자기 나무에서 익은 실과가, 한 실과가 만 가지 맛을 낼 때 그 즐거움이란 말로 못해서 하늘을 보고 한나절을 웃고 땅을 보고 한나절 울었대요. 어때요? 그래서 앞뒤 터진 대피리 소리는 우주 법계를 두루 하더래요. 좀 그렇게 무조건 당신을 믿고 당신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모든 거를 그저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거라면 공부할 수 있겠죠.

> 무조건 당신을 믿고 지켜볼 수 있는 마음
> 그저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거라면 공부할 수 있겠죠

좌선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이고, 망상이라는 것도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참나를 발견하게 이끌어 주는 바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망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망상이라고 하는 관념 그것도 놔 버려야죠. 아,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분별이 없으면 목석인데 목석이 돼도 아니 되니까 분별을 하더라도 분별을 분별이라고 하지 말고 망상을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만이 열반으로 직결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고 괴롭게 사시지 말고 편안하게 사시라 이거죠.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났다가 한번 옷 벗기는 마찬가진데 옷 벗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좀 알고나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살지?

문)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 놈이 하루는 TV를 유심히 보더니 "엄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제주도까지도 날아간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은 했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스님,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요?

답)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달리 나투어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지혜로써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내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고 이루종차 가르칩니까?

우리는 지금도 가난한 전세방에서, 그나마도 반쪽으로 나누어진 이 전세방에서 참 살기가 극난하다고 봅니다. 살기가 극난한 게 아니라 겁난다 이겁니다. 왜 겁나느냐. 나는 6·25를 지내 봤으니까 압니다. 지금은요, 6·25처럼 그렇게만 싸운대도 또 겁 안 납니다, 달아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 공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그마한 새우 싸움이 만약에 고래 싸움이 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좀 안됐다 하더라도 한생각으로서 급하면 급한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건 이렇게 돼야겠어!', '지금 우리 방석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 '천만에! 여기에는 너희들이 손을 못 댄다!' 라는 마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작으나 크나 '이건 못한다.' 하는 약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금강자석은 약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자석은 한데 합쳐지듯이 우리는 조직입니다.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이 바로 조직체입니다. 한 그릇 안에서 우리는 한 살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이 자체가 큰 살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살림을 하는 데는 한생각이, 그 생각이 아주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떠한 머저리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모두가 한생각, 지혜를 이런 때 써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하, 저 사람네들은 안하무인이니까 저 사람네들의 주장심, 즉 말하자면 금강자석이 있는 것을 홀딱 여기다 붙여 버리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또 어느 사람이 아주 유망하다 할 때는 금강석을 그쪽에다가 붙여 주고요. 그쪽 자석에다 붙여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백 명의 능력보다도 한생각이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열 사람의 능력을 거기다 보충해 준다면, 바로 금강자석의 그 능력에 투입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깨닫는 데만 역점을 두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가정이라는 조그마한 데의 문제를 놓고 검토하고 실험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다 할 때 이것을 자석에다 탁 놓는단 말입니다. 놓으면 이 자석은 자기의 근본에서 나오는 분신이라서 에너지처럼 돌아다니며 다 해결을 합니다. 무에서는 무대로 해결을 하고 유에서는 유대로 부지런하게 뛴다면 이거는 정말 시쳇말로 '왔다' 입니다. 그렇게 걸리지 않고 능히 한생각에 우주가 들릴 수 있다면, 또 한생각에 우주를 덮을 수 있고 돌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딨겠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이 공부를 하신다면 한생각에 그 모든 걸 아주 자재력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동적이고도 지혜적이고도 여러분의 그 불성의 능력을 다 같이 한주먹에 쥐고 그 한생각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사는 지혜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걱정이다. 자식을 하나 낳아 대학공부까지 시키려면 요즘 물가로 2억 5000만원이나 필요하다니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더욱 꺼리게 됐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지속돼 왔다. 이제는 인구의 구성비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어 14%대를 향해 진행하고 있다. 14%대에 이르면 고령화를 지나 고령사회가 된다. 이대로 30년 후면 국민연금도 고갈된다는데 누가 노인들을 부양할 것인가 걱정이 크다. 경제적 상황도 문제이지만 세대간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전 세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몫이 될 것이고 그 부담을 떠안은 다음 세대의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지 오래로, 40대를 전후해 조기퇴직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또한 이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이다. 운이 좋아 50세를 넘겨 퇴직을 한다해도 그 나이는 노인이 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새로운 직업을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정부도 오래전부터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는 한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요즘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노력과 투자는 과거 10여 년 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달라져 있다. 세계 도처에 우리나라의 조기 유학생들이 산재해 있고 한집 건너 기러기 아빠들이 살고 있다. 결국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고령화의 경고등도 이미 오래전에 켜져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돼 가고 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나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당장 현실적인 경제적 상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의식수준을 갖추어야 할 때이다. 암울한 국가의 미래 속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식과 후손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고령화 시대를 사는 노인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인생의 말년에 젊어서부터 준비해둔 재산에 기대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행이나 다니는 인생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노년의 기준도 될 수 없다. 인생의 황혼기에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과 크고 작은 일을 떠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노후설계는 경제적 준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이다. 이제는 세상이 변해 일생동안 한 직장에서 한번만 정년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퇴직제와 다단계 퇴직제 등 여러 단계를 거쳐 다양한 일을 하며 일생을 마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는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 많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령사회에 대처하는 유일한 해답은 일하는 노인이기 때문이다.

사부대중 칼럼

860억원 어치의 복권



정완
전국비구니회 교무국장

'비어 있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찻잔은 왜 쓸모가 있을까? 장식용인가? 아니다. 하나의 찻잔은 비어 있을 때 우리가 차를 부을 수 있으므로 쓸모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버리려 할 때 우리는 마치 찻잔과 같아진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나 '바로 지금 여기에' 처럼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문제들에 대해 마음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두게 된다.

사회에서는 돈, 칭찬이나 비난과 같은 타인의 평가, 내 행위에 대한 보상 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렇지만 주의와 관심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왜 '주의와 관심'이 중요한 것일까? 왜냐하면 이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 양쪽 모두에서 개인적이면서도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질적인 면'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게 된 사람과 맺는 깊은 관계를 뜻한다. '양적인 면'은 시간에 관한 것이다. 시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 지금 864억 원에 해당하는 복권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이 복권을 가질 수 있다. 당첨될 확률은 너무나도 적지만, 누군가는 당첨될 것이다. 바로 내가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자.

매일같이 우리 모두는 푸짐한 상금을 받고 있다. 매일 아침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계좌에 864억원이 들어온다. 하지만 이 복권의 당첨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이 있다.

①이 복권은 하루를 마칠 때까지 쓰지 않은 모든 돈을 회수한다. 다음 날로 이 돈을 가져갈 수는 없다. 자정이 지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면 또 다른 864억을 받게 된다.

②우리는 이것을 돈으로 바꿔둘 수 없다. 쓸 수만 있을 뿐이다.

③상금은 하루 중 어느 때라도 경고와 함께 혹은 경고 없이 회수될 수 있다.

④상금을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과연 나는 이 복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돈을 쓸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루 중에 쓸 수 있는 이 복권에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의 선물처럼 받는 시간은 매일 8만6400초이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잘 쓰지 못한 시간들은 그대로 보내야 한다. 그날 하지 못한 일들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 어제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그 어떤 보장도 없다.

날마다 내가 쓸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채워진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라도 경고와 함께 혹은 경고 없이 멈춰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8만6400초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루의 이 시간들은 과연 돈이나 그 어떤 물질적인 소유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즐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간을 비관적인 행동들로 채워 나가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써보자.

그렇다. 비록 푸른 하늘과 바다는 한계가 정해져 있더라도 인생에서 거의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중요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 기준에 따른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시간들과 나의 재능들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순간, 하루 8만6400초의 시간은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들과 의미 있는 관심의 시선들을 나를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 보자.

사 설

억대 사찰 난방비 줄여야 한다

새해부터 원유가 급등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 배럴당 평균 70달러 후반이었던 국제유가가 최근 20% 이상 상승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이 상한파로 유난히 추운 요즘, 많은 사찰들이 난방 연료로 실내등유와 보일러 등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여기저기서 고민이 많다는 소리가 들린다.

난방 효율이 좋지 않은 전통 목조건축이 다수인 사찰로서는 난방비 부담이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추우니 난방을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문제는 난방 방식을 바꾸면 그래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데 있다. 신도들이 마음을 더해 시주해 모인 삼보정재가 기름값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은 여기에서 나온다.

다행히 대형사찰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화목보일러나 태양열, 지열 등 연료를 다양화하고 있다. 하지만 말사 등 작은 사찰에서는 비용문제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일선 사찰에서는 초기 설비비용이 높아 목돈이 든다며 고개를 절로 흔든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사찰에너지 연구팀이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사찰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구결과 발표 이전이라도 각 사찰마다 형편에 맞는 에너지 절감의 지혜가 절실하다.

역사에 부응하는 대토론회 되려면

조계종이 1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지속적인 승가교육진흥불사 추진으로 불교중흥을 이룩합시다' 제하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준비됐다.

첫 번째 토론회는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1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발제자로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이 나선다.

이어 2월 23일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를 주제로 열리는 두 번째 대토론회의 발제자는 백련문화재단이사장 원택 스님이다.

조계종은 토론회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종무기관 및 사찰과 협의해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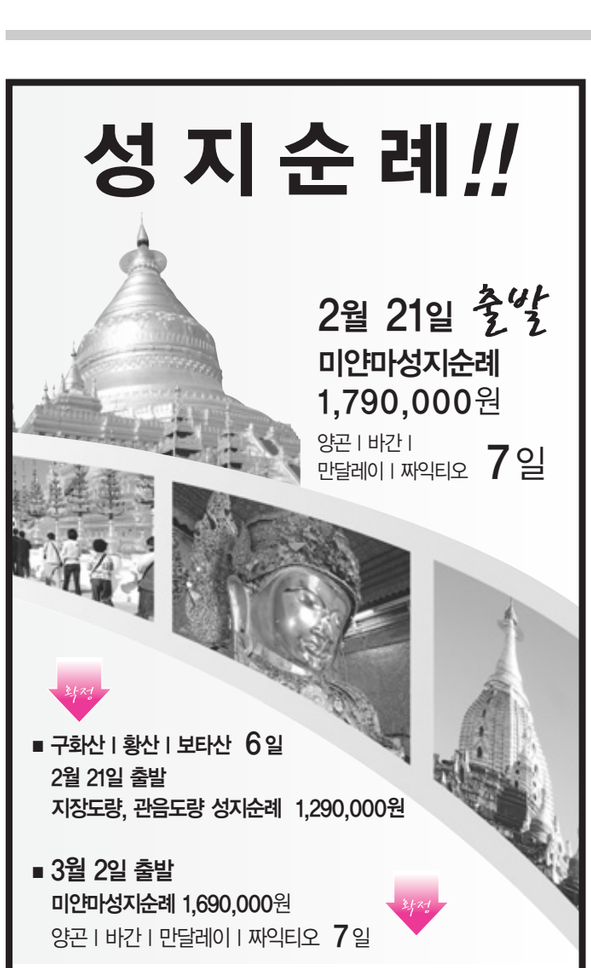
이 같은 행사는 1980~1990년대 인드라망,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환경연대 등 재야단체에서 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계종의 이번 토론회 개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우선 대토론회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낯설지 않다. 학술세미나와 같은 행사 진행방식도 그렇다.

사전에 주제를 공개해 보다 사이버 공간 등에서 많은 대중이 참여할 수 있게 방법을 바꿔야 한다. 의견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날 불교 현실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을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한다.

제33대 집행부는 지난해 소통을 화두로 종책을 펼쳐왔다. 수많은 공청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할 때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성 지 순 례 !!

2월 21일 출발
미얀마성지순례
1,7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확정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6일
2월 21일 출발
지장도량, 관음도량 성지순례 1,290,000원
■ 3월 2일 출발
미얀마성지순례 1,690,000원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확정
미얀마 종교성 관련 전문여행사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스님...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가 모태가 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찰관련대출…
보장되지 않은 대출이율과 이사장이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겪어야하는 종교적 성향에 따른 대출금 상환독촉을 겪어보신 스님들께서는 이제야 귀의처를 찾았다고 안도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보현사신협은 불교를 모태로 스님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불교병원건립 등 불교복지재단설립을 위해 창립된 전국 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1 사찰매매시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전문 불교은행입니다.
2 이사장(前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지성 큰스님) 스님을 비롯한 대덕 큰스님들께서 운영하시는 불교은행입니다.
3 보현사신협은 수익금을 초파일 연등법회, 제등행사, 봉축위원회 분담금 지원, 불교대학 장학금, 불교신행단체 지원 등 불교계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전국유일의 불교은행입니다.
4 보현사신협 전 직원은 불자로서 20년 전통의 노하우로 가람의 평가 및 사찰의 역사적 가치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평가해 드립니다.
대출금리 연 7.2~7.6% [1억 대출시 월이자 최저60만원]



불교은행 보현사 신협 확장 이전기념 (2008. 01. 28)
이사장 지성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 전무 서일영 011-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절대 옻이 타지 않는 옻의 원조
농업법인 (주)옻가네

2010년 대한민국식품 발명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 17일)

헐은 위, 지친 간 토종참옻으로 다스린다!!

위와 장을 편안하게 속을 따뜻하게



토종참옻은 우리 체질에 잘 맞으며, 뛰어난 효능이 입증되어 아주 오래된 산삼의 효과를 능가한다고 하여 옛부터 한방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십년묵은 체증도 녹이는 참옻

옛부터 옻은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보다 좋은 명약이라 하였습니다.

20세기의 기인으로 인산죽염의 창시자 김일훈선생은 저서 『구세심방』과 『신약』에서 "옻은 산삼과 비견할 만큼 중요하고 효과가 높다"고 하였다.

동양에서는 옻이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어혈제거, 위장질환, 여성의 생리불순 등 민간요법에 이를 이용한 처방이 전래되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우루시올 성분이 항암, 항산화(노화방지) 및 항균활성이 강하며, 옻나무에서 추출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형성 억제작용으로 암세포의 증식, 전이를 억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유도하는 항암 효과가 확인되는 등 옻은 옛부터 한방과 민간요법에서 혈액순환 촉진, 위산과다, 생리통 등에 널리 쓰여 왔습니다.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길러줘" (상지대 한의대 김명동교수)

수술중 마취에서 생긴 어혈을 풀어주고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 주는데 옻을 사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근육과 뼈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선수와 체육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체력증진 효과도 경험하였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두통, 피로와 설사에 사용하였고,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한 양기부족에 참옻을 사용하여 발기부전의 치료효과가 매우 좋았다. 또한 30대 후반의 한 남성의 경우 여름에도 난로를 켜고 지내야 될 정도로 무릎이 시렸는데 참옻을 2개월 반정도 복용시키자 회복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임산부의 산후관절 시림증상을 치료하는데 응용하여 많은 효과를 보았다.

손발이 차고, 저리고, 추위를 많이 타십니까?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본래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가을걷이가 끝난 초겨울에 옻닭을 해먹고 부유한 층에서는 개 또는 흑염소를 넣어서 탕으로 먹었다. 왜냐하면 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이 시리고 저린 증상을 없애주며 뼈속이나 무릎이 시린 통증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토종참옻을 민간비법으로 활용하여 겨울을 건강하게 지내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다.

또한 시장이나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 하시는분들이 겨울에 옻을 복용하면 몸이 따뜻하고 손발이 따뜻하게 되어 내의를 한벌 덧입은 것 같이 몸이 훈훈하여 추위를 타지 않게 되어 한 겨울에도 감기몸살 걱정없이 건강하게 지낼수 있다.

농업법인 옻가네는 국내산 토종 참옻을 이용하여 누구나 옻이 타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참옻식품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 2010년 제천국제 한방바이오 엑스포 공식지정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식약청(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그 까다롭기 유명한 미국의 **FDA**에서도 안전성을 인정한 **검증받은 제품**입니다.

발효기술을 접목한 "발효참옻제조" 특허기술

콩을 그냥 먹어도 좋지만 발효시켜서 청국장이나 된장으로 먹으면 훨씬 더 몸에 좋듯이 토종참옻도 발효시키면 몸에 이로운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옻을 식품에 첨가하여 요리하면 독특한 효과가 있는데, 모든 육류에 첨가하면 고기특유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기름기를 녹여 고기맛을 부드럽게 하여 고기맛을 더욱 좋게하며, 건강에 매우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아주 좋다.
옻은 천연항균, 살균력이 있어 심한 발냄새, 무좀, 피부질환에도 효과가 좋다.

본초강목

만성위장병	피부 질환, 아토피	부인병, 자궁근종, 생리통	어혈제거, 혈액순환	뼈가 저리고 쑤시고 허리가 아프다
利小腸(이소장) : 장의 기능을 좋게함.	療咳樹(료해수) : 가래, 기침병	女子疝瘕(여자산구) : 부인병 하복통 치료.	除風(제풍) : 중풍을 다스림.	折傷(절상) : 뼈가 부러지고 다친데.
保中(보중) : 소화기관, 위장병 고침.	風寒濕痺(풍한습비) : 감기, 고뿔, 뼈통증.	主女人經脈不通(주여인경맥불통) : 여자의 생리를 순조롭게 함.	消瘀血痈結腫痛(소어혈비결요통) : 허리 아픈데를 풀어줌.	續筋骨(속근골) : 근육, 뼈, 힘줄을 이어줌.
			削年深堅結之積滯(삭년심견결재적체) : 병덩어리를 없애줌.	九服經身耐老(구복경신내노) :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음.
			破日九凝結之瘀血(파일구응결지어혈) : 피를 맑게 함.	眞髓腦(진수뇌) : 뼈속, 머릿속골을 채워줌, 골다골증 치료.

옻이절대 타지(오르지)않는 가족건강 지킴이 토종참옻

- MBC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싱싱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작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12월 2일)

금상 옻안타는 옻을이용한 숙취해소 음료개발

은상 옻안타는 참옻발효진액 제조 방법 개발



FDA 미국식품안전청 KFDA 식품의약품안전청 특허청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지정상품

2010년 대한민국 식품발명대전 (12월 17일)

최우수상 수상





▲방송협찬중인 옻가네참옻제품

옻가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체험수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효과를 보신 것에 저희도 무척 놀랐습니다.
더욱 열심히 정성을 다해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초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파워치 60봉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멸가루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아랫배도 차거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구입할때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2일째 아침에 숙변이 검정색에 냄새가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입맛도 좋아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서서가고 아프던 허리가 풀어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일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봉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걱정 두려움도 없지 않고 잠은잘도 잘자고 고기나 멸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피로도 확 풀려서 몸이 마치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봉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나와 똑같은 증상을 만나기 바라며 모든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담당의사도 놀란 간경화 수치의 정상화 최○○ 경기도 분당 60세/전직 아나운서

간경화 수치 1280 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개월을 치료하니 간수치가 900으로 떨어졌다 더 이상은 정상이 없어 돌아온 후 그주아다 들림치료를 했지만 간수치 700인 상태에서 더 이상은 정상이 없었습니다. B 방송 TV 방송을 보고 제주에서 선물을 해보지만 효과소자 실망하지 않았지만 실물에 큰 분의 생각로 방송하기 시작한지 (0일경도 지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3개월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간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담당의사조차 놀라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 주아다 가진 병원을 3개월에 1병으로는 양을 늘게 대접으며 혈색이 간수치는 85/120 로 돌아왔으며 혈도 4에서 3.5 로 승리함.
더욱이나 상기한 것은 10년동안 치료 복가능 했던 빈혈우증이 왔지 되었으며 명확성이 약물복제로 감염되었던 대상포진 흔적 사라졌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경원에서 아토피 같은 피부병에 옻계의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구입하여 먹게 시작하였습니다.
기관지 염병증상과 4번선. 1년정 상에게 넘어서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등쪽에 큰 덩어리을 얻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옻가네 참옻진액을 먹은후에 운동이 사라지게 얻어 돌고 사지가 편안해 지고 아래 병원 이곳에서 진찰받아 보았지만 큰 차가 없었는데 꾸준히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아졌다.
지금 건강에 얻어 좋은 정보가 되어 나빠고 식욕도 왕성해 졌고 (0년 정도 복용하셔서 여러 다 사라졌습니다.
옻을 망설이시면 건강한 분들에게 권장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혈액순환 장애의 초기증상

① 손, 발이 차고 저리며, 쥐가 잘나고 경련이 자주 일어난다.
② 옆구리, 등, 허리에 담이 잘 걸린다.
③ 피로감이 심하고 눈이 충혈된다.
④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다.
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흥분을 잘 하고 초조감을 느낀다.

농업법인 (주)옻가네

는 산업자원부 지정 전통의약산업센터 한국건강기능 식품협회 정회원, 한방클러스터 회원업체, 농협과 제약회사에서 '옻 안타는 옻, 옻진액기술'을 이용한 옻원액을 공급하며 간편한 포장의 참옻진액을 제조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업, 믿음을 주는 기업, 옻가네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자 합니다. 동의보감, 본초강목, 구세심방, 항약집성방, 방약합편등 전통의약서적에서 독성만 제거하면 산삼에 비견된다는 토종참옻을 누구나 안전하게 염려없이 드시고, 진가는 예전 옻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독성은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토종참옻 100% 국내산

옻가네 참옻제품 불만족시 100% 환불보장제 실시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3~4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패트병 = 1.5L)
6병 93,000원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ml × 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 민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0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고급형구입시 100명 선착순 한정으로 사은품 토종참옻환을 드립니다.



토종참옻환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

옻お金 제천약초특구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38-25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